

|            |     |    |
|------------|-----|----|
| 98<br>2/20 | All | 23 |
|------------|-----|----|

제 1 회 서울 퀴어 영화제

---

The 1st Seoul Queer Film & Video Festival

1997. 9.19-9.25

연대 동문회관



## 퀴어시네마의 만신전(萬神殿)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10여개월 간 제1회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가 정성들여 마련한 퀴어시네마의 역사와 미래가 여러분의 눈 앞에 펼쳐집니다. 부당한 검열과 더 부당한 무시와 방치 속에서 그리고 흑심한 가난 속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국제 비경쟁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퀴어 영화제인 서울 퀴어영화제는 이제 첫 발을 댔을 뿐입니다. 서운한 심정이 목젢까지 차오름에도 서울 퀴어영화제는 늘 그랬듯 스스로를 격려하며 여러분과 조우합니다. 구구히 말하는게 어리석음 만큼 뽕뽕한 보수주의가 득세하였고, 그럴 즈음마다 우리를 만류하고 저지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끄덕없이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싸움을 하였고 또 아주 자그맣지만 우리의 승리를 기꺼이 자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퀴어들에게 낭보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화를, 우리의 문화를 생산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이지만 너남할 것 없이 즐겨워하십시오. 서울 퀴어영화제는 이제 여러분의 낮빛을 살피며 이 만신전의 문을 열 것입니다.

1997. 9. 10.

서 동 진

제 1 회 서울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

프로그래머, 집행위원



queer

## 제 1 회 서울퀴어영화제에 보내는 축하의 메시지

제 1 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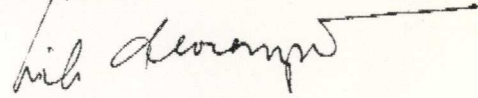
귀 영화제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나머지 다른 세계의 동성애들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게이영화제작자로서 나는 아시아의 동성애자들이 우리들의 가족, 교회, 정부 그리고 사회로부터 부과되는 억압적인 횡포로부터 해방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있습니다. 그 점이 제가 서울의 첫 게이 레즈비언 영화개최를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영화제는 - 다른 세계처럼 - 소수인간집단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권리를 긍정하고 존중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벗,

닉 데오캠프 Nick Deocampo

모웰펀드 영화연구소 Mowelfund Film Institute

Sincerely yours,



**NICK DEOCAMPO**

Director

Mowelfund Film Institute

queer

축하메시지

| 인권 자료실 |    |    |
|--------|----|----|
| 기호     | 자료 |    |
|        |    | 23 |

우리는 왜 레즈비언게이영화제를 열까요? 오늘날 어디에나 레즈비언게이영화제가 존재하고, 심지어 상업적인 할리우드 모험물에서조차 점차 레즈비언 게이 내용을 가지는 영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강지처클럽 First Wives' Club"에는 다이안 키튼의 딸이 공개적인 레즈비언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 수 없기에 고통을 겪는, 우리가 지난날 그토록 많이 보아왔던 그런 부정적이고 억압된 유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 오늘날의 사회에 레즈비언 게이들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게이 미용사, 게이무용수, 게이 연쇄살인범만이 있는게 아니라 게이 교사, 게이 지체부자유자, 게이정치가, 게이농부, 게이사업가, 게이실업가, 게이 카톨릭신자, 게이군인들, 게이건설노동자, 게이 행려, 게이변호사, 게이 의사, 게이감독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속엔 게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게이 삼촌과 숙모가 있고, 게이 조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룸메이트, 그리고 이웃사람들이 게이일 수도 있습니다.

레즈비언과 게이는 당신같은 게이아닌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고, 좋은 싫든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또 더 이상 숨어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항상 이곳에 존재하여왔지만 우리는 지금에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천명하며, 당신들이 우리를 멸절시키지않는 한 계속 이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레즈비언게이영화제를 열까요? 세상엔 수없이 많은 특수한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도큐멘터리 영화제, 유색인종 영화제, 실험영화제,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 음악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물며 우리라고 레즈비언게이영화제를 열어선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엔 무려 백여 개가 넘는 레즈비언게이영화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인 대만, 홍콩, 일본이 현재 여러해동안 이런 페스티벌을 열고 또 누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이 레즈비언게이 영화제를 여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 대해 나는 놀라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레즈비언게이들이나 이에 관심있는 관객들이, 한데 모이기 편하고 또 우호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특수한 관심의 영화들을 편히 누릴 수 있었던 탓일까요?

나는 1994년 뉴욕의 게이 게임 the Gay Games 개막식에서 한 게이 한국계 미국인이 혼자 행진을 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내년 전세계에서 만5천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할것으로 기대되는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누가 한국 국기를 들고 행진할까요? 한국 정부가 다른 개별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등국가로 자기네 나라를 보이게하고 싶다면, 가족의 가치말고도 다른 가치를 인정해줄 때가 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그 어느날 한국에서 자신들이 인정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지않으려는 레즈비언, 게이 한국인들을 부디 만나지않기를 바랍니다.

제 1 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성공을 바라며

나카다 도이치 中田統一, Nakata Toich

영화감독



**Toichi NAKATA**



queer

축하메시지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를 축하합니다.

이는 한국 퀴어문화와 한국의 민주사회로의 발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세계의 퀴어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쾌거입니다.

두어해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공개적인 퀴어문화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에 매우 놀랐습니다. 지난 수십여년동안 한국은 누구나 자기존경, 위엄, 자유의 가능성을 갖는 개방된 민주사회로 이행하는데 노력해온 사회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이, 한국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다른 퀴어공동체의 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에 열려져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느끼게 하는 한, 완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나아가 영화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변화해나가도록 고무할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퀴어영화제는 바와 공원, 그리고 인터넷같은 공간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 대화하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 공동체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이해를 발전시키며, 일반적인 공동체와 의사소통의 가교를 확대할 수 있는 또다른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 세계의 퀴어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한국에서 급속히 발생하여 성장하고있는 퀴어문화와 세계의 퀴어문화를 잇고있습니다. 그로서 서울 퀴어영화제는 90년대 동아시아의 퀴어문화의 폭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게이로서, 나는 두가지점에서 이것이 퀴어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은 스톤월항쟁 이후에 나타난 미국식 모델 말고도 퀴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보수주의세력이 점점 더 범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맞서 조직되고 있을 때, 그것은 보다 큰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 퀴어영화제를 축하합니다.

크리스 베리

Chris Berry

영화평론가, 호주 라트로브 대학 영화학과 교수

queer

축하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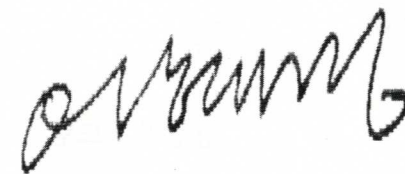
처음으로 퀴어영화제 개최 계획을 들은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여성영화제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예감되던 즈음이라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음 드디어 올라오는 군", 기분좋은 든든함과 "우리보다 더 어려울텐데……" 하는 염려의 마음이 함께 교차하였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되는군요. 해냈군요.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요. 축하합니다!

퀴어영화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지지하는 우리들은 아직 이 사회에서는 정말이지 너무도 한줄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의 정치적, 문화적 의미는 대단히 커다란 것입니다. 영화 내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어마어마한 예산의 커다란 영화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퀴어영화제나 인권영화제 혹은 여성영화제와 같이 특정한 철학이나 세계관, 삶의 태도를 함께하는 집단들의 움직임, 생산물은 우리 사회의 영화의 내용을, 형식을,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자 책임입니다.

획일적인 가치관이 판치고있는 우리 사회는 정말이지 많은 주변적인 것, 퀴어적인 것의 들어올림이 필요합니다. 퀴어가 더 이상 퀴어가 아닌 이런저런 삶의 스타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축제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의 이겨냄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점점 풍부해지고 발전하는 퀴어영화제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혜경





퀴어영화제를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퀴어영화제를 이루어낸 여러분들의 작은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영화 '제'는 축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그토록 많은 전투와 상처를, 적지않은 동료들의 이탈을 지켜보면서 축제를 축제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차이를 인정하지않는 동일성의 폭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에서도 그러하고 안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퀴어영화들은 사실 우리 주변을 떠도는 유령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퀴어영화들은 컬트 영화로 오해되기도 하였으며, 호사가들의 '별미'처럼 인식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아직도 새로운 유행(들)에 대한 과소비의 경향처럼 완전히 오해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퀴어영화제는 해야할 많은 임무를 걸머지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제는 우리들 모두로 하여금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오해들과 편견을 정정시키고, 더 나아가 그럼으로써 더 큰 우리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일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퀴어영화제는 영화가 특정한 가진 자들의 몫이 아니며, 더 나아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하나의 정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제의 성공이 우리들의 영화에 더 많은 살을 맞대고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어영화제의 성공은 그 어떤 영화제의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은 영화에 대한 하나의 희망의 약속이 될 것이며, 만일 실패한다면 우리들은 더 많은 부채를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영화제가 진다면 우리는 정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퀴어영화제의 성공이 내년의 퀴어영화제를 축제로 이끌 수 있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퀴어영화제는 전선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그러하다면 저는 여러분의 진영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첫 번째 퀴어영화제를 축하합니다.

정성일 드림

2003.10.10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에 퀴어영화제의 개최 확정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대중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문화중 영화를 통하여 한발짝 다가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퀴어영화는 일반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문화안에서도 보기 힘든 영화였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의 동성애자 문화와 사회 속의 인식, 그리고 동성애자 자신의 정체성등 간접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룡의 검열등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개최를 하게되어 퀴어영화제 준비 사무실분들에게 다시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며, 아울러 퀴어영화 한 순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다시 한 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동성애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2회, 3회 계속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사이 김기현

김기현



queer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차이의 시선/부정의 시선'을 제기한다. 그 말이 평범하듯 우리가 겨냥하고 주목하는 입장과 의지도 평범하다. 우리는 영화를 이루는 복잡한 시선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시선, 영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영화의 표면 위를 오가는 시선 그 모든 시선들이 이성애적 시선임을 잊지않는다. 따라서 차이의 시선/부정의 시선은 영화를 에워싼 이성애주의(heterosexism)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주의 시선이다.

많은 이들이 영화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영화의 시선이 이성애적 남성의 시선에 의해 장악되어왔다고 주장했고 또 그 주장은 영화의 역사를 통해 증빙되기도 하였다. 우리도 그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여성이 하나의 물신적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되고 재앙을 겪었듯 동성에 역시 영화 속에서 매우 특별하게 존재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성애적 정체체성의 다른 것(the other)이 되어 이성애 정체체성의 무사함과 완벽함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계집애같은 사내이거나 콧소리의 기이한 집많은 남자로, 때로는 포르노그래피의 관능을 더하는 복종적인 레즈비언으로 우리는 영화에 불려나갔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우울해했다.

차이의 시선/부정의 시선이란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시선은 그런 비뚤어진 시선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다. 그러한 시선은 잘못이기에 앞서 한정된 뜻으로 말하자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시선이 비뚤어진 것을 타박하기에 앞서 그 시선이 만들어지게된 경위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시선이 가진 힘과 효과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금 이성애적 시선을 동성애적 시선으로 혹은 다른 성적 소수집단의 시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부터 세계와 삶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역으로 세계와 삶은 영화에 어떤 다른 시선을 되돌려주는지 생각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동성애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헤쳐가야할 길이 많더라도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의 소수집단은 매우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였다.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자신들끼리 하나의 자그마한 사회를 이루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고 그것은 전과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크게 열려있다. 우리는 느슨하지만 공통의 문화적 규칙과 관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서로를 쉽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이는 매우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과 같은 사람은 자신 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되었다. 그들은 맘만 먹으면 어디에서든 자신과 정체체성을 같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또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정체체성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고 비교하고 수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순간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우리에게 대한 공통의 이해를 생산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성애자와 다를 바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동성애자들일 수도 있고, 이성애자 사회의 규칙에 위협이 되는 위반적 가치의 대변자들일 수도 있다. 또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적 지배의 희생자일 수도 있고, 성의 다원성과 차이가 긍정되는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담고있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 또 성의 대상 만이 다를 뿐 이성애자와 완전히 동일한 인간의 종일 수도 있기에 따

queer

로 동성애란 이름으로 무언가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성애란 이유로 자신의 삶이 정의되고 처분을 받기에 다른 무엇보다 동성애자란 이름으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두는 찬찬히 생각하면 전연 다른 미래를 향한 밑그림이고 또 동시에 자신에 대한 전연 다른 이해방식이기도 하다. 그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심지어 자신의 삶이 전연 다른 모양을 취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지금의 순간에만 유별나게 적용되는 일은 아니다. 모든 공동체는 부단히 자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또 그에 바탕해서 자신의 삶을 변형하고 자신과 자신과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힘이 겨루는 방식을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이 적잖이 각별한 이유는 정체체성이 동시에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의 의미를 얼마만큼 자각하는가는 이후 그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모색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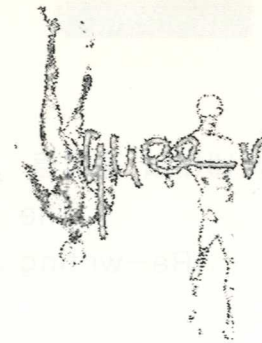
서울 퀴어영화제는 지금 레즈비언과 게이를 비롯한 성의 소수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하는 순간에 존재한다. 그리고 서울 퀴어영화제는 그 순간이 영화와 세계와 직면하는 접점에 위치한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이 둘을 잇고 또 그 내부에서 새롭고 왕성한 실속 엿갈리고 다투어도 좋을 그러한 시끌벅적한 이야기의 물꼬를 열어놓고자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시선이란 이름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이미는 시선은 차이의 시선이고 부정의 시선이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다른 관점의 시선이 존재하며, 우리가 익숙해있는 시선의 힘을 깨트리고 또 위협하는 부정의 시선이 있다는 것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개하는 한꾸러미의 영화를 통해 담보한다. 그 시선은 어쩌면 새로운 정체체성을 정의하도록 하는 예견적인 시선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예기치않던 쾌락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자신이 확신하고 의존했던 자기이해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초청된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우리가 가진 시선의 특수함 혹은 개별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또 그를 통해 우리가 우리 내부의 차이와 연대와 통합을 위한 넉넉하고 여유있는 지혜를 찾는 수맥이 되길 바란다.

이는 물론 이성애자에게도 여전히 작용한다. 어떤 이는 세상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전연 대수롭잖은 싱거운 이야기의 영화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정체체성을 바탕으로 공통의 감수성과 집단의식을 갖춘 이들을 조우하는 자각과 발견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발견과 체험의 크기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되먹임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발견과 즐거움이든 우리는 그들이 퀴어시네마의 관객으로서 세상에 작용할 것이고 또 궁극에는 영화에 힘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차이의 시선과 부정의 시선이란 첫 회의 퀴어영화제의 전망은 영화와 현실 두 곳에 두루 간섭한다. 지금 마약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하고 커가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에 불편해하거나 할말이 많은 또다른 사회를 영화의 공간 속에서 대화하도록 시도한다. 또 영화와 영화 사이를 잇는 고리를 통해 현실과 영화가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여실히 반증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퀴어시네마를 통해 우리는 영화를 얼마나 달리 볼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다른 영화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 어떻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영화적 쾌락을 만들어왔는지를 보려한다. 함께 아니면 불편을 각오하며!





## The 1st Seoul Queer Film & Video Festival

1.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 퀴어시네마의 역사를 다시 쓴다  
The Trajectories of Queer Cinema  
: Re-writing of Histories of Queer Cinema
2.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I) : 호모 소년들 극장에 가다  
New Currents of Queer Cinema : Homo Boys Go To Theater
3.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II) : 다이크 소녀들 극장에 가다  
New Currents of Queer Cinema(II) : Dyke Girls Go To Theater
4. 퀴어시네베리테 Queer Cineverite
5. 빛의 망명자들, 어둠의 거주자들 : 퀴어디아스포라
6. 변신의 만화경  
Kaleidoscope of Metamorphoses
7. 에이즈 쇼 AIDS SHOW
- 7-1. 침묵은 죽음이다 :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 (특별 프로그램 I)  
Silence Is Death : A Tribute To AIDS Video Activism (Special Program I)
- 7-2. 에이즈 뷰 AIDS View
8. 성의 무법자들 Gender Outlaws
9. 다른 몸 / 다른 시선 : 한국의 레즈비언 / 게이 필름들 (특별 프로그램 II)  
Different Bodies/Different Gaze : Lesbian Gay Films in South Korea  
(Special Program II)



# 1.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 퀴어시네마의 역사를 다시 쓴다

## The Trajectories of Queer Cinema

### : Re-writing of Histories of Queer Cinema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관객들에게 머언 거리에 위치한 퀴어 시네마를 소개한다. 퀴어 시네마는 스타일도 아니고 새로운 레즈비언, 게이 필름의 작가주의도 아니다. 그렇다고 퀴어시네마는 게이레즈비언운동의 정치적 대의에 복무하는 당파적 영화도 아니다. 어떤 역사적 순간에 존재하는 영화의 흐름을 하나로 묶고 단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좋은 일은 아니다. 더욱이 퀴어영화제는 그런 역할을 자임해서도 안된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퀴어시네마에 대한 간략한 실물 정보를 개진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

퀴어시네마는 단일한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곳으로부터 침투하는 영화들이 서로의 꼬리를 이으면서 이어지는 끝없는 사슬일 뿐이다. 만약 역사란 낱말이 이미 주어져있는 어떤 본질의 연속적인 전개라면 퀴어시네마에는 그러한 역사란 없다. 어떤 전망이 존재하고 그것이 부단히 갱신되고 연속되는 것을 역사로 추정한다면, 퀴어시네마 만큼 역사란 용어와 먼 위치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따로 없을 것이다. 역사가 단일한 혹은 안정된 동일성/정체성을 요구하고, 바로 그 동일성/정체성이 있음으로 인해 역사가 서술되고 설명될 수 있다면, 퀴어시네마는 차라리 역사의 반대편에 있다. 퀴어시네마는 동성애와 성적정체성을 역사적인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을 보편적인 본질로 가정하는 그 어떤 신화적인 사고의 모델에 도전해 왔기 때문이다. 퀴어시네마란 그저 하나의 영화를 뒤이어 또 다른 영화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영화들의 꼬리가 만들어지는 끝없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선적인 퀴어시네마의 발생을 역사라는 공간에서 다시 해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퀴어 시네마의 각 순간들은 참으로 또렷이 그 순간을 통해 말해지고 그려지는 퀴어 공동체들의 현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퀴어시네마가 영화의 역사로 환원되기에 앞서 그것을 발생시키고 출현하게 했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에 주목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우리는 퀴어 시네마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아니라 자신을 동성애라는 정체성으로 단일화하는 힘에 저항을 꾀하는 무한한 전망의 영화로 본다. 퀴어시네마의 작가들과 관객들은 또 그런 우리의 시선을 기꺼이 증빙해 준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퀴어시네마의 계보를 퀴어시네마의 작가와 스타일과 내러티브와 미학적 형태에 환원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퀴어시네마를 새로운 동성애 영화의 한 단계 그것도 최신의 단계로 추상화하려는 시도 역시 거부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퀴어시네마가 얼마나 다양한 표정으로 또 얼마나 다양한 말솜씨로 하나의 가족유사성을 형성하는 지를 관객에게 보여주려한다.

퀴어시네마란 용어를 정착시킨 것은 물론 퀴어시네마의 감독들이 아니라 그것을 진술하고 해명해야했던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 속엔 비단 비평가나 저널리스트들 만이 끼어드는 것은 아니다. 아다시피 80년대의 에이즈위기가 10여년이란 시간을 경과하고난 즈음이었던 90년대의 문턱, 퀴어시네마는 만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퀴어시네마는 그 어떤 공통의 경향, 공통의 시선, 공통의 자본형태, 공통의 제작방식을 가지고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개념에 의존하여 뉴 퀴어시네마, 포스트 뉴 퀴어시네마, 심지어 포스트-포스트 뉴 퀴어시네마로 이어지는 복잡한 말놀이를 하도록 되어있다. 분명 퀴어시네마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할지 모른다. 벌써 퀴어시네마의 조락을 예견하는 목소리들이 드높고, '유행과도 같은 동성애 테마의 영화들'이 이제 잠잠해졌다 고들 낭보를 전한다. 하지만 에이즈 위기에 휘몰아친 그 무시무시한 억압과 모욕에도 고덕없이 견디었듯 퀴어시네마는 또 여전히 건재할 게 분명하다.

퀴어시네마란 용어를 정착시키고 그 용어에 교환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무래도 1992년이라 해야할 것이다. 그 해는 감격스러울 만큼 행복한 해였다. 레즈비언, 게이들은 영화의 역사에서 이 해만큼 자신들의 영화가 축복을 받은 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이다. Gus Van Sant(그스 반 산트)와 Derek Jarman(데릭 저만), Todd Haynes(토드 헤인즈), Tom Kalin(탐 칼린), Jenny Living Stone(제니 리빙스톤), Sadie Benning(사디 베닝)이 모두 이 해에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이들은 전 해의 토론토 영화제와 그 해의 선댄스를 석권하였고, 세상은 이렇게 난데없이 때지어 몰려나온 영화들에 퀴어시네마란 이름을 선물했다.

토드 헤인즈 Todd Haynes의 <독 Poison>과 탐 칼린 Tom Kalin의 <줄도 Swoon>, 제니 리빙스톤의 <파리는 불타고 있다 Paris Is Burning>은 인디영화의 산실로 지목받고있던 선댄스를 잇달아 선점했다. 토드 헤인즈는 1991년 선댄스의 그랑프리를 거머쥐었고, 신경성 거식증으로 목숨을 잃은 전설의 팝뮤지션 카렌 카펜터스 Karen Carpenters(카펜터스의 여자가수)의 삶을 바비인형을 통해 그려낸 <수퍼스타 : 카렌 카펜터 이야기 Superstar : Karen Carpenter Story>로 언더그라운드 컬트 감독이 된 바 있었다. 탐 칼린은 물론 다른 방향에서 퀴어시네마에 접근했고 또 그를 통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반향을 만들어낸 또다른 오뚜르였다. 전설의 에이즈운동 조직이며 레이건, 부시 시대의 신보수주의와 반동성애적인 참주선동에 항의해, 때죽음을 강요받던 80년대의 '성난 호모들 angry homos'을 대변한 에이즈운동조직인 액트업 ACT UP(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에이즈 연합 AIDS Coali-

tion To Unleash Power)의 맹원이었다. 사디 베닝은 플라스틱 장난감 픽셀 비전 카메라로 16살의 어린 나이에 가장 싼 값에 가장 값비싼 세상의 진실을 담아냈다. 불과 수분여에 그치는 거친 입자의 화면에 그녀는 어린 다이크소녀가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세상은 얼마나 다른 전경을 펼쳐보이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그 형편없이 영성한 비디오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HIV 양성판정을 받고난 연후 관련된 질병으로 점차 시력이 희미해진 데릭 저만이 그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뉴욕으로 와서 그의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 섰다. 저주받은 이 고독한 아방가르드 컬트 감독은 자신의 미학이 그렇게 고독한 것 만이 아님을 알게되었다. 이 르네상스 맨은 이제 인문주의자이기에 앞서 무서운 기세로 만개한 퀴어시네마의 계보 속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몹시 행복해 했다고 한다. 욕설과 냉소를 늘 한입 가득 베어온 그럭 애리키가 한 칸에서 빈정거리며 서있었다. 그는 이성애자보다 더 나쁜 호모 소리를 들으며 카메라를 든채 거리에서 숭바꼭질을 거둬하고 있었다. 그는 게릴라였고, 아주 퇴폐적인 허무주의자였으며, 모든 X 세대의 호모들은 데카당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물하게 되뇌었다.

하지만 대서양 건너에서도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를 밀어준 채널 4는 아예 자신의 채널에 <아웃 온 투스데이 Out On Tuesday>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수많은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작자들을 지원해주었다. 그리고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 프라티바 파마르 Pratibha Pamar, 리처드 퀴에트니오스키 Richard Kwietniowski 같은 감독들이 줄을 이었다. 레즈비언, 게이 영화를 위한 고정 프로그램이 있었고 레즈비언, 게이 영화들을 이따금 상영하는 대도시의 예술영화 전용극장이 아니라 안방에서 그것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천연덕스럽게 그 영화를 보게되었다. 그들은 그것에 반응했고 그것은 그들의 영화를 고무하고 진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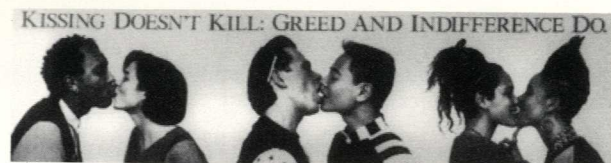
그리고 루비 리치 Ruby B. Rich같은 영화평론가는 <빌리지 보이시 Village Voice>와 <사이트 앤 사운드 Sight & Sound>같은 잡지에서 이를 뉴 퀴어시네마의 탄생이라 명명했다. 그녀는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그녀가 축복하게된 퀴어시네마를 이렇게 말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퀴어시네마나 비디오가 모두 같은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거나 단일한 전략 혹은 관심사를 가진 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주는 공통의 스타일은 찾아볼 수 있다.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onism)을 강하게 의식하는 역사다시보기, 아이러니와 패스티쉬, 의미의 전용 등. 전세대의 인간중심주의 전통을 결정적으로 거스르는 이 영화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힘차며 패기 있고, 무절제와 미니멀리즘 사이를 차례로 오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퀴어시네마는 즐겁다. 왔노라, 보았노라, 퀴어였노라!"

그리고 사실 그녀의 판단은 모두 옳았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학과 히치콕, 파스빈더, 샘 세킨파, 장뤽 고다르, 샬롯 애커만의 수사학을 뒤섞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어찌 옳은 레즈비언, 게이영화일 수 있는냐는 혹독한 비난을 들으며 자신들이 본 다양한 세계가 그러하다고 대꾸했다. 그들은 긍정적인 게이란 말에 모두 집단적인 구토증을 느끼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직면한 세계의 모습을 뽀뽀스럽게 드러내보이길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연쇄살인범은 그가 동성애자였기에 연쇄살인범이었던 주류 영화의 시선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인 한 동성애자의 우울과분노를 바라보는 퀴어시네마의 시선이였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였다. "나 동성애자는 얼마나 불운한가 흑흑 woe is me, the homosexual"에서 "그래 나 호모다. 무슨 불 일었냐? Yeah, I'm queer, what the fuck you going to do about it?"로 바뀐 것. 이 두 시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전연 다른 미학과 전연 다른 영화적 장치와 전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영국의 영화평론가 폴 버스턴 Paul Burston은 이를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한다. "몇몇은 그들을 부정적이고 위험스러우며 정치적으로 옳지않다고 말한다. 몇몇은 그들을 한덩어리로 묶어 뉴 퀴어시네마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굉장하다고 부른다."

게다가 동성애공포적인 보수우익들은 마지막 흑색선전을 퍼부었다. 그들은 퀴어시네마의 조각들을 제멋대로 편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봐, 우리가 레즈비언 게이 캐릭터를 영화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아직도 행복하지않아?"라고 떠벌였다. 그들은 레즈비언 게이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욕망, 육체는 안중에도 없었다. 분명 할리우드 영화 속의 레즈비언과 게이의 모습은 현저히 뒤바뀌었지만 그것은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뉴 퀴어시네마는 이런 세련되고 진취적인 신세대 할리우드 영화와 시장에서 싸움을 벌일 능력도 없었다.



## 탐 칼린의 작품들 The Works of Tom kalin



단 한편의 작품 <졸도 Swoon>로 퀴어시네마를 대표하는 감독 가운데 하나로 지명된 탐 칼린을 우리는 고작 1분 30초의 공익광고 제작자로 기억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탐 칼린이 누린 명성을 다시 조희함으로써 그가 차지한 허황된 명성을 무게를 덜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또 이미 몇몇에겐 컬트가 되다시피한 그의 유일한 전작 장편 <졸도>를 보충하는 필모 그라피를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퀴어시네마의 양광테리블들 가운데서 탐 칼린의 작업은 80년대의 에이즈위기 이후의 역사적 변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 그가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처음 착수한 작업은 에이즈에 관한 다이어리 테입인 <어린 병사처럼 Like Little Soldier>였으며, 마침내 시카고를 떠나 에이즈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에이즈위기가 토론되고, 그에 대한 저항이 시도되는 곳인 뉴욕을 향해 떠났던 것도 바로 이제 마약 성인게이남성으로서 자신을 압도한 에이즈위기와 그의 예술이 뒤엉킨 싸움의 결과였다.

그는 자신이 게이로서 성년의 나이에 입문할 때 무엇보다 자신을 압도하는 체험이었던 에이즈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다른 에이즈 비디오운동가들이나 에이즈에 관한 영화제작자들과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전망을 특징짓는 사태와 감정들에 독특한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태가 몰수되어있는 체험의 틀로부터 벗어나려고 꾀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옳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대체하고, 불행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퇴폐적인 세계를 계도하려는 시늉을 하지않는다. 되려 그는 지금 여기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체험을 새로운 집단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자신을 가능한 공동체에 더 많이 사로잡힌 것으로 정의하려는 이들과 달리 그는 자신을 '영웅적 예술가'로 정의함으로써 게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공동체의 문화적 구조를 반복해서 깨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에 민감하고 또 그 민감한 변화에 의해 다시금 만들어지는지 추적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대담하게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것은 자신에 갇힌 고립된 단자와도 같은 사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체험 전체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공동체의 체험을 재정의하는 출발점으로서의 그것이다.

한편 탐 칼린의 작업은 집단적인 싸움과 직결되어있다. 그 때 그의 싸움방식은 자신이 다루려는 의제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의제를 순수한 외부의 시선, 가장 정치적으로 올바른 시선의 위치에서 조망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포스트모던 후기자본주의의 예술가로서 정의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스타일을 낳는다. "대안적 미디어에 있어서조차 가장 이상적인 배급망은 티비이다. 시장의 가운데로 대담히 뛰어들라". "당신은 마이클 잭슨, 마돈나, 베네통의 정치학을 받아들이면서 활동할 필요가있다. 예술의 생산에서 시장의 바깥이란 존재하지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류시장의 가장자리를 골탕먹이는 일이다" 그 결과 그는 너무나 MTV적이면서 동시에 MTV가 되가져가는 스타일의 흐름 속에 뛰어든다.

우리가 지금 망라한 이 짙막한 테입들의 면면은 바로 그러한 탐 칼린의 면모를 정의한다. 에이즈에 관한 대담하고 사적인 엘레지이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서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를 시대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 They Are Lost to Vision Altogether>를 기점으로 그는 액트업의 결연조직인 '거대한 분노'와 함께 베네통 광고를 패러디한 1분 30초의 공익광고인 <입맞춤은 목숨을 앗아가지않는다 Kissing Doesn't Kill>을 제작한다. 또 그는 티비 방송용으로 제작한 단편 비디오인 <국가 Nation>을 제작해 MTV와 프랑스 티비에 팔아넘긴다. 이 모두는 강력하고 간결한 정치적 주장과 대중문화의 심미적인 스타일을 교차시킴으로써 간섭과 참여를 시도하는 퀴어시네마의 또다른 정체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탐 칼린적이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퀴어시네마 모두를 수렴시키는 정의를 공유한다. 퀴어시네마는 에이즈 위기에 개입하고 저항하는 영화이다!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지 They Are Lost to Vision Altogether, 18분, B/W, 1989, 미국  
입맞춤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 Kissing Doesn't Kill 1분 30초, 비디오, Col, 1990, 미국  
최종파괴 Finally Destroy Us 4분, 비디오, Col, 1991, 미국  
국가 Nation 1분, 비디오, Col, 1992, 미국  
유목민들 Nomads 4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안녕 아가 Darling Child, 2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만년 총각 Confirmed Bachelor 4분, 비디오, Col, 1994, 미국  
난 머뭇거리다 기운을 차려 춤추고 거짓말하였지 I Hung Back, Held Fire, Danced & Lied, 비디오, 5분, Col, 1995, 미국  
희소식 하지만 안전요 Information gladly given, But safety requires, 1분 10초, 비디오, Col, 미국, 1994

탐 칼린 Tom Kalin 그의 유일한 장편 작업이자 데뷔작이기도 한 <졸도 Swoon>(1992)를 통해 일약 퀴어시네마의 오프로 지명된 탐 칼린은 이미 독특한 미학적 정치적 전략을 가진 에이즈 미디어 비디오 작업을 진행하여온 바 있는 다작 감독. <졸도>는 악명높은 리처드 로엵 Richard Loeb과 나단 레오폴드 Nathan Leopold라는 게이 커플의 유괴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매우 도발적이고 탐미적인 영화. 이미 알프레트 히치콕의 <로프 Rope>와 리처드 플레이셔의 <강박증 Compulsion>을 통해 영화 속에 재연되었던 이 두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탐 칼린은 두가지의 싸움에 동시에 개입하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뒤섞으며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제정하고 분배하는 양의 체제를 다시금 생각토록하는 싸움이고, 또다른 하나는 바로 '헤테로 시네마'에 대한 싸움을 바로 쾌락에 대한 해법을 통해 제기하려는 명민한 미학적 전략이다. 그는 헤테로 시네마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아니라 바로 동성애적 욕망과 쾌락을 영화 속에서 삭제하고 부인하고 방어하는 쾌락적인 문제라고 제기하려는 듯한 입장을 취한다. 퀴어시네마 진영 내부에서도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졸도> 이후 현재 탐 칼린은 영화제작 배급에 열정을 쏟고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어퍼라투스 영화사를 만들었던 퀴어시네마의 대모 크리스틴 바천 Christine Vachon(그녀는 선댄스를 석권한 토드 헤인즈의 <독 Poison>과 탐 칼린의 <졸도>, <나는 앤디 워홀을 쏘았다>, 그리고 다이크 무비의 이정표적인 작품이며 흥행성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던 로즈 트로체 Rose Troche의 <고 피쉬 Go Fish> 등을 제작했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DIRECTOR



## 풀어헤쳐진 말들 Tongues Untied

말론 릭스 Marlon Riggs, 55분, 16mm, B/W, 1989, 미국



가시성(visibility)은 흑인이나 게이처럼 인종(ethnicity) 혹은 종족과 엮이듯 정교하게 정의되는 소수집단의 삶에 관한 문제. 가시성이란 물론 보여짐과 볼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가시성이란 그저 침묵과 은폐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침묵한 채 존재하는 언어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그저 발설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고, 널리 읽혀지며 들려지지 않았을 뿐 느릿느릿 그들 사이의 공동체에서, 혹은 머리말의 일기장 속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언어들 속에서 언어는 발생한다. 물론 그 언어는 한 번 발설된 이후 홀연 사라지곤 하는 일회적 언어일 수도 있다. 또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언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 배제된 언어는 동시에 살아있는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침묵은 자신을 지배하는 언어에 의해 자신의 삶이 계속 희생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가시성이란 살아있음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함을 뜻한다. 반면 비가시성이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독립 흑인게이영화를 대표하며 퀴어 시네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말론 릭스의 이 작품은, 한세기 동안 소수집단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었던 하지만 여전히 거둬들여 그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가시성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물론 이 때 말론 릭스에게 있어 그 가시성이란 백인중간층 게이 남성들이 독차지했던 게이다움, 남자다움 등으로부터 배제되어있는, 하지만 동시에 흑인공동체의 이성애주의에 의해 또 한번 배제되어있는 흑인게이의 삶과 욕망이다.

<풀어헤쳐진 말들>은 김동이 호모들의 비주얼 시집이다. 시에 전연 문외한 이었던 - 어느 인터뷰에서 말론 릭스는 자신이 알고있던 시인은 기껏해야 월트 휘트먼 정도였고, 그나마 대학에와서야 그 이름을 쫓아들었다고 한다 - 그가 왜 이 압도적인 아름다운 흑인게이들의 비디오 시집을 만들었을까. 그는 왜 <다른 나라들 The Other Countries>라는 흑인 시인들의 모임에 드나들며 흑인들이 읊는 시들에 열광하고 그로부터 흑인게이의 정체성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을까. 말론 릭스는 기꺼이 카메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목소리, 다른 몸짓을 비선형적으로 엮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영화 속으로 밀어넣는다. '스냅 snap!'이란 외침이 흑인 게이들에게 차지하는 의미가 그렇듯 그는 자신들의 문화적 의례와 공통된 체험 속에서 교환되던 그들의 언어를 발견하고 찬미한다. 바깥에 머문 자들이 찾아낸 자신들의 언어는 자신들에 관해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자각과 기쁨을 담고 있다. 그 말들은 자신의 현실에 기울어있지않고 자신의 분노, 자신의 기쁨, 자신의 흥분을 내색할 뿐이다. 음절과 강세, 서로의 표정으로 알아챌 수 있는 말의 빛깔들이 그들이 비로소 자신임을 알려주고 자신과 타인을 엮는 물길을 터줄 때, 그 말은 시의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말론 릭스는 그 시 속에서 흑인 게이의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낸다.

(1990 아메리칸 필름 앤 비디오 페스티벌, 블루리본상, 1990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 게이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전국교육영화제 일등상,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 최우수 비디오,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우수 게이 다큐멘터리 등 수상)

"예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영화..<풀어헤쳐진 말들>은 흑인 게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낚아챈다."(피터 스택 Peter Stack,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The San Francisco Chronicle)

"아프리카계 미국인 게이의 관점에서 인종 간의 호모에로티시즘을 다룬 보기도문 영화"(빌리지보이스 Village Voice)

"대개 정치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영화들은 미학적인 측면을 소홀히 일쑤였다. 그저 그들은 의도가 좋았다는 투의 칭찬을 들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말론 릭스는 압도할 만한 정치적 주장을 전하면서도 탁월하고 혁신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비토 루소 Vitto Russo(셀룰로이드 콜로짓 Celluloid Closet의 저자, 애드보케이트 The Advocate)

"<풀어헤쳐진 말들>은 섹슈얼리티를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킴에 있어 단 하나의 전범이 될 만하다. 여러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진실과 이렇듯 감동적이고 뚜렷하게 교차시키는 작품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자키 존스 Jacquie Jones, 흑인영화평론 Black Film Review)

말론 릭스 (Marlon Riggs) 1994년 4월 37의 나이에 그의 유작인 <흑인이란 것은 Black Is...Black Ain't...>를 완성하지 못한 채 에이즈로 요절한 흑인계 미국인 독립영화감독 말론 릭스. 그는 흑인계 미국인 감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독으로 또 퀴어시네마의 거장으로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티비에 나타난 흑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는 <Ethnic Notions>로 에미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는 199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게이영화제가 수여하는 프레임라인 기금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흑인 게이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밀착하여 이를 시적인 언어로 형상화하였다. 그의 다른 대표적인 영화로는 <Anthem(1990)>, <Affirmation(1990)>, <No Regret(Non, Je ne Regrette Rien)(1992)>등이 있다. 한편 그의 삶과 역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역시 두 편(<The Creative Mind :Marlon Riggs>, <I Shall Not Removed>)이나 제작된 바 있다.

DIRECTOR



## 사디 베닝의 작품들

### The Works of Saddle Benning

사디 베닝 Saddle Benning, 68 분, 비디오, b&w, USA, 1989-91



15 살에 사디베닝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장난감 비디오 카메라로 '레즈비언으로 성장하기'에 대한 솔직하고 재미있는 영화들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사랑의 동지 A place called Lovely>는 험겨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폭력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사회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상적인 것들아 안녕! Welcome to normal>은 레즈비언적인 욕망과 그것을 감추어야만 하는 상황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키스하는 바비인형들로 시작하는 <유쾌한 친구들 Jollies>은 소녀에게 반하고 키스했던 일, 말괄량이처럼 소년들과 싸웠던 경험들, 자신의 성적자각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때의 느낌들을 포함하는 작은 연대기이다. 또 <모든 소녀들에게 일기가 있다면 If every girl had a diary>에서 사디베닝은 자신의 침실에서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당신의 면전에서 반항적인 고백을 쏟아 낸다.

<나와 루비프루트 Me and Rubyfruit>에서 베닝은 '왜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 리타 메 브라운(Rita Mae Brown)의 소설, '루비프루트 정글(Rubyfruit Jungle)'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10대 레즈비언의 사랑 이야기이다. '나는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엽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와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녀는 세계에 있는 모든 루비프루트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려고 한다. 학교를 중오하면서 고향인 작은 도시에서 숨어 사는 10대 쿼어의 느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숨어 살기 Living Inside>이며, <새해 New year>는 너무나 상처투성이어서 보호해 줄 수조차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10대의 분노를 그려낸다. 여기서 사디베닝은 "내 친구가 흑인 남자에게 강간을 강했다. 지금 그녀는 인종주의자 나찌 스킨헤드족이 되었다"고 절규한다. 성장기의 사랑과 고통, 폭력적인 세상에 대한 반항적인 고백을 담은 사디베닝의 비디오 다이어리(diary)들은 "모든 레즈비언 소녀들이여 일기장을 가져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어라" 라고 외친다. 거친 영상과 초저예산의 비디오 작업은 10대 레즈비언이 부재하는 야만적인 텔레비전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이면서, 정체성을 수락해가는 한 소녀의 재기발랄한 자기고백이다.

(미국 현대미술관, 휘트니미국미술관, 로트르담 국제 필름 페스티벌, 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나 그리고 루비프루트 Me and Rubyfruit, 4 분, 비디오, b&w, 1989, 미국

새해 A New Year, 4 분, 비디오, b&w, 1989, 미국

숨어 살기 Living Inside, 4 분, 비디오, b&w, 1989, 미국

유쾌한 친구들 Jollies 11 분, 비디오, b&w, 1990, 미국

모든 소녀들에게 일기가 있다면, 6 분, 비디오, b&w, 1990, 미국

사랑의 동지 A Place called Loverly, 14 분, 비디오, b&w, 1991, 비디오, 미국

정상적인 것들아 안녕 Welcome to Normal, 19 분, 비디오, b&w, 비디오, 199?, 미국

"저예산 중에서도 초저예산의 이미지 작업을 개척하면서, 그녀의 단어와 이미지의 병렬은 힘있고 도발적이다" (아미 토빈(Amy Taubin), 빌리지 보이스, 1991, 1,1)

"17 살인 사디베닝은 그녀의 관객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녀는 개인적이고, 심오하게 예술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도전적인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러한 기록들의 탁월함은 그녀가 사용하는 매체를 초월한다...청소년기 다이크의 총격과 활출 경은 분노가 담긴 정직성과 즉시성, 위트와 함께 스크린위에 펼쳐진다" (엘 스피로(Elle Spiro), 에드보케이트(The Advocate), 1991, 3, 26)

사디 베닝은 15살부터 3년동안 9개의 비디오를 제작했고, 모든 비디오 작품은 국제적으로 상영되었다. 최근에 그녀는 <소녀의 힘 Girl Power>이라는 실험적인 극영화를 만들었다. 또 베닝은 '10대 숭배 (Teenage worship)' 라는 잡지와 '모든 소녀여, 행동을(All Girl action)'이라는 록큰롤밴드까지 조직해서 맹렬한 연습중이라고 한다. 그녀는 명성을 떨치게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PXL 2000'이라는 상품명의 플라스틱 어린이용 비디오 카메라로 대부분의 영화를 만든다. 사디 베닝은 이러한 영화작업이 고선명도를 지닌 텔레비전에 대한 기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며, 노골적인 적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나는 3년전 부터 비디오테이프들을 찍기 시작했고 처음에 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깨닫지 못했다. 나는 어린애에다 여자이고, 게다가 쿼어였기 때문에 나의 정직한 생각과 느낌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텔레비전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배워 왔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작품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 스스로에게도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자신의 일기를 쓰거나 기타를 연주하거나, 자기자신을 반쪽 인간이라고 느끼면서 침실에 숨어 있는 미래의 슈퍼스타들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그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해결을 통해 그들은 변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현재 너의 모든 작품이 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정말 걱정이다"라고. 아빠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그래요 아빠, 그리고 나는 그게 좋아요" 나의 아버지는 실험영화를 만든다. 그의 작품은 그의 삶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성애자 예술가이기 때문에 나처럼 성적체성에 대한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게 분명하다. 예술세계는 백인의, 이성애자의 그리고 남성지배화된 것이다. 분명히 예술세계에는 호모포비아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관객이 아니다. 나의 작품은 바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내가 항상 소녀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소년 이 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한 여자가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나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사디 베닝, '19살' 비전(Visions), 1992년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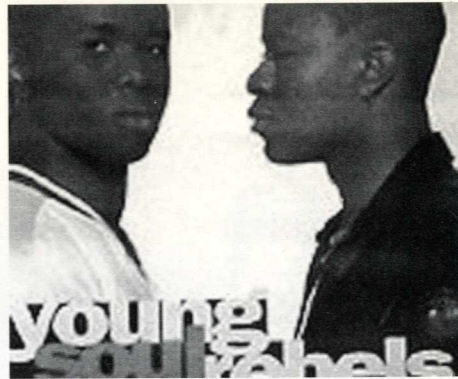
<소녀의 힘 : 파트 1 Girl Power part 1 > 1993, <정상적인 것들아 안녕 Welcome to Normal> <모든 소녀들에게 일기가 있다면 If Every Girl Had a Diary> 1990,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It wasn't Love> 1992, <유쾌한 친구들 Jollies> 1990, <나와 루비프루트 Me and Rubyfruit>, <새해 New Year>, <숨어살기 Living Inside> 1989, <사랑의 동지 A Place Called Lovely> 1991.

DIRECTOR



## 젊은 영혼의 반란 Young Soul Rebels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 103분, 35mm, Col, 1991, 영국



1991년 칸느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젊은 영혼의 반란>은 퀴어시네마의 역사 자체에서나 혹은 독립영화의 계보에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문제작이다. 1977년 영국의 런던에서 사는 두 명의 흑인 디스크자키(한명은 게이이고 다른 한명은 이성애자)가 엮어내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커다란 가닥. 이 영화에서 시종일관 강조되는 70년대 영국문화(특히 펑크 punk와 뽕크 Funk로 대표되는)의 단면들 속에서 관객들은 시선을 낚아채는 수많은 볼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등장인물들의 재미난 의상들과 귀를 번쩍뜨이게하는 음악들로 흥청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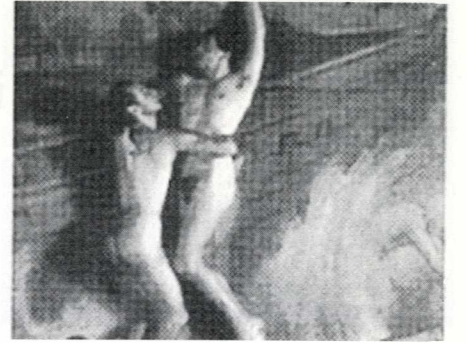
하지만 이 영화를 마치 흑인판 <시드와 낸시 Sid and Nancy> 줌으로 지레 짐작하는 건 금물. 그건 이 영화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흑인 디제이 DJ와 백인 노동운동가인 두 주인공은 서로의 하위문화를 통해 서로의 삶과 정체성이 벌이는 갈등을 체험한다. 백인 노동계급출신의 이성애자 청소년들에게 펑크가 맺는 관련 만큼이나 디스코 disco는 흑인 게이 청소년들에게 관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둘은 이러한 대중음악이라는 모티프와 그것이 만들어낸 그들의 삶의 스타일들을 드러내보이며 1977년 여왕 즉위 25년 the Queen's Silver Jubilee을 맞이한다. 게이들이 섹스 파트너를 찾고 만나는 어느 공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친구를 살해하면서 숨막히는 긴장으로 치닫는 가운데 흑인 게이 하위문화가 영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모색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 영화를 이끌어간다.

### DIRECTOR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 영국의 흑인계 게이감독. 그는 다른 흑인 게이감독들과 함께 최초의 흑인 퀴어영화제작집단인 상코파 Sankofa를 발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젊은 영혼의 반란>으로 칸느 비평가상을 수상한 후 말론 리스와 더불어 가장 탁월하고 대표적인 흑인게이감독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올 해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흰 가면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이란 다큐드라마로 칸느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흑인문화의 역사에 가장 눈부신 시기였던 할렘 르네상스 Harlem Renaissance와 그를 대표하는 시인인 Langston Hughes에 관한 실험적 내러티브영화인 <랭스턴을 찾아 Looking For Langston(1988)>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흑인문화의 아버지라 추앙받는 랭스턴 휴즈의 사적인 생활이 항상 은폐되어왔고 그의 정체성은 항상 수수께끼처럼 취급되었다. 하지만 아이작 줄리안은 이에 대해 대담한 해석을 시도하면서 흑인문화와 흑인퀴어로서의 욕망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줄들을 탐미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외에 그의 대표작으로는 <이것은 에이즈 광고가 아니다 This is Not an AIDS Advertisement(1987)>, <빛깔 속의 흑백 Black and White in Color(1992)>, <안내원 The Attendant(1993)>, <검은 것 속의 더 어두운 면 A Darker Side Of Black(1994)> 등이 있다.

## 제로 패이션스 Zero Patience

존 그레이슨 John Greyson, , 100분, 35mm, Col, 1993, 캐나다



에이즈라는 초현실주의적 질병에 대하여 지금 영화를 통해 응수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러한 영화적 응수의 가장 눈부신 예로 주저없이 <제로 패이션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Philadelphia>와 그를 뒤쫓는 할리우드식 에이즈 이야기에 중독되었던 이들에게 <제로 패이션스>는 분명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다.

<제로 패이션스>는 지금껏 한 번도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장차 역시 그럴 기회가 다시 오지않을 에이즈 뮤지컬 코메디의 세계를 선보인다. 이미 올 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백합들 lilies>이란 영화로 초청되어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존 그레이슨은, 퀴어시네마의 역사와 올곧게 함께 한 몇 안되는 영화감독 가운데 하나이다. <소변기 Urinal>과 더불어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제로 패이션스>는, 에이즈를 둘러싼 모든 통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버리는 유쾌하고 가벼우면서도 아울러 우리의 머리를 휘갈기는 서늘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영화.

눈 앞의 돈에 눈이 먼 과학자들, 단조로운 이야기만을 반복하면서 명성에 연연해하는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에만 눈먼채 자신이 처한 혼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에이즈운동가들, 이 모두에 대해 <제로 패이션스>는 비난을 퍼붓는다. <제로 패이션스>가 겨냥하는 으뜸가는 주장은 존 그레이슨이 스스로 말하듯 "에이즈 위기와 함께 했던 그 역시 전염병적인 온갖 난폭한 말들을 파헤치는 것".

북미지역에 에이즈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환자 제로(가에탄 듀가스 Gaetan Dugas)"는 프랑스-캐나다 에어라인 승무원으로 난잡한 성행동을 함으로써 에이즈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사후의 누명에 분노한 "환자 제로"는 그의 명예를 되찾기위해 저승으로부터 귀환하여 20세기인 지금엔 에이즈 조사연구자로 일하는 19세기의 탐험가 리차드 버튼 경에게 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하지만 버튼은 그 나름대로의 저의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박물관의 '오염의 전당 Hall of Contamination'에서 전염병에 관한 전시를 위해 가에탄을 비롯한 다른 이들로부토 가능한 많은 해악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가 전개되면서 버튼 경은출세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데 혈안인 자기중심적인 동성애공포적 이성애자로부터 변신해 에이즈운동의 최전선에 투신하는 ACT-UP 스타일의 퀴어로 변신하게 된다.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로 가득찬 이 에이즈 뮤지컬 코메디에서 단연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노래와 춤. 매혹적인 선율들과 획기적인 안무의 춤, 그리고 재기넘치는 가사들은 충분히 이 에이즈 뮤지컬 코메디의 매력이 되고남는다. 또하나 이 포스트모던 콜라주 속을 뒹구는 기발한 인물들에 주목할 것.

존 그레이슨 Jonh Greyson (19-- ) 캐나다의 대표적인 퀴어 시네아스트인 존 그레이슨은 그의 첫 번째 장편 <소변기 Urinal>로 1991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테디베어 부문 최우수 게이 장편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 해 선댄스영화제에 <백합들 lilies>란 영화로 초대되어 호평을 받은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감독. 유머러스하면서도 통렬한 풍자가 뒤섞인 실험단편영화를 통해 공격적으로 게이공동체의 현안에 개입하여온 존 그레이슨은 또한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도 헌신 하였던 비디오 게릴라이기도 하다. 그는 관객과 비평 모두로부터 엄청난 열광을 받은 <소변기>를 통해 장편영화제작에 뛰어든 이래 모두 3편의 장편극영화를 제작하였다. 올 해 제니상의 여러부문을 석권하고 선댄스영화제에서도 초청되었던 <백합들 lilies>은 그의 최신작. 그의 대표작으로는 <정글 소년 Jungle Boy(1985)>, <키플링 카우보이를 만나다 Kipling Meets the Cowboy(1985)>, <"유령" 만들기 The Making of "Monsters"> (1990) <사이몬이란 이름의 호모(1986)>, <후천성 섹스공포증 The ADS Epidemic(1987)>, <분홍색 핍퍼넬 Pink Pimpernel(1989)>, <소변기 Urinal(1988)>Table> 등이 있다.

### DIRECTOR



## 잃어버린 병사를 찾아서 For a Lost Soldier

로에란드 케르보슈 Roeland Kerbosch, 92분, 35mm, Col., 1993, 네덜란드



게이 드라마에서 가장 즐겨 다루는 주제이면서도 여전히 매력을 잃지않는 것을 꼽는다면 단연 '커밍아웃 이야기 coming out tale'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병사를 찾아서> 역시 이러한 커밍아웃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장미빛 빵의 잘생긴 13살 먹은 소년 제로엔 제로엔 Jeroen은 전쟁과 식량의 부족을 피할 작정으로 어머니의 손에 의해 시골의 친척집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사춘기의 소년 제로엔은 그곳에서 자신의 성적인 갈망에 다가서게된다. 처음에 미치광이같은 소녀에 관심을 보이던 제로엔은 그 마을에 주둔하고있던 해방군 소속의 캐나다 병사 월트 Walt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된다.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둘은 만나자마자 첫눈에 서로를 사랑하게되고 처음엔 친구로서, 나중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둘의 사이를 변화시킨다. 월트가 제로엔을 나의 작은 왕자님이라 부르며 첫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이 영화의 압권.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애틋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1942년의 여름 Summer of '42>의 게이 버전인 이 논쟁적인 영화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영화 속의 이야기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거나, 이 영화에서와 같은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의 차후의 결과에 대해 우리 역시 우려한다던가, 나아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관계는 동성애와 무관하다 따위의 상투적인 말 몇마디로 우리는 이 영화의 혐의를 벗겨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다시피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기피될 수 없는 쟁점이 있다면 그것에 감히 덤벼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영화와 더불어 내리는 충고. 하지만 역시 중요한 한마디. 사랑은 숭고하다! (1994 튜린 영화제, 코펜하겐 국제 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 마디그라 국제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 런던 국제 게이 레즈비언 영화제 등 초청)

"아름다운 연기 그리고 눈부신 촬영...(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San Francisco Chronicle)"

"사춘기 사랑에 관한 민감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추억의 장면들...케르보슈의 넉넉한 시각적인 이미지들은 데이빗 린 David Lean을 연상시킨다...이러한 이야기를 어느 감독도(고작 구스 반 산트 정도) 그토록 정직하게 화면에 담아낼 수 없을 것."(로버트 줄리안 Robert Julien, 베이 에리어 리포터 Bay Area Reporter)

"<잃어버린 병사를 찾아서>는 어른과 아이의 낭만적인 관계라는 너무나 민감한 주제를 취하면서도 그 속에 너무나 가슴저미는 따뜻함을 불어넣는다...영화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그 이야기에 어떤 심리적, 사회적 인습을 실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성애란 말도 없고 아동학대 운운의 비난도 존재하지않는다. 비록 월트가 떠남으로서 제로엔이 무너져버릴지라도 그 영화는 어떤 비난도 내색하지않고 또 어떤 상처도 언급하지않는다..."(스테판 홀든 Stephen Holden,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 DIRECTOR

로에란드 케르보슈 (Roeland Kerbosch)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편의 단편과 5편의 장편, 그리고 티비용 장편 도큐멘터리 2편을 포함해 5편의 도큐멘터리를 제작한 네덜란드의 대표적 현대감독 가운데 하나. 그는 5편의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브레스리스 Breathless (1982)> <아이스크림 파루아 Icecream Palour (1984)>, <꿈 The Dream (1985)>, <어페어 플레이 Affair Play (1996)> 등이 있다.

## 완전히 엇먹은 Totally F\*\*\*ed Up

그렉 애러키 Gregg Araki, 85분, 16mm, Col., 1994,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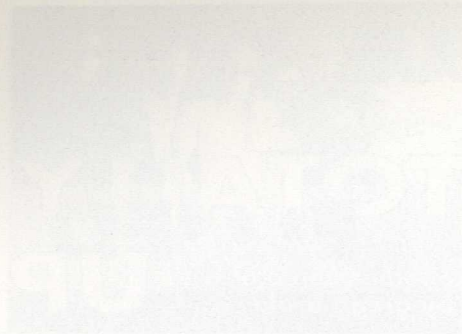


지난 얼마동안, 할리우드는 불만에 가득찬, 이른바 "X-세대" 젊은이들에 관한 영화를 술썰이 세상에 쏟아놓았다. 판에는 튀어보이겠다는 속셈 탓에 그런 영화들 가운데 몇몇은 대담하게 게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파격을 발휘하기도 했다(이를테면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 Juliet>, <클루리스 Clueless> 등을 생각해보라). 주류 영화들은 "게이인게 뭐 어때?"라 말하며 짐짓 새로운 세대와 내통하고 싶다는 의욕을 자랑한다지만 우리가 마주친 영화들의 표정엔 선심을 쓰는 듯한 눈치가 역력하다. 하지만 그렉 애러키의 <완전히 엇먹은>은 이런 주류 할리우드 영화의 게이 캐릭터에 대한 선심쓰기 식 짝사랑 혹은 X세대용 마케팅을 말 그대로 엇먹인다.

<완전히 엇먹은>은 6명의 호모보이와 호모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아이들은 재래의 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가족, 다시말해 그들만의 우정과 낭만적인 관계로 가족을 대신하는 패밀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티비말고 뭔가 자신의 마음을 쏟을 곳을 찾아 절망적으로 어슬렁거리는 권태로 가득찬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장 쾅 고다르를 빼다박은 듯한 카메라의 조작을 통해 그렉 애러키는 이 저주받은 퀴어 틴에이지들의 삶을 그것이 회전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여섯명의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들, 셰이프 섹스, 자신들의 무절제한 성생활에 대한 죄의식, 사랑, 인간관계 그리고 로맨스 등이 얹혀져있어 이들은 서로의 사이를 잇는 삶의 거리들을 신축시킨다. "퀴어세대의 게릴라 필름메이커"로 알려진 그의 악명답게 "몰래 찍고 달아나는 shoot and run" 예의 방법으로 찍혀진 이 영화는 6명의 주인공들의 말과 몸짓이 민주적으로 순환하는 콜라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핵적인 인물은 제임스 듀발이 분한 앤디(Andy). 제임스 딘 혹은 리버 피닉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의 부서질 듯하고 우울한 모습은 각 인물들을 잇는 연결고리로 역할한다. 앤디는 담배피우는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제외하면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친구. 하지만 그는 다른 젊은 녀석을 만나면서 자신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되고 그와 사랑에 빠진다.

동성애 공포증, 게이구타, 에이즈, 자살과 같은 퀴어 십대들의 문제를 재치있고 힘있게 그와 동시에 퀴어한 전복적 영화로 이끌어온 그의 눈부신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정기의 작품이 바로 <완전히 엇먹은>. '무예산 제작, 제 좋아서 만들기 식'의 제작스타일로부터 한 번도 벗어난적이 없는 퀴어시네마의 악동 그렉 애러키는, 전작이었던 <리빙 엔드 Living End>에 이어 <완전히 엇먹은>에서도 그 못잖은 재기를 선보인다. 물론 애러키의 영화를 보기위해선 먼저 심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멜로적인 게이드라마를 한결같이 사랑할 각오라면 아예 애러키의 영화를 피하는 편이 낫다. 차별과 냉대, 사랑과 이별, 오해와 자기연민 따위로 뒤범벅된 상투적인 게이드라마에 대한 애러키의 분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 탓에 그가 지극한 나이의 젊고 온건한 레즈비언/게이들로부터 반동성애적이란 비난까지 뒤집어써했던 점 역시 유념할 대목. 그는 스스로 '호모무비 homomovie'라 칭하는 그의 독자적인 영화세계에서 퀴어 틴에이지들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거칠고 난폭한 이미지들의 질주 속에서 만화경처럼 연속시킨다.





"호모 다이크 심대 언더그라운드에 관한 쓰레기같은 이야기...아방가르드 실험영화와 퀴어한 존 휴즈 John Hughes 식 영화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류작"(그렉 애러키 Gregg Araki)

"미스터 아라키의 척하는 듯하는 감독으로서의 태도가 비록 영화적 투명함을 가려버릴 때조차, 그의 대담무쌍한 난폭함과 독창성은 항상 명료하다(자넷 매슬린 Janet Maslin, 뉴욕 타임즈)

"Totally F\*\*\*ing Brilliant"(리처드 스미스 Richard Smith, 게이 타임즈 Gay Times)

"그의 네 번째 작품이자 최고의 장편 속에서 도발적이며 재능있는 독립영화제작자 그렉 애러키는 게이 틴에이지들의 혼란스런 세계를 천착한다...애러키는 그의 유명한 아이돌 가운데 하나인 장 킵 고다르의 양식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강세를 부여한다...다시한번 애러키는 작품에 대한 통제를 전혀 잃지않으면서도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있다."(케빈 토마스 Kevin Thomas, L.A. Times 엘에이 타임즈)

#### DIRECTOR

그렉 애러키 Gregg Araki 그렉 애러키는 미국의 X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이자 퀴어시네마의 악동 badboy. 요즘엔 그의 표현을 빌자면 이성애영화 Heterosexual Movies, 영화저널리즘의 표현을 빌자면 바이 무비(bi-Movie)에 뛰어들어 <완전히 엇박은>을 뒤잇는 <동 제너레이션 Doom Generation>, <노웨어 Nowhere>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물론 그가 올해에 소문과 논란 끝에 발표한 <노웨어>는 케빈 스미스의 또다른 삼부작 완결편인 <추격하는 애미 Chasing Amy>에 완벽히 분패하였다. 박스오피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또다른 바이 무비인 <추격하는 애미>가 독립영화진영의 최고의 흥행수익을 올리며 선전했기 때문. 하지만 그것은 그렉 애러키의 침체와 조락을 설명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렉 애러키는 그의 첫 장편이었던 <리빙 엔드>를 통해 뉴 퀴어시네마에서 가장 과격하고 도발적인 감독으로 명성을 굳혔다. 특히 전례의 관습적인 생각에 따를 경우 극히 부정적이고 상투적인 인물들을 내세움으로써, 그의 무책임하고 냉소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전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전 시기의 영화와 퀴어시네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한 지표로 예기하는 감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좌절당한 10대들에게 특유한 환상 속에 자각없이 뛰어들어 새로운 세대의 퀴어들이 직면한 분노와 절망을 서술했을 뿐 아니라 정상성에 반하는 타자로서의 퀴어 스테레오타입들을 퀴어 세대의 자기의식과 체험의 표상으로 능동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뉴퀴어시네마의 한 계보를 만들어냈다. 그의 또다른 대표작으로는 <한밤에 어쩔줄모르는 세 사람 Three Bewildered People in the Night(1987)>, <기나긴 주말(오 절망이여) Long Weekend (O'Despair) 1989>, <나를 보여라 Show Me(Jaie Laplante와 공동감독/1994) 등이 있다.

## 글리터버그 Glitterbug

데릭 저만 Derek Jarman, 52분, 35mm, Col, 1994, 영국



이제 영화의 걸으로부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정원에서부터, 아울러 그의 육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데릭 저만을 추모하며 우리는 그의 마지막 영화 <글리터버그>를 관객에게 소개한다. 퀴어시네마를 대표하는 감독가운데 레즈비언, 게이 관객을 넘어 다양한 관객들로부터 호모를 받았던 아방가르드적 컬트 감독 데릭 저만은 이제 그가 남긴 술한 빛과 꽃과 이미지와 언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의 마지막 영화 <글리터버그>에서 데릭 저만은 자신에 관한 시적인 자전을 쓴다. 죽음에 임박한 자가 들이치는 1970년부터 86년까지의 가장 열정적이었던 시기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저만이 영화 안팎 모든 곳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변형시키려는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좀체 공개하지않았던 희귀한 수퍼 8mm 필름들을 사용하여, 짧게 이어지는 연대기들의 사슬을 이어가는 <글리터버그>는 데릭 저만의 팬들에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가 될 것이다.

<글리터버그>는 그가 처음 영화를 제작했던 탬즈강변의 스튜디오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뒤이어 지극히 70년대적인 제2회 대안적 미스월드 선발대회의 모습이 보이고, 그의 초기 걸작들인 <세바스찬 Sebastiane>과 <주빌리 Jubilee>를 제작할 즈음의 뒷풍경들이 언뜻언뜻 나타난다.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이 영화는, 저만의 많은 영화들과 함께했던 브라이언 이노 Brian Eno의 아름다운 음악에 의해 언어의 지평 바깥에 있는 언어들을 길어올린다.

데릭 저만 Derek Jarman 영국 현대영화에서 가장 칭송받는 감독이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게이 영화제작자. 그는 1994년 52살의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숨을 거두고만 데릭 저만은 현대의 르네상스맨이란 애칭처럼 영화 속에 존재하는 모든 고답적인 것들을 해집고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련의 영화들로 인해 뉴 퀴어시네마의 대부로서뿐 아니라 영화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발휘한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1942년생인 데릭 저만은 미술을 전공하였으며 영화제작자로서뿐 아니라 시인, 작가, 화가로서도 유명하다.

#### DIRECTOR

켄 러셀 감독의 <악마들 The Devils(1971)>과 <야만적인 메시아 Savage Messiah(1972)>의 미술감독으로 영화에 입문한 그는 그후 직접 영화제작에 뛰어들어 그의 첫 장편 <세바스찬 Sebastiane(1976)>으로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시종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영화는 시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와 매우 과격한 동성애적 이미지들이 밀집되어 새로운 영화적 언어를 개척하고 있다. 이후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재해석한 일련의 영화들(<템페스트 The Tempest(1979)>, <천사의 대화 Angelic Conversation(1985)>과 영국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퀴어한 반란의 영웅들을 현대의 체험의 공간 속으로 소환하고 이를 현대의 낯선 체험과 충돌시킴으로서, 나선형의 시공간 속에서 섹슈얼리티와 정치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충격적인 영화들(<세바스찬>, <카라바치오 Caravaggio(1986)>, <에드워드 2세 Edward II(1991)>)로 주류영화와는 아예 담을 쌓고 말았다.

1986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난 후 극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시력마저 점차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데릭 저만은 영화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또 이 시기에 훨씬 격렬하고 아름다운 그의 걸작들을 만들어냈다. 극도로 한정된 예산과 제작 기일을 염수하면서도 더욱 무례하고 전투적인 '퀴어한 관점'을 고수하며 제작했던 그의 후기작품들은 근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In the Shadow of Sun(1972-80)>, <주빌리 Jubilee(1978)>, <영국의 최후 The Last Of England(1988)>, <비트겐슈타인 Wittgenstein(1993)>, <정원 The Garden(1990)>, <블루 Blue(1993)>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펫샵보이즈 PetShop Boys> 등의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이 있다.



## 미드나잇 댄서 Midnight Dancers

멜 치옹글로 Mel Chionglo, 100분, 35mm, Col., 1994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소니(Sonny)는 둘 다 마닐라의 게이 바에서 '마초 댄서 macho dancer'로 일하는 두 형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 <미드나잇 댄서>는 이 세명의 형제들이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그에 얽힌 모험과 위난을 헤쳐가며 전개된다. 가장 맏형은 아내와 자녀가 있지만 연상의 부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미 여러해 동안 그 일에 종사했고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벌써 퇴물이 되어버린다. 둘째인 테니스(Dennis)는 댄스에서부터 자동차절도에 이르기까지 돈을 벌기위해 닥치는대로 발버둥치면서,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말썽꾼이다. 마닐라의 가족들에게 돌아온 소니는 어머니의 훈계에도 아랑곳없이 형들의 일에 뛰어들다. 가난이라는 쓰라린 현실에 맞부딪친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위해 애쓰는 아들들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바에서 일을 하며 소니는 한 복장전환자와 낭만적인 사랑에 빠져든다. 그들의 관계는 소니가 마닐라 섹스 산업의 뒷골목에서 생존하기위해 절박히 필요로 했던 사랑과 안정을 준다. 그 와중에 테니스의 착취자들은 테니스와 가족들을 위협으로 몰아넣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이 속한 갱단에 불복한 채 독자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절도를 저지르던 테니스는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다.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이러한 참화 속에서 아버지는 가난으로 가득찬 가족의 삶과 아들들의 생활을 부인하며 외도를 하고, 파산된 가족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두 형제는 어머니와의 새 삶을 시작한다. 경제적 빈곤으로 가득찬 필리핀 빈민 계층의 삶을 통해본 필리핀의 게이 공동체의 풍경을 묘사하고 또 성찰하는 사회드라마 <미드나잇 댄서>는, 변방에 위치한 자들의 삶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따뜻하고 진지한 시선으로 따라잡는다.

"루치아노 비스콘티의 네오리얼리즘적 서사시 "로코와 그의 형제들 Rocco And His Brothers"에 대한 필리핀적인 응답...따뜻하고 너른 시선을 가진 영화"(스테판 홀든 Stephen Holden, 뉴욕 타임즈)

"마닐라의 게이하위문화에 대한 따뜻한 초상(에마누엘 레비 Emanuel Levy, 버라이어티)

"재능있는 솜씨, 잘짜여진 인물, 그리고 미더운 연기. <로코와 그의 형제>들을 연상시킨다"(고프리 체셔 Godfrey Cheshire, 뉴욕 프레스 NewYork Press)

### DIRECTOR

멜 치옹글로(Mel Chionglo) 1946년 필리핀의 루세나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영화수업을 한 치옹글로는 필리핀 사회의 동시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가득찬 영화를 감독, 제작하여왔다. 특히 1992년 BBC의 연작물 <개발 이야기들 Developing Stories>을 위해 제작한 <루시아 Lucia>는 필리핀의 기층방류와 이의 영향에 따른 어부들의 피폐해진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런던 환경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받는 것을 비롯해 주요국제영화제에서 두루 호평을 받았다. 그는 현재 필리핀의 가장 재능있고 진지한 감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아낙 Anak(1982)>, <나산 카냥 Nassan Ka Nang(1986)>, <산타 마할린 모 아코 Santa Mahalin Mo Ako(1987)> 등이 있다.

## 질산염 키스 Nitrate Kisses

바바라 해머 Babara Hammer, 67분, 16mm, b&w, 1992, 미국



아드리언 리치(Adrienne Rich)가 던지는 한줄의 선언과 함께 영화는 시작된다.

"한 사람에 대해서 제거되거나, 무시되거나, 검열되었던 어떤 것이나, 그것은 단순히 말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서구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레즈비언 / 게이 정체성의 흔적들이 필름, 편지, 책, 스냅사진등의 빛바랜 고문서 더미들 속에서 풀어 헤쳐져 나온다. 먼저 우리는 외부의 검열, 혹은 자기검열의 위협속에서 스스로 의미의 보호막을 두텁게 쳐야 했던 이전의 레즈비언 예술가들에 대해 듣는다. 죽기전에 자신의 편지들을 모두 불태웠던 30년대 미국작가 윌라 케이서(Willa Cather)의 레즈비언리즘은, 그래서 행간읽기를 통해 짐작될 뿐이다.

모든 레즈비언들이 작가나 예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머는 그러한 시대를 거처온 노령의 레즈비언들에게 직접 듣고자 하며, 이러한 실증적인 언어를 30년대 이래의 대중문화 이미지들과 엮어짚는다. 남성의 유혹적인 육체가 등장하는 미국 최초의 게이 필름, <소돔에서의 운명 Lot in sodom, 1933>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젊은 흑인과 백인 남성의 이미지와 교차된다. 그레타가르보, 마를린 디트리히, 캐서린 헵번등이 출현한 1934년에서 61년까지의 할리우드 필름 코드들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는 노쇠한 레즈비언들의 육체 이미지와 함께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독일 나치시대를 겪었던 동성애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전쟁이 끝난후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던 이종의 억압을 목격한다. 마침내, 영화는 90년대 동성애자들의 삶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 절규가 화면 가득히 채워지면서, 우리는 가장 반동적인 시대,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인 '에이즈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1995년 제 1회 바르셀로나 필름 페스티벌,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이미지 포럼, 1994년 국제 여성 필름 페스티벌, 1993년 :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 베를린 국제 필름 페스티벌 <Polar Bear 상>,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마드리드 여성감독 필름페스티벌 다큐멘터리 부문 <관객상> 1992년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 몬트리올 페스티벌 외 다수)

"이 영화는 '에이즈의 시대', '안전한 섹스의 시대', '노쇠에 대한 폭력의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레즈비언리즘'에 대한 찬가이다." 뉴욕포스터, 1993, 4, 9

"<질산염키스 Nitrate Kisses>는 억압되었던 레즈비언 / 게이들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일상적인 삶의 진실들의 저장고로 간주되는 역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카스트로(Castro), 1992, 10, 29)

"게이 / 레즈비언 역사의 부재에 관한 이러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에서 해머는 그 대상에 학문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접근한다" (뉴욕타임즈, 1993, 4, 9)

(1995년 제 1회 바르셀로나 필름 페스티벌,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이미지포럼)

1994년 국제 여성 필름 페스티벌, 1993년 :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 베를린 국제 필름 페스티벌 <Polar Bear 상>,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마드리드 여성감독 필름페스티벌 다큐멘터리 부문 <관객상> 1992년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 몬트리올 페스티벌 (그외 다수)

바바라 해머(Babara Hammer)는 제 1회 서울여성영화제 때 <Tender Fiction (한국제목 - 바비의 일생)>이라는 작품으로 소개되었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레즈비언 감독이다. 그녀는 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51개의 필름과 25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할 정도로 왕성한 창작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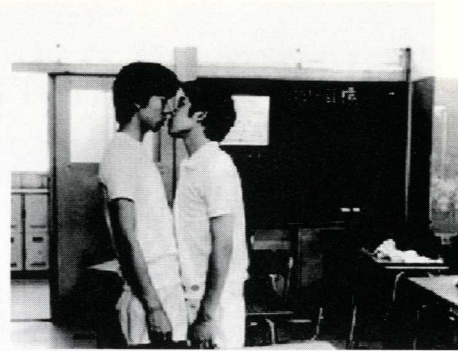
필모그래피 <바비의 일생 Tender fiction> 1995, <셀리템플과 나 Shirley Temple and Me> 1993, <질산염키스 Nitrate Kisses> 1992, <필수적인 신호 Vital Sign> 1991, <상투스 Sanctus> 1990, <정지한 점 Still Point>, <TV 타트 TV tart> 1989, <멸종 Endangered>, <두명의 나쁜 딸들 Two Bad Daughters> 1988, <평평한 매트리스 Place Mattes> 1987, <스노우 잡 1: 에이즈에 관한 미디어의 히스테리 Snow Job : The Media Hysteria of AIDS> 1986, <시신경 Optic Nerve>, <여행가 Tourist> 1985, <스톤 시러레스 Stone Cireles> 1983, <시네 터치 Syne Touch>, <풀 Pools> 1981, <사포 Sappho> 1978,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 Women I Love> 1976, <정신종합요법 Psychosynthesis> 1975.

### DIRECTOR



## 모래알 처럼 Like Grains of Sand

료슈케 하시구치 Ryosuke Hashiguchi, 129분, 35mm, Col, 1996, 일본



선댄스 영화제에 잇달아 초청됨(첫 초청된 1994년에는 <열병 A Touch of Fever>로 New Directors Showcase 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으로써 일본을 대표하는 신세대 감독으로 평가받고있는 료슈케 리ョシュケ. 그는 올 해 선댄스에서 호평을 받은 <모래알처럼>에서 전보다 자신있고 능숙한 솜씨로, 젊음과 사랑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의 결들을 그려보인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한 이 영화는 사춘기의 혼란과 성적인 갈망을 매우 따뜻하고 꼼꼼하게 그려보인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이토는 자신의 동성애 뿐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이성애자 친구에 대한 깊은 낭만적인 갈망으로 가득찬 한 감수성 강한 소년으로, 힘겹게 하지만 아름답게 자신의 사춘기 역정을 해쳐간다. 뒤틀려있는 영화의 시작 신에서 두 소년은 체육수업을 위해 갈아입고, 너무나 긴장한 이토는 졸도를 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 뒤여이 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면서 자신의 숨겨진 욕망으로 인해 어쩔줄 몰라하는 이토를 부끄럼없이 감싸안아주는 신참 여학생이 전학을 오게된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나름의 비밀을 간직하고있고 이토와 그 여학생은 곧 이심전심으로 깊은 우정을 맺게된다. 그런데 이토가 가장 사랑했던 그 친구는 다시 그녀와 가눌수 없는 사랑에 빠져든다. 한 사춘기 소년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자각하게되면서 겪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좌절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안는다.(1996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타이거상 수상)

"<모래알처럼>은 청소년기의 사랑, 갈망, 동성애적 욕망 그리고 심리적 걱정을 매혹적으로 그린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한 이 매력적인 드라마는 최면을 거는 듯이 시적이면서도 사춘기의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민감하게 포착함으로써 놀랄만큼 따뜻하고 보편적인 세계를 펼쳐보인다."(도날드 루니 Donald Rooney, 버라이어티 Variety)

### DIRECTOR

료슈케 하시구치 1962년 일본 나가사키생. 인물들의 삶에 근접하여 이를 이를 꼼꼼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작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중퇴 후 티비프로그램이나 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던 하시구치는 그의 첫 장편인 <미열 A Touch of Fever>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영 포럼에 초대되는 것을 비롯해 25개의 주요 국제영화제에 초청상영됨으로써 일본의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그의 이름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 오직 용기있는 자 Only the Brave

아나 코키노스 Ana Kokkinos, 62분, 35mm, Col, 1994, 호주



황폐하고 숨막힐 듯한 세계에 이 거친 소녀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는 없다. 공격하고 부수고 절망하고 반항하라. 그리고 정면돌파하라!

멜버른 근교의 황폐한 마을을 배경으로 힘겨운 성장기를 보내는 10대 소녀들에 관한 너무나 정직한 그림. 알렉스와 비키는 둘다 가난한 노동계급 가정의 소녀들이다. 알렉스는 집을 떠나서 가수가 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작가 지망생이고, 절친한 친구 비키는 가수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소녀들의 꿈은 싸움으로 점철된 거친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의 성적 학대에 의해 좌절만 겪을 뿐이다. 외로움, 소외감, 권태로움으로 절망하는 이 '나쁜소녀들'은 마약을 피우고, 학교 선생님과 긴장된 성관계를 나누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버려진 집과 다 쓰러져 가는 기차역사에서 잠을 청한다. 헐리우드 미국 영화에서는 순전히 반항적인 소녀들의 공간으로만 마련되어 있는 이러한 영역을 너무나 거친 호주소녀들이 점유한다.

영화의 배경은 어둡고 우울하며 터질듯한 긴장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키가 지친 모습으로 알렉스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 놓는 장면에서 두 소녀를 향한 애처로운 감정과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 다이크 드라마의 전조들로 가득찬 퀴어시네마의 문제작.

(1994년 : 멜버른 필름 페스티벌 '최고 필름 그랑프리 상' 과 '최고의 호주필름을 위한 에린 라도(Erwin Rado)상'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최고 극영화 부문 (Best Film Fiction Category)'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 런던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 뉴욕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관객이 선택한 최고의 필름')

"아나 코키노스의 힘있는 영화는 가족이라는 울가미를 극복하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장소도 마련해 놓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을 치루면서, 비로서 자신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직시하고자 하는 거친 10대 소녀들의 이야기이다. 권태감, 섹스(Sex), 상처받은 감정들과 좌절의 느낌으로 가득찬 전장터와 같은 10대 삶을 응시하는 감독의 정직하고 참다운 시선."(앤리 헤유티(Amree Hewitt), 1994년 멜버른 필름 페스티벌, 프로그래머)

1991년 이전까지 아나 코키노스(Ana Kokkinos)는 노동조합의 변호사로 일했다. 그녀는 1991년에 스윈번(Swinburne) 영화 & 텔레비전 과정을 수료하였고, 졸업 작품인 <앤타모시Antamosi>는 그해의 주요 학생부문에서 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다. <오직 용기있는 자 Only The Brave>는 졸업후 아나의 첫 영화로 유수의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 초청되고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신예감독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 DIRECTOR



## 숨바꼭질 Hide and Seek

수 프리드리히 Su Friedrich, 63분, 16mm, b&w, 1996, 미국



루는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락을 좋아하지만 플레이보이지나 성교육용 영화, 화장하기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12살짜리 말팔랑이 소녀이다. 그녀는 어느날,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남자친구와 사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알 수 없는 성적 느낌들에 직면한 60년대 소녀의 허구적인 드라마와, 이미 어른이 된 레즈비언들이 고백하는 고통스럽지만 우스꽝스러웠던 소녀시절의 사랑들, 커밍아웃 에피소드등의 사실적인 자기 고백이 뒤섞인 이 영화는 사춘기 레즈비어니즘에 관한 대담한 탐색이다.

프리드리히는 이 영화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 뿐 아니라, 많은 이성애자 여성들에게도 큰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모호하고 두려운 느낌들로 가득차 있었던 사춘기, 그 시절의 진한 우정, 자매애, 가족에 대한 반항과 같은 평범하지만, 아련히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을 이 한편의 영화가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7년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멜버른 필름 페스티벌, 프레임라인 필름 페스티벌, 아틀란타 필름 페스티벌, 런던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보스턴 여성 필름 페스티벌,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 믹스 필름 페스티벌, 1996년 뉴욕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몬트리올 필름 페스티벌)

"도발적일 뿐 아니라, 재미있는 영화.....허구적인 드라마와 사실적인 자료들이 기술적으로 혼합되면서 영화의 새로운 지형을 개척한다." (에마누엘 레비(Emmanuel Levy), 버라이어티지(Variety))

"<숨바꼭질 Hide and Seek>은 슬프고도 코믹하며, 다층적인 의미의 겹들로 채워져있을 뿐 아니라 지적이다" (스튜어트 크로웬(Stuart Klawan), 영화비평가, The Nation)

"<숨바꼭질 Hide and Seek>"은 한 소녀가 들려주는 레즈비언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프리드리히는 사춘기의 욕망과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자기만족적인 전제들을 공격하기 위해 풍부하고도 도발적인 그림을 짜낸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인종문제, 성적인 환상의 재현들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된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매력으로 가득찬 영화이다. (이본느 라이너 Yvonne Rainer)

### DIRECTOR

수 프리드리히는 1954년 코네티컷의 뉴헤븐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시카고 대학교와 오베를린 대학에서 예술과 예술사를 전공했다. 1978년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12개의 16밀리 필름을 제작했으며, 1976년부터는 뉴욕에 정착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 제작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1997년 4월에 미국 시네마테크 연합에 의해 '주목할 만한 감독'으로 선정되었고, 로스앤젤레스의 극장들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96년까지 만들어진 그녀의 모든 작품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 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수 프리드리히의 회고전이 열리기도 하였다.

<숨바꼭질 Hide and Seek> 1996, <길의 법칙 Rules of The Road> 1993, <먼저 사랑이 온다 First Comes Love> 1991, <잠수하기와 수영하기 Sink or Swim> 1990 : 멜버른 필름 페스티벌 그랑프리상/ 샌프란시스코 필름 페스티벌 황금문상/ 샬롯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심사위원이 선택한 황금상/ 아틀란타 필름 페스티벌 심사위원 특별상/ 미국 단편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최고 실험영화상,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나 가 Damned if You Don't> 1987 : 아테네 필름 페스티벌 최고실험영화상/ 아틀란타 필름 페스티벌 최고 실험 내러티브 상, <묶어놓은 매듭들 The Ties That Bind> 1984, <시내로 내려가는 무리들 Gentry Down the Stream> 1981, <차가운 손 따뜻한 마음 Cool Hand, Warm Heart> 1979 : 아테네 필름 페스티벌 Special Merit Award

## 2.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1) : 호모 소년들 극장에 가다 New Currents of Queer Cinema : Homo Boys Go To Theater



## 안내원 The Attendant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 1992, 영국



<젊은 영혼의 반란>의 감독 아이작 줄리안의 대표적인 단편 가운데 하나인 안내원은 그가 끈덕지게 천착해온 흑인 게이의 정체성에 대한 탐문을 뒤잇는다.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이 이 단편의 주인공은 미술관에서 일하는 나이든 지체로운 흑인사내. 그는 자신이 일하는 미술관에서 흑인 노예들과 차꼬들이 그려진 "아프리카 해안 풍경"이란 그림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아연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도마조히즘적인 관계의 심리적 쾌락이 생생한 이미지리들을 통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영국의 공중파 채널인 '채널 4'를 위해 제작한 작품.

(1993년 시카고 국제 레즈비언 / 게이영화제 최우수단편상 수상, 1993년 베를린 영화제, 7회 런던 레즈비언 / 게이 영화제 초청상영)

"이 '귀여한 8분' 속에서 아이작 줄리안은 그 어떤 장편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스타일과 웃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빚어낸다"(영국영화연구소 British Film Institute)

"줄리안은 여느 영화들이라면 감히 염두도 내지 못하는 욕정과 공포 사이의 갈라진 틈들 사이를, 뚫고 들어간다."(토니 레인즈 Tony Raynes)

## 나의 여름방학

### My Summer Vacation

스카이 길버트 Sky Gilbert, 95분, 16mm, Col,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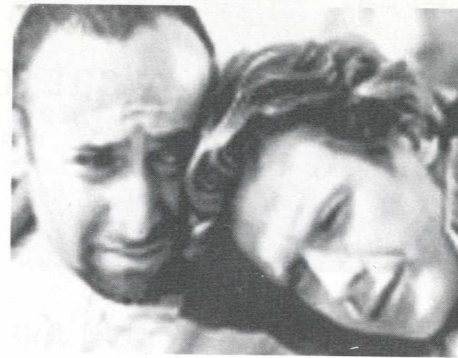
20대 초반의 매력적인 조는 애인이 유럽여행을 떠나고 없는 쓸쓸한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이하게된다. 떠나기전 그의 애인은 조에게 자신이 떠나고있는 동안 성적인 탈선을 촬영해보라고 제안하면서 무비카메라를 주고간다. 조는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여름철의 완벽한 보이프렌드"를 찾기위해 카메라를 들고 토론토거리로 나선다. 토론토의 게이거리인 처치 스트리트 Church Street를 쏘다니며 거리를 지나는 이들과 인터뷰를 한다. 수없이 거절을 당한 뒤 그는 마침내 소박해보이는 한 젊은 친구 크리스 Chris를 찾아내고 그를 유혹하기위해 집으로 데려간다. 공사중인 건물에서 사랑을 나누며 한 번도 사랑을 나눈 경험이 없는 조는 자신의 성에 눈을 뜨게되고 급기야 사랑에 빠져든다. 하지만 둘의 새로운 관계는 크리스가 조의 친구들 - 뚜쟁이 딕 라지 Dick Large, 헤로인 중독자 마베트 Marvette - 이 참석한 파티에 가길 거절하고, 또 어느날 조의 레즈비언 S/M 매춘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불쑥 박차고 나가면서, 크리스와의 관계는 서먹해지기 시작한다. 한편 조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심기증환자인 어머니와 크리스가 맺고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어한다.

캐나다의 가장 도발적인 게이영화감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스카이 길버트는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다루는데 미숙한 척하면서 시네마테와 비슷한 스타일로 이야기를 엮어가기를 좋아한다. 이 근작 장편에서도 역시 그는 홈 비디오 무비와 같은 모습으로 X세대 게이들의 삶을 뒤뜰린 시선으로 포착하고 노래한다.



## 인디안 섬머 Indian Summer

낸시 멕클러 Nancy Meckler, 100 분, 35mm, Col, 1996, 영국



악명높은 프랑스 파팽(Pappin)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전작 <자매여, 나의 자매여 Sister, My Sister>로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게된 낸시 멕클러의 두 번째 장편극영화.. <살아서 싸우라 Alive and Kicking>란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영화는 에이즈 시대의 사랑과 좌절 그리고 용기를 다룬 아름다운 게이 멜로.

주인공 토니오는 창조력에 있어서나 재능에 있어서나 지금 절정기에 있는 열정적인 댄서. 그는 지금 발레 루나 댄스 컴퍼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몸담고있는 컴퍼니는 그곳을 이끌어왔던 루나의 알츠하이머병이 암시하듯 몰락과 위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 컴퍼니의 기둥 역할을 했던 명성의 댄서 라몬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고 컴퍼니는 더욱 휘청거리게 된다. 토니오 역시 그가 숭배하고 사랑했던 라몬의 죽음으로 인해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토니오 역시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인 탓에 동료들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컴퍼니는 다시금 소생하기위해 루나의 명성높은 하지만 상당히 논쟁적인 작품이었던 '인디안 섬머'를 다시 무대에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전 라몬이 맡았던 그 역할을 토니오에게 맡기기로 결정한다. 일단 리허설의 하중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작정으로 어느날 컴퍼니 사람들은 나이트 클럽으로 가게되고 거기에서 토니오는 잭에게 이끌리게 된다. 잭은 라몬의 심리치료를 맡은 적이 있고, 또 라몬의 장례식에서 토니오를 조우한 적이 있는, 그 역시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게이.

항시 자신에 대한 통제의 끈을 늦추어본 적이 없는 토니오는 자신이 잭과의 관계로 인해 허둥대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둘은 서로의 관계 속으로 더욱 끈두박질치게되고 토니오와 잭은 사랑과 연정을 반복하면서 곡예를 하는 듯한 둘의 아슬한 관계를 지속한다. 그리고 결국 둘의 관계는 인디안 섬머의 준비에 골몰한 토니오에 대한 잭의 불만으로 인해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토니오와 잭은 인디안 섬머란 춤이 그려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서로에 대한 욕구를 긍정하고 서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 토니오는 자신의 에이즈와 화해하고 그 질병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춤을 추지못하게 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인다. 반면 잭은 그가 마주해야했던 이들의 분노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고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된다.

마침내 인디안 섬머의 막은 오르고 토니오는 일시적인 발작으로 인해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인디안 섬머를 춘다. 그리고 이 공연에 마지막 사활을 걸었던 컴퍼니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토니오와 잭은 마침내 서로의 삶을 또렷이 응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아름답고 눈물겨운 해피엔딩의 게이 멜로드라마를 찾아다닌 이들에게 분명 <인디안 섬머>는 가장 근사한 선물이 될 것이다.

"과장된 감상주의와 캠프적인 기지로 가득한 <인디안 섬머>는 에이즈 시대의 게이 판 '분홍신이야기' 같다"(97 뉴욕 레즈비언게이 영화제)

### DIRECTOR

낸시 멕클러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연극을 전공한 낸시 멕클러는 그녀의 첫 장편인 <시스터 마이 시스터 Sister, My Sister>로 엄청난 논쟁과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신예여성감독.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연극연출자로서 '프리홀드 컴퍼니'를 창립했을 뿐 아니라 '안티고네'를 비롯한 일련의 연극연출을 통해 널리 명성을 쌓아왔다. 이런 그녀의 경력은 그녀의 모든 영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게이 무용단원의 삶을 배경으로한 <인디안 섬머> 역시 그녀의 경력과 체험이 다분히 반영된 영화. '채널4'와의 합작으로 제작된 이 영화로 그녀는 전작의 호평에 뒤이어 영국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재림 The Secoond Coming

잭 월쉬 Jack Walsh, 53 분, 16mm, B/W, 미국, 1995



<재림>은 혼혈인종의 한 게이소년이 겪는 정치적인 자각과 그로 인한 운동가로서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성장기이야기. 일군의 근본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시도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감독은 동성애공포와 인종주의 등으로 휩싸인 목시적인 미래를 그려보인다. 자신의 터전인 가족과 또래들로부터 모두 소외되어있는 카를로스는 그의 급우인 벤에게서 사랑과 우정을 느낀다. 그리고 이 둘은 근본주의자들의 위협에 의해 초래된 위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항하기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방송하는 십대들의 모임에 가담한다. 그리고 일련의 배반과 납치 소동 끝에 카를로스는 급기야 참혹하게 살해당하고만다. 하지만 카를로스가 떠난 자리에서 일련의 절망적인 상황들로부터 꿈틀거리며 생겨나는 저항의 목소리들이 일게된다. <재림>은 약 10여년전 한국에서도 널리 읽혔었던 나치치하의 청소년 저항집단이었던 백장미단과 그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 <아무도 미워하지않는 자의 죽음>을 연상시킨다.

<재림>은 시종일관 2차대전을 비롯한 일련의 스펙터클한 전쟁의 모습과 파시즘적인 광기를 기록한 영화자료들과 극우주의자들의 음산한 표정들을 담은 티비광고를 비롯한 여러 장면들이 영화의 이야기와 교차하면서 전개된다. 영화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재연을 이러한 역사적인 이미지들로 대체하는 것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더욱 사실적이기라기 보다는 더욱 환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험적인 내러티브영화인 <재림>은 결국 그런 영화적 전략을 통해 정치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가공할만한 환상에 의해, 구경거리에 의해 조작되고 구성됨을 일깨우는 효과를 겨냥하는 듯 하다. 정치적 위기를 질서와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되돌리고 이 책임을 안팎의 침입자이자 뺑뺑이인 유색인종과 동성애에 돌리는 이데올로기적 술책을 한 번쯤 곱씹고싶다면 이 영화의 문을 열어보아야한다. <재림>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실험적 내러티브 영화에 물린 관객들에게 즐거운 체험이 될 것이다.(1996년 샌프란시스코 국제레즈비언게이 영화제, 아웃페스트, 시카고 언더그라운드영화제, MIX96(뉴욕 레즈비언게이실험영화제) 등에 초청상영)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있음에도 팻 부캐년(미국의 극우정치인)과 기독교연합이 성공을 거둬는 현재를 돌아볼 때 매우 시사적인 영화" (패트릭 학텔 Patric D. Hoctel, 샌프란시스코 베이 애리어 리포터 Bay Area Reporter)

"억압적 분위기가 기승을 부리고 우익 애국운동이 조직화되는 현재, <재림>은 오늘날 미국에서 움트고있는 여러 세력들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다" (감독 잭 월쉬 Jack Walsh)

잭 월쉬 Jack Walsh 샌프란시스코의 독립영화제작자이자 감독. 그는 14년의 영화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감독으로 실험적인 내러티브 영화를 주로 제작해왔다. 지금까지 그가 제작한 대표적인 영화로는 <현재 시제 Presen Tense(1987)>, <노동계급 연보 Working Class Chronicle(1985)>, <Document Unearthed 발굴된 문서(1984)>, <비치워크 Beachwalk(1983)>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시제>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의 영구소장품으로 채택되었으며, 그의 다른 작품들 역시 주요 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아울러 그는 미국 독립비디오영화제작자협회의 집행부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엔 오를랜드의 공영방송인 KTOP의 방송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 DIRECTOR



## 노동자와 방랑자 The Toilers and The Wayfarers

키스 프리리히 Keith Froelich, 75분, 16mm, Col, 1996, 미국



시골 마을의 두 게이 소년이 겪는 또 한편의 성장드라마인 <노동자와 방랑자>는, 게이 드라마의 영역과 소재의 확대를 보여주는 최신작. 도시 중산층 백인 게이 커플의 사랑과 갈등이라는 관습적 이야기의 공식을 탈피한 노동자와 방랑자는 게이로서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결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응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영화의 이야기는 16살먹은 두 명의 소년 디터와 필립이 겪는 갈등을 축으로 전개된다. 이 두 소년이 사는 마을은 독일계 후손들이 모여사는 미네소타주 뉴 울름이란 소도읍. 이 마을에서 게이로 성장하며 겪게되는 어려움은 클 수 밖에 없다. 이 두 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채 살아가며 빚어내는 긴장은 급기야 필립으로 하여금 미니애폴리스란 대도시로 탈주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궁핍과 감정의 공허를 배우기 위해 결국 매춘에 빠져든다. 그 사이 뉴 울름에서 그의 친구 디커는 찍어누를 듯한 청교도적 가족주의의 압력과 맞서싸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려 발버둥친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티비와 영화에서 묘사되는 전원의 삶을 찾아 최근 미국으로 이민온 20대 후반의 독일인 사내 우도와 짝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우도의 무모한 행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의심을 사게된다. 디터의 엄격한 아버지는 디터를 구타하고 우도를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놓는다. 달아난 디커는 우도에게 가출한 친구 필립을 찾으러 미니애폴리스로 함께 여행을 가지고 설득하고 둘은 그곳에 도착하여 필립을 만난다. 고향의 친구와 재회한 필립은 디터에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역시 거리의 매춘부로 나서게 만든다.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우도의 삶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뒤를 잇는데.

보수적이기 짝이 없는 미국중서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게이 소년이 겪는 성장과 그 갈등을 추적하고 공감하는 <노동자와 방랑자>는, 제목에서 은유되듯 끝없는 갈등의 격랑 속에서 삶을 헤쳐가야하는 삶을 진지하게 묘사한다.

(1995 로스앤젤레스 아웃페스트 Outfest, 1996 마디 그라 Mardi Gras 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초청, 런던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초청)

DIRECTOR

키스 프리리히 Keith Froelich 키스 프리리히는 영화 경력 15년의 베테랑 감독. 그는 NEW기금을 비롯한 여러 영화진흥 기금을 수여받은 바 있다. <노동자와 방랑자>는 그의 첫 장편 데뷔작. 그의 근작으로는 미니애폴리스와 상파울로의 게이 커뮤니티에 밀어닥친 에이즈의 영향을 살피는 <천둥이 말했던 것 What Thunder Said(1990)>과 단편 극영화 <승객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Fare(1990)> 등이 있다.

## 초콜렛 베이비 Chocolate Babies

스테판 윈터 Stephen Winter, 80분, 미국, 1997



97년 퀴어시네마의 팝콘. 유색인종들로 구성된 한 무리의 드랙퀸들 테러리스트들이 거리를 휘젓고다니며, 분노에 지친 에이즈 운동가들이 낡물래 꿈꿔오던 환상을 실현시켜준다면? <초콜렛 베이비>는 그러한 환상을 마침내 셀룰로이드 만화경 속에서 폭발시킨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계미국인 호모 갱들(이들이 백색의 천사들이 아님에 유의할 것!)들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반게이적 감정으로 그득한 세계에서 그들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세상을 되찾는 용감무쌍한 퀴어액션드라마를 기다려왔다면 반드시 놓치지말아야 할 신작.

<초콜렛 베이비>는 변죽이나 울려대는 맨하탄의 정치가들과 기업가들, 뽕뽕 골방에 숨어사는 동성애자들, 그리고 에이즈/HIV를 이용하는데 혈안일 뿐 그 위기를 멈추기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않는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데마고그들, 이 모두를 헤치고나가며 에이즈위기의 목시록에 지친 우리들에게 유쾌하고 통렬하며 또한편으로 가슴아픈 또다른 비전을 보여준다.

고당시를 방불케하는 음산하고 우울한 맨하탄 그 도시의 지하세계를 총괄하는 드랙퀸들과 여자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감동이 호모들 vblack faggots"은 보수파 정치가들을 골탕먹이기로 작당한다. 하지만 '초콜렛 베이비'는 예기치 않은 일로 위기에 봉착하게된다. 갱단의 가장 막내이며 갱단의 첩보활동을 맡아하던 샘(Sam)이 보수적 동성애자 정치가 - 그는 스스로 동성애자이길 밝히기를 극구 꺼리는 겉잡고 소심한 보수적 시의회의원이다 - 의 유혹을 받고만 것이다. 과연 그들은 파시스트들이 냄새를 맡기전에 "에이즈 파일"에 접근할 수 있을까?

퀴어세대의 영화적 마니페스토 가운데 하나로 볼러도 무방할만큼 통렬한 이 액션드라마는 퀴어 세대의 문화적 스타일과 정치적 주장을 결눈질하는데 아주 쓸모있을 것이다. 게이 드라마의 새로운 변화를 예감하고 싶다면 서슴없이 <초콜렛 베이비>를 선택할 것. 뉴욕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제작사인 오픈 시티 필름(토드 솔론즈의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Welcome To Doll House>와 마리아 마켄티의 레즈비언 다이크 무비 걸작 <The Incredibly True Adventure of Two Girls In Love>을 제작한 회사)의 최신작이기도 하다.(199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1997 뉴욕 레즈비언게이영화제, 시카고 레즈비언게이영화제, 파리 게이레즈비언영화제 등 초청)

"<초콜렛 베이비>는 정치적 테러리스크가 되기로 결심하고 보수적인 뉴욕의 시의원을 겨냥한 한 패거리의 갱들 - 냉소적인 노동자계급출신의 드랙퀸들, 미치광이 퀴어들 그리고 거칠기짝이 없는 유색인종 여자들로 이뤄진 - 에 관한, 사랑스런 정치적 선언이다."(감독 스테판 윈터)

"대담무쌍한 장편 데뷔작. 재능있는 앙상블이 대범하게 전하는 날카롭고 쾌활한 어조."(버라이어티 Variety)

스테판 윈터 Stephen Winter 자마йка와 헝가리 출신의 부모들밑에서 태어난 유색인 감독. 자신의 말에 의하면 퀴어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자. 시카고 예술학과 뉴욕대 대학원 졸업. 대학 재학 시절 많은 소형영화를 제작했으며 뉴욕대 재학시절에 제작한 <여기 용들이 있다 Here Be Dragon>란 단편영화로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5년에는 뉴욕시 스퀘어광장의 매춘남성에 관한 도큐멘터리인 <프라이빗 쇼 Private Show>를 제작. 최근에는 록펠러재단 기금을 받아 <사랑과 행복 Love & Happiness>란 내러티브와 도큐멘터리가 혼합된 장편영화를 제작 중에 있다.

DIRECTOR



### 3. 퀴어 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 : 다이크 소녀들 극장에 가다 New Currents of Queer Cinema : Dyke Girls Go To Theater

우리는 가장 최근에 국제적인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던 몇편의 레즈비언 영화들을 묶어 놓았다. 먼저 우리는 94년 이후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레즈비언 극영화의 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는 한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크리스티나 레이의 <여관소동 Inn Trouble>은 95년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던 <사랑에 빠진 믿을 수 없는 두 소녀의 모험 The Incredibly True Adventure of Two Girls in Love>과 같은 레즈비언 하이틴 무비의 경향을 담고 있다. 분명히 과거의 고전적인 레즈비언 영화들에 비해 논제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 이 작품들은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 가는 청춘기를 다룬 전형적인 드라마이며, 가볍고 경쾌하다. 루비리치(B. Ruby Rich)는 최근 몇년동안의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을 논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의 급속한 변화들이 레즈비언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페스티벌의 94년도 개막작인 <Go Fish> 이래로 최근까지 등장했던 많은 레즈비언 영화들은 새로운 '다이크 드라마'로 대변되며, 멜로드라마적이며 느와르적인 기운으로 가득차 있다. 40년대 이후의 주류 할리우드 영화에서 관습적으로 채택해왔던 레즈비언 역할은 살인자나 흡혈귀, 혹은 낮은 계급의 여성들이었다. 실제로 60년대 이후의 많은 레즈비언 영화들이 이와같은 부정적인 할리우드 스테레오타입들에 저항하려고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운드 Bound>의 코기와 <오직 용감한 자들 Only The Brave>의 알렉스와 <Grove on a Stainly Knife>의 스테프는 분명히 거칠고 파괴적이며 범죄적인 성향으로 가득찬 '나쁜 소녀들'이다. 다이크 드라마들은 말그대로 다이크 소녀들이 등장하는 사랑과 배신, 세상에 대한 거부, 도피, 모험 따위로 가득찬 드라마이며, 많은 할리우드 느와르 영화, 로드무비, 청춘물들과 닮아 있다. 매진 실리의 <산파이야기 The Midwife's Tale> 역시 중세를 시간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지만, 결혼과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두 여자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극영화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적인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혼합하고, 전형적인 내러티브구조를 파괴하면서 관객과 스크린의 동일시를 차단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영화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노장 이본느 라이너 감독의 <살인 그리고 살인 Murder and Murder>은 작년에 유수의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고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블랙코메디, 숨오페라, 정치적인 선언, 다큐멘터리, 러브스토리등의 다양한 장르를 뒤섞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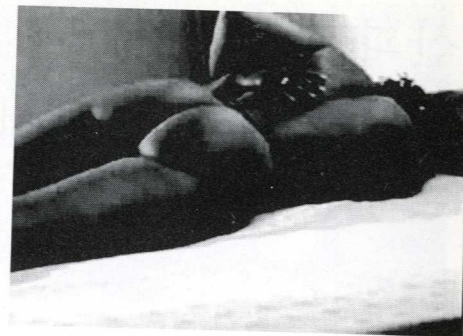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한명의 전도양명한 흑인 레즈비언 감독에게 또한 주목한다. 최신작 <워터멜론 우먼>으로 작년 국제적인 필름 페스티벌을 휩쓸었던 체릴 듀네의 영화형식은 분명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레즈비언 극영화들의 경향과 구별된다. 오히려 그녀는 이전의 역사속에서 레즈비언니즘을 탐색했던 다큐멘터리 감독들과 선이 닿아 있다. 체릴듀네의 영화들에서 현실과 영화의 동일시를 파괴하기 위한 브레히트의 연극적 전략을 여전히 유효하다. 그녀의 영화는 내러티브와 실제 삶을 혼재시면서 끊임없이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상기시킨다.

90년대 후반의 레즈비언 영화들을 대변할 수 있는 통일된 경향은 없다. 할리우드의 관습적인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경계심과 새로운 형식실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 그것이 주류는 아니다. 다양한 장르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젊은 감독들은 자신의 레즈비언니즘을 이야기하기위해 보다 더 대중적인 양식을 취하고, 느와르와 멜로드라마적 구조가 쉽사리 동원된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는 루비리치가 경계하고 있는 레즈비언 & 게이 페스티벌의 상업적인 팽창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던 대중적인 작품들은 메이저급으로 팔려나간다. 이러한 영화들은 레즈비언, 게이 관객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관객에게도 더 호소력이 짙다. 분명 이들은 단연코 잘팔리는 영화들이다.

97년 이전에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퀴어영화제 혹은 레즈비언 & 게이 영화제도 도래한 적이 없다. 우리는 어쩌다 비디오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작품들이나, 극장 개봉된 <바운드>, <안토니아스 라인>, 혹은 <에로티크>등을 통해 레즈비언 영화들을 공개적으로 볼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최근의 다양한 레즈비언 작품들을 조망하는 색眼中에서 우리는 다소 당황스럽다. 97년의 한국사회의 레즈비언 관객들은 어떤 영화를 원하는가? 그들은 시선은 어떤 지점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이 다양한 최신 영화들의 스펙트럼속에 갑작스럽게 떨어졌다. 우리는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 그녀는 스러지지 않는다. She don't Fade

체릴 듀네 Cheryl Dunye, 23분, 16mm., b&w, 1991, 미국



흑인 레즈비언 감독 체릴 듀네(Cheryl Dunye)는 다양한 형식들을 동원해서 특유의 '현실성 reality'를 창조한다. 스스로 '듀네멘터리 Duneimentary'라고 부르는 스타일을 위해서 감독은 카메라에 대고 직접발화하거나,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서 동시에 연기하기 등의 전략을 통해 관객이 내러티브와 동일시되는 것을 방해한다. 체릴듀네의 두 번째 단편인 '그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서로 사랑하는 흑인 여성들을 바라보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가득차 있다. 유머러스하고 즐거운 내러티브를 가진 이 작품에서 듀네는 스스로 셰어 크락(Shae Clark)를 연기한다. 영화가 시작되면 감독이자 주인공 셰어를 연기할 듀네가 나와서 이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음에는 카메라 감독인 파울라가 등장해서 앞으로 전개될 셰어와 마고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파울라는 카메라를 들고 셰어를 찍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러티브 내에 통합된다. 영화속의 허구와 영화 바깥을 구별하지 않는 이러한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듀네가 허구적인 세계가 아닌, 하나의 비디오를 만들고 있음을 시시각각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녀의 스타일은 관객들에게 감정이입보다는 분리를 가져오고, 수동적인 수락보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킨다"  
(라첼 아브라모위츠 Rachel Abramowitz)

체릴 듀네 (Cheryl Dunye)는 20년동안의 대부분의 삶을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보냈고, 그녀의 작품들은 휘트니 미술관, 필라델피아 현대 예술 연구소 등에서 상영되었다. 그녀는 또 흑인 레즈비언 주제의 강의를 맡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 온 인사말 Greeting from Africa>은 1996년 베를린 국제 필름 페스티벌과 선댄스에 초청되었고, 영화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그녀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흑인여성 감독이었다고 한다. 같은 해에 만들어져서 수많은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에서 열광적인 성원을 받은바 있는 <워터멜론 우먼 Watermelon Woman>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린 레즈비언 여배우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복원시키는 과정에 관한 영화이다. 필모그라피 <워터멜론 우먼 Watermelon Woman>, <아프리카에서 온 인사말 Greeting from Africa> 1996, <백만장자 Millionaire> 1994, <파트라크와 패션 The Potluck and Passion> 1993, <바닐라 섹스 Vanilla Sex> 1992, <그녀는 스러지지 않는다 She don't Fade> 1991, <야만적인 것 : 사피에가 지은 한편의 시 Wild Thing : A Poem by Sapphire> 1989.



## 산파 이야기

## The Midwife's Tale

메간 사일러 Megan Siler, 75분, 16mm, Col, 1995,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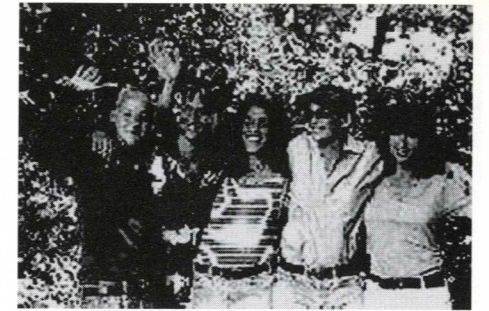


'산파 이야기(The Midwife's Tale)'는 설화 장르의 재미있는 재구성이다. 로맨스와 환상을 결합한 이 작품은 엄마의 새애인이 된 아줌마가 침대 머리에서 들려주는 한편의 동화이다. 때는 중세, 귀족가문의 아름다운 소녀 엘렌느는 강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처지이나, 어머니가 출산중에 죽었기 때문에 임신을 몹시 두려워한다. 급기야 엘렌느는 임신이 안되게 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 영험한 산파에게 하녀 제니스를 보낸다. 그러나 그 늙은 산파는 이미 마녀재판에 회부되어 버렸다. 엘렌느는 산파를 구하기 위해 제니스의 도움을 요구하고, 제니스는 그녀 역시 마녀재판에 회부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엘렌느를 돕는다. 귀족가문의 딸과 하녀인 두 여자는 힘을 합쳐 산파를 구하려고 하고, 많은 모험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결국 늙은 산파는 목이 매달리고, 제니스까지 귀족 여성인 엘렌느를 '소유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보내진다. 이제 엘렌느는 제니스를 교회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야 하고, 스스로도 강제된 결혼과 출산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을 떠올려야만 한다. 과연 아름답고 지혜로운 엘렌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하고 그녀의 사랑, 제니스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1996년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로스앤젤리스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Emerging Talent)

## 여관소동 Inn Trouble

크리스티나 레이 Christina Rey, 92분, 35mm, Col, 1996, 미국



레즈비언 연인들이 한 침대에서 잠들고,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밤마다 헤어지기 싫어 하룻밤 기거할 수 있는 안락한 방을 찾아 헤메는 레즈비언 커플들은 반드시 주목할 것. 여기 당신들의 밤을 책임질 메기의 여관이 있다! 메기의 여관에 밤을 들여 놓는 순간, 그토록 찾아 헤메던 당신의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평소엔 친구처럼 지냈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야릇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영화가 시작되면 당신은 이 사랑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성투렷한 레즈비언 친구들의 소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영화감독을 꿈꾸는 소피와 연인에게서 버림받고 비탄에 빠져 있는 크리스에게 갑자기 부여된 임무. 그녀들의 사랑과 섹스의 추억이 어려있는 레즈비언 전용 여관을 지켜라! 여관주인 메기가 죽은 후, 이 레즈비언들을 위한 전용 여관은 탐욕스러운 집주인의 손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 이 한바탕 소동에 저승에서 레즈비언 친구들을 돕기 위해 돌아온 유령 메기까지 가세한다. 유머러스한 농담과 아름다운 사랑이 아르헨티나 최초의 레즈비언 가수 셀레스트(Celeste Garbollo)의 행복한 사운드 트랙과 함께 펼쳐진다.

(1996년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크리스티나 레이(Christina Rey)는 1995년에 새로운 경향의 레즈비언 필름인 <관념을 변화시킨다는 것 Changing the Frame>으로 데뷔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녀는 1987년에 경영학 석사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옮겨왔다. 졸업후 레이는 어린시절의 꿈이었던 감독이 되기 위해서 콜로라도 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했으며, <여관소동 Inn Trouble>은 크리스티나 레이의 두 번째 장편영화이다.

DIRECTOR



## 살인 그리고 살인 MURDER and Murder

이본느 라이너 Ybone Rainer, 113분, 16mm, Col., 1996, 미국



중년인 도리스는 밀드레드와 사랑에 빠지면서 평생 처음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도리스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위협에 직면한다. 주로 도리스의 관점으로 서술되는 이 영화는 오로지 젊음과 이성애적인 로맨스만을 찬양하는 세계에서, 중년 여성들 간의 열정적인 사랑과 때늦은 레즈비언 정체성의 발견에 따른 즐거움이나 모호함, 불확실한 느낌들이 탐색된다.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거나, 영화적 공간과 현실을 교차하는 여러 인물들의 출현에 의해 더욱 복잡해지는데, 죽은 도리스의 어머니와 어린시절의 밀드레드는 지난 시절의 문화적 공간을 탐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등장한 유령들이다. 감독인 이본느 역시 직접 영화에 등장해서 절제된 자신의 한쪽 가슴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의학의 무관심을 비판한다. 숨오페라, 블랙코메디, 러브스토리나 정치적인 침에 함이 뒤섞인 노장여성 감독의 마지막 장편 영화는, 유머와 은유를 통해 정체체성과 여성육체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개념들을 공격한다.

(1997년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 테디상(Teddy Award), 1996년 ~ 1997년 베를린 페스티벌, 홍콩.런던.시드니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 로카르노 필름 페스티벌, 아마가타, 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로트르담, 그외 다수)

"<살인 그리고 살인 Murder and Murder>은 '일탈된' 정체체성, 중년의 여성, 여성의 질병인 유방암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문화적인 폭력들을 공격하며, 이를 위해서 유머, 슬랩스틱, 시각적인 메타포등의 광범위한 전략적 장치들이 사용된다. 블랙코메디이자 러브 스토리의 이 영화는 또한 풍부한 정치적인 사고를 담고 있기도 하다."(자이트가 이스트 필름(Zeitgeist Films) 리뷰)

### DIRECTOR

이본느 라이너(Yvonne Rainer)는 193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57년부터 뉴욕에서 현대 무용을 공부했고, 1960년대부터 아방가르드 예술계에서 전위적인 무용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62년부터 1975년까지는 미국전역과 유럽, 런던, 독일, 이탈리아, 파리등의 유명극장에서 공연했다. 1968년부터 그녀는 각기 다른 매체들을 자신의 공연속에 끌어 들이는 퍼포먼스를 시도하면서 언어와 내러티브를 중요한 표현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1975년에 비로서 완전히 영화 감독으로 전업하면서, 개인적인 기억과 정치적인 기록, 실제와 허구를 넘나드는 내러티브를 발전시켰다. 이 유명한 현대 무용가이자 60년대 감독은 또 50대에 처음으로 레즈비언이 되었으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자서전적인 글에서 고백한다. 그래서 <살인 그리고 살인>의 도리스는 어쩌면 감독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여자 연인과 거리에서 키스를 했다. 나는 내가 전적으로 새로운 게임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전에 했던 단어놀이는 이성애주의의 안락한 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를 한 사람의 레즈비언으로 부르는 것은 단지 성적취향에 대한 진술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살 장소를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안전한 집과 경계의 바깥에 위치한 사회적인 소외의 영역에 말이다. 레즈비언이자 나이먹은 여성으로서의 나는 이러한 소외의 장소에 거주한다."(이본느 라이너, <Working Round the L-Word> 중)

라이너의 첫 장편 <공연자의 삶>은 통속적인 내러티브의 장르관습을 뒤집어 버린 것으로 부제목 역시 '멜로드라마' 이고, 은밀한 삼각관계가 영화의 내러티브 관습이다. 시간적 순서와 구조 그리고 허구와 실제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라이너 영화의 특징은 1975년 <어떤 여성에 대한 영화>에서 잘 나타난다. 이 영화는 기존의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관객에게 여성의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보게 한다.

라이너는 많은 상과 기금을 받았다. 구겐하임, 록펠로우 기금과 국제예술기금으로부터 7개의 상, 뉴욕예술위원회로부터 6개상, 마야 데렌 상등을 받았다.

<살인 그리고 살인 Murder and Murder> 1996, <특권 Privilege> 1990 : 1991년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 감독상, 1991년 문치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Geyer Werke Award, <여성을 부러워 하는 남성 The Man Who envied women> 1985, <베를린 여행 Journeys from Berlin> 1980 : 로스앤젤리스 영화 비평가 협회상 Special Achievement Award, <그림을 말하는 크리스티나 Kristina talking Picture> 1976, <어떤 여성에 대한 영화 Film about a Woman who...> 1975, <공연자의 삶 Lives of Performers> 1972.

## 나는 니가 무서워 Grove on a Stainy Knife

틴즈 크리슈난(Tinge Krishnan), 42분, Col., 1996, 영국



스테프와 타미는 잔인한 갱들로부터 한보따리의 헤로인을 훔쳐서 달아난다. 갱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며 쫓고 쫓기던 스테프와 타미는 공중화장실로 숨고, 다음날 아침이 올때까지 서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던 어린날의 파사롭던 느낌들, 비로서 상처받기 쉬운 육체를 가진 여자가 되어 버렸다는 절망감을 주었던 첫 월경의 경험, 성적으로 학대당했던 기억들, 슬펐거나 기뻐했던 과거의 사실들은 두 여자의 기억속에 존재하는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회상 장면과 함께 펼쳐진다.

둘의 대화의 초점이 스테프에게 옮겨 가면서, 스테프조차도 아직 알 수 없는 모호하고 두려운 그녀의 정체체성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럼 넌 레즈비언이구나? 그렇다면 넌 여자들의 \*\*를 좋아하니?" 타미의 경멸조의 호모포비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서 들여다 보게된 스테프의 두려움이 불러 일으킨 거센 저항감 때문에 두 여자는 서로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주먹다짐을 하게 된다.

공중화장실의 끈적하고 음습하며 단절된 분위기, 거친 두 여자의 육설과 주먹질 속에서 우리는 어느날 당신이 누구라는 것, 혹은 당신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감의 강도를 미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역시 그녀가 그토록 두려울까?

(1996년 마디그라 필름 페스티벌/ 토론토 뉴 필름 & 미디어 이미지 페스티벌/ 브라드포드 국제 필름 페스티벌/ 튜린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런던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베를린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단편부문 은탑상 수상 / 그외 오스틴, 바리, 로스앤젤리스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Groove on a Stainy Knife>는 도발적이고 강렬한 영상속에서 우정, 신뢰, 배반에 대해 이야기한다.(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멀티미디어와 역동적인 촬영기법을 사용하면서, 이 영화는 여성들간의 관계, 대안적인 생존방법, 매력, 분노등의 감정에 관해 탐색한다."(35 회 앤 아보 필름 페스티벌)

틴즈 크리슈난(Tinge Krishnan)은 응급의학 박사라는, 영화감독으로서 보기도 약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이며 이 영화를 제작한 'Disruptive Element Films'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한 그녀는 현재 영국에서 매춘여성의 질병예방과 HIV 감염 여성 치료를 위한 크리닉에서 일하면서 영화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필모그라피 <Groove on a Stainy Knife> 1996, <나쁜 병원균들 Bed Bugs>, <City Bowl Story> 1995, <제기랄 Shit!>, <카펫 가게의 사랑 Carpet Shop Love> 1994. (틴즈의 많은 영화들은 친구이자 감독인 베스 코틀러(Beth Kotler)와 함께 작업한 것이다.)

### DIRECTOR



## 케이 K

최소원, 13분, 비디오, b&amp;w, 1997, 한국



프리즈랑의 'M'에서 착안한 듯한 K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라지는 한 여성의 어깨에 달린 표식이다. 인적이 드문 지하철, 금방 여행에서 돌아온 듯한 한 소녀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성에게 강하게 이끌리면서, 그녀의 뒤를 밟는다. 마침내 두 여성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소녀(S)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D)이 도시를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는 회대의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여성, 혹은 레즈비언의 삶을 억압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두 여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그의 어깨위에 살인자의 표식인 M을 붙여놓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 첫 비디오 작품 'O'에서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연출작 'K'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혹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험영화 형식의 탐색이다.

(1997년 브뤼셀 국제 독립영화제)

## 4. 퀴어시네베리테 Queer Cineverite

레즈비언과 게이들, 그리고 성적 소수집단은 항상 자신을 기록한다. 하지만 덧없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이 초래하는 체험의 부패를 막기위해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그리고 끊임 없이 신축하는 공간의 진화에 의해 자신의 삶이

거부된 언어의 공간에서 발설할 수 없었던 자신의 욕망과 말들을 적고 보관하며 들춰본다. 그들은 일기를 쓰고, 자신이 독자인 자서전을 쓰며, 연인의 웃음을 홈비디오에 담고, 자신의 물건들과 표정을 찍는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기록이 아니다. 기록은 사실의 재생이 아니라 사실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퀴어 시네베리테'는 바로 도큐멘타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서술하고 묘사한다. 그것은 우리를 보다 잘 들여다보고 또 들춰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망각하고 오인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발생시키는 진실들이다. 진실을 위한 카메라들. 그 카메라들의 민첩하고 뜨거운 시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DIRECTOR

씨네마테크 '빛'의 단편영화제작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영화를 공부했던 최소원(Choi Sowon)은 96년부터 비디오 작품을 연출해왔고, 올해 두 번째로 '심만원비디오영화제'를 기획하고 있다. 심만원비디오 영화제는 상업자본이 지배하는 거대영화제들의 홍수속에서 언더그라운드 영화문화를 꽃피워보겠다는 감독의 당찬 의지가 담긴 활동이다.



#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 에블린 후커 박사 이야기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Dr. Evelyn Hooker

리차드 슈미첸 Richard Schmiechen, 75분, 35mm, Col., 1991, 미국



지난해 제1회 인권영화제의 유일한 동성애자 인권관련 영화로 소개됐던 <하비 밀크의 시대 The Times of Harvey Milk>의 감독리차드 슈미첸의 또다른 장편 다큐멘터리,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심리학자에게 바치는 찬사이자 동시에 게이역사의 숨막히는 한 단면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에블린 후커 박사는 게이 정체성과 동성애 담론을 둘러싼 현대사회의 변화에서 이정표적인 한 사건과 관련된 과학자. 그 사건이란 197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심리질환에 관한 진단통계편람에서 동성애 항목이 삭제된 것. 이는 심리적 기질이자 육체적 특성으로 동성애를 정의함으로써 동성애를 질병이란 범주에서 통제할 수 있었던 의학의 권력이 마침내 무너지게 되었음을 알리는 혁명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사건에서 에블린 후커 박사는 그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변화를 촉발하는데 기여한 바 있었다. 동성애라는 악마를 쫓아내기에는 1960년대의 교육영화로부터 뽑아낸 클립들뿐 아니라 동성애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문과도 같은 치료장면의 사진들과 자료들을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영화는 동성애 정체성이 어떻게 통제되고 조절되는가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물론 잊지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반동성애적 의학의 폭력. 동성애를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 생각하는 심각한 타인공포증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정신질환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199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수상, 1993년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지명)

"이 영화는 게이와 레즈비언이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삶의 역정을 거쳐왔고, 또 과학자들 역시 수십년간 그들이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님을 역설해왔음을 깨닫는데 더할나위없이 가치있는 교육영화"(로스엔젤레스 타임즈)

## 미노루와 나 Minoru and Me

나카타 도이치(中田統一) Nakata Toich, 45분,



감독 나카타 도이치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않은 사람이다. 비록 부분삭제를 거친 채 방영되긴 했지만 재일교포 2세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탐색을 묻는 <오사카 스토리 Osaka Story>를 통해 그는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간 적이 있었다. 그의 동성애정체성을 부끄러워하고 검열했던 반동성애적인 방송심의제도에 대해 제대로 시비조차 한 번 걸지 못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벗 나카타 도이치는 그의 아름다운 시네베리테, <미노루와 미>를 선물한다. 영국에 터를 잡고 영화작업을 하는 나카타 도이치는 그의 일본인 친구 미노루에게 런던의 자신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 뇌성마비를 앓고있는 미노루는 도이치에게 고백할 게 한가지 있음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미노루와 자신의 관계를 비디오로 기록하던 도이치는 점차 미노루를 신체장애자이며 의존적인 인물로 묘사하는데 얽매이게 된다. 이런 도이치의 모습을 혐오하게된 미노루는 그토록 멀리서 찾아와 털어놓으려 했던 자신의 고백을 털어놓지 못한다. 지독하리만치 정직한 이 영화에서 도이치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동시에 커밍아웃, 신체장애, 영화제작자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는 그의 반성을 드러낸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필름 앤 비디오 페스티벌, 1992년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게이영화제, 1991년 노스웨스트 레즈비언/게이 영화제 초청상영)

나카타 도이치 Nakata Toich 中田統一 한국이름은 尹 統一. 재일교포 2세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그는 이미 지난해 KBS를 통해 방영된 감독의 한국용 편집판 <오사카스토리 大坂物語>를 통해 널리 알려진 감독이기도 하다. 나카타 도이치는 파친코를 경영하는 재일교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영국 국립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수업하였다. 졸업작품으로 제작한 <오사카스토리>에서 그는 재일교포 2세로서의 자신의 삶과 게이로서 자신의 갈등을 진솔하게 그려낸 바 있었다 이 영화는 에든버러 국제영화제를 필두로 주요 영화제에서 잇달아 초청상영되었고 동경 국제학생영화제에서는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그는 조만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분노의 69년 : 침묵에의 의문(1부) Outrage '69 : The Question Of Equality(Show1)

아서 덩과 TTL Arthur Dong and Testing The Limits, 56분, 16mm, Col, 1996. 미국



'한계를 시험하라 Testing The Limits(TTL)' 그룹은 에이즈 위기의 시대를 돌파했던 중요한 비디오운동 집단들 가운데 하나.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택한 DIVA TV와 더불어 퀴어 비디오운동을 추동했던 대표적 그룹 가운데 하나. 1987년 발족 이후 TTL은 비판적이고 진보적 입장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디오 아카이브(archive)를 통해 에이즈와 그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확산시키기위한 노력에 분투하여왔다. TTL의 필름들과 비디오테이프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물론이려니와 공공 티비, HBO를 통해 잇달아 방영되었고,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하였다. <침묵에 대한 의문> 시리즈 역시 에이즈 기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공동체 조직, 공개 토론을 위해 널리 활용되었고, 수백군데가 넘는 공공교육기관에서 학습토론용으로 널리 배급되었던 바 있다. 이 시리즈엔 영국의 감독 아이작 줄리안이 수석 프로듀서(senior producer)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각각 한시간 남짓의 길이로 구성된 <침묵에의 의문>은 모두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연작. 이 가운데 2부 <문화 전쟁 Culture Wars>와 3부 <신성한 자유 Hollow Liberty>를 뺀 1부와 4부가 소개된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할 1부는 올 해 선댄스영화제에 게이들에 대한 증오형 살인과 범죄를 추적한 <살인면허 Licensed To Kill>로 도큐멘터리 부분의 그랑프리 수상한 바 있는 아서 덩(Arthur Dong)이 감독하고 TTL의 동료들이 함께 제작한 <분노의 69년>이다. 이 편에서 TTL은 레즈비언, 게이, 시민주권이란 주장이 발아하고 정착하던 격정적인 투쟁과 혼란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알다시피 1969년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격렬했던 역사적 전환기였다. 또한 그와 더불어 레즈비언, 게이, 역사의 있어 서도 이정표적인 시기가 바로 또한 그 해였다. 베트남 전쟁은 야만스런 전쟁의 절정을 향해 치달고있었고, 미국의 대학은 반전운동으로 쑥대밭이 되어있었다. '검은표범당 the Black Panther Party'과 '젊은 귀세주들 the Young Lords' 같은 유색인종 해방조직들이 결성되어 격렬한 내전을 시작한 것도 이 해였다. 또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평화와 자유를 열망하는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운집한 것도 역시 이 해였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고 성해방의 움직임이 움트고 반세기 만에 제2의 여성운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역시 이 해였다. 하지만 또한 그해는 레즈비언, 게이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라는 것은 범죄자란 것이었다. 게이란 점이 드러날 경우 그는 체포를 당하고 고초를 겪어야했으며, 게이들이 모이는 곳은 불법적인 곳으로 경찰의 단속과 급습에 시달려야 했다. 1969년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란 게이바에 들이닥친 경찰들의 급습 역시 그런 해묵은 탄압과 차별의 한 예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날 스톤월 인이란 게이바는 구타와 모욕으로 아우성치는 전날의 게이바가 아니었다. 그 날 스톤월 인은 근대적 게이인권운동의 탄생을 가져온 요람이었다. 그날 타벌과 굴욕에 시달리던 게이들은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싸움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분노의 69년>은 바로 이러한 1969년의 격렬한 저항과 새로운 동성애 역사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스톤월 항쟁과 그 뒤를 이은 잇단 게이운동 조직의 출현을 추적한다. 당시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대의를 공유하던 게이해방전선(GLF:Gay Liberation Front)의 출범 그리고 이에 반발하여 게이, 레즈비언에 고유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주창하던 게이운동가연합(GAA:Gay Activist Alliance)의 발족, 또 이런 조직들의 남성, 백인중심적 성격에 반발한 급진적레즈비언들(Radicalesbians)와 살사 영혼의 자매들(Salsa Soul Sisters)같은 조직의 출현. 이 모두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변화의 전조들이다. 하지만 이제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박해와 차별을 거부하던 동성애자들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싸움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국면을 시작한다. 성해방과 성혁명이 절정을 이루었던 70년대, 디스코로 상징되는 게이하위문화의 폭발은 동성애자들이 이젠 새로운 삶의 시대를 만끽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69년의 스톤월항쟁을 전후한 변화와 그를 뒤잇는 게이 시민권운동의 출현, 그리고 70년대 게이공동체의 팽창과 번성, 게이 공동체 내부의 성별, 인종별 차이에 따른 문화의 과정이 <분노의 69년>에서 상세하게 추적된다.

한계를 시험하라 Testing The Limits : <한계를 시험하라> 그룹은 에이즈미디어운동의 역사에 있어서나 대안적 비디오운동의 역사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전설의 '페이퍼 타이거즈 티비 Paper Tigers TV' 그룹이 만들어놓은 대안적 비디오 운동의 입장을 뒤잇고 있다. 이들은 뉴욕을 거점으로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한 대안적 비디오운동과 에이즈 비디오운동 집단과 그 연류를 거듭하다 현재엔 독자적인 비영리 도큐멘터리 제작사로 재발족하였다. <한계를 시험하라> 그룹은 애초 휘트니박물관의 인디펜던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된 이들과 또 이와 연결된 6명의 예술가 및 에이즈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었다. 진 카를로무스토, 보르도위츠 Bordowitz, 샌드란 엘기어 Sandra Elgear, 로빈 허트 Robin Hutt 등이 창립멤버가 되어 활동했던 이들은 GMHC의 시청각부를 이끌었던 진 카를로무스토나 초창기 DIVA TV를 이끌었던 보르도위츠처럼 전문적으로 분화되지않은 공동의 작업집단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비디오운동 조직이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한계를 시험하라> 그룹은 에이즈미디어 운동에 초점을 맞춘 다른 운동조직들로부터 분리되어 '퀵 앤 더티 quick & dirty'식의 비디오 제작으로부터 벗어나 1988년 전문적인 도큐멘터리 제작팀으로 재편성하여 제도화된 제작집단으로 재출범하였다. 따라서 이런 제작방식과 배급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들은 한정된 관객집단을 겨냥한 특수화된 쟁점을 찍고 제작과 배급을 그에 연동시켜 진행하던 이전의 활동방식에 중지부를 찍었다. 이후 이들은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를 비롯한 교육용 채널에 배급을 목표로한 하지만 여전히 레즈비언, 게이 공동체의 급진적인 주장을 기록하고 제기하는 제작에 헌신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한 작품으로는 <한계를 시험하라 파일럿 Testing the Limits Pilot(1987)>, <한계를 시험하라 세이프섹스 쇼 Testing the Limits Safer Sex Video(1987)>, <Egg Lipids 달걀 지방(1987)>, <한계를 시험하라 NYC Testing the Limits : NYC(1987)>, <전선으로부터의 목소리 Voices from the Front(1992)> 등이 있다.



## 퀴어 세대 : 침묵에의 의문(4부)

Generation Q :

The Question Of Equality(Show4)

Testing The Limits, 56분, 16mm, Col, 199. 미국



<퀴어 세대 : 침묵에의 의문(4부)>는 게이, 레즈비언을 뒤잇는 새로운 세대들인 퀴어 세대들에게 눈을 돌린다.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운동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민다. 그리고 그들이 개척하고 모색하는 새로운 미래의 창을 함께 들여다본다.

<퀴어세대>는 먼저 로스앤젤리스의 레즈비언, 게이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학교인 이글 센터(EAGLE center)로부터 걸음을 시작한다. 이 학교는 레즈비언, 게이 청소년들이 어떠한 인격적인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들 만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 개설된 학교. 생생한 인터뷰 속에서 이 학교의 토크이저들은 그들이 나눠 가진 다양한 체험들-부모의 비난, 가출, 주변사람들의 괴롭힘-을 실토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자신을 부인하고 거절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감동적으로 밝힌다.

다음으로 카메라가 발길을 돌리는 곳은 뉴멕시코 주의 알부퀴크(Albuquerque). 이 곳은 인종과 종족이 다양한 21살 미만의 레즈비언 게이 토크이저들을 위한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의 아이들은 그들 나이또래가 가진 진술함, 열정, 그리고 참신함으로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퀴어세대>의 마지막 정박지는 매사추세츠주. 이 곳은 수많은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자 청소년들이 반동성애적 법률의 폐지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곳이다. 다양한 젊은 레즈비언, 게이 예술가들의 시와 공연들이 뒤섞이며 전개되는 <침묵에의 의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게이 운동이 마주한 현실을 솔화한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그 솔화는 우리가 헤쳐나갈 미래에 대한 전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침묵에의 의문>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게이 레즈비언 정체성의 변화를 조망하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온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깨우치고 싶다면 절대 놓쳐선 안될 길잡이. 제 1회 서울퀴어영화제가 추천하는 놓쳐서는 안될 필수 관람작 가운데 하나.

## 사적인 전쟁들 Private Wars

닉 데오캠프 Nick Deocampo, 65분, 16mm, Col, 1996, 필리핀



닉 데오캠프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독립영화감독이자 아시아영화진흥 기금의 디렉터로 활발히 활동하는 아시아 독립영화의 전사. 이미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섹스 전사와 사무라이>란 영화를 통해 한국관객과 일면식을 한 바 있는 닉 데오캠프는 그의 신작인 <사적인 전쟁들>을 통해 필리핀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모순, 그리고 성적 착취를 탐색하던 이전의 영화적 경향으로부터 한걸음 물러서 자신에게 시선을 구부리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도큐멘터리와 연출된 장면들을 뒤섞으며 감독 닉 데오캠프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나선 그의 신산한 역정을 시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구축한다. 제목에서 언급하는 전쟁은 2차대전이라는 공식적인 전쟁(국가와 국가의 대결)이라는 공식에서 드러나듯이지만 동시에 자신에 깊은 상처를 남긴 너무나 사적인 전쟁이기도 하다. 조부는 일본인에 의해 참수되고, 그러한 끔찍한 참화를 겪은 뒤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들거나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하는 피폐한 삶으로 곧 두박질친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족을 저버린다. 공식적인 전쟁을 통해 빚어진 고통스런 상실들에 데오캠프는 자신의 가족과 사회를 으깨놓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감당해야했던 자신의 고단한 삶의 역정, 무엇보다 필리핀 사회에서 게이로서 살아가야하는 자신의 삶의 역정을 나란히 놓고 있다. 물론 영화에서 데오캠프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해석하려는 시늉을 하지않는다. 영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딛고가는 비틀거리는 고뇌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낸다. 의도된 질문에 대한 약정된 대답을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그는 그저 영화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인 자신의 고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996 하와이 국제영화제, 1997 샌프란시스코 국제아시아아메리칸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시드니국제영화제, 멜버른 국제영화제 등 초청상영)

"<사적인 전쟁들>은 파워풀한 개인 도큐멘터리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필리핀의 역사를 탐구하는 도큐멘터리이다. 나는 당신의 용기와 당신의 예술적, 정치적 비전이 지닌 힘에 찬사를 보낸다"(폴 이 Paul Yi, 1997 샌프란시스코 국제아시아아메리칸영화제)

"<사적인 전쟁들>: 그것은 너무나 비범한 작품이다. 우리는 그것을 상영하게되어 너무나 자랑스럽다....탁월한 작품"(1996 하와이 국제영화제)

닉 데오캠프 Nick Deocampo : 필리핀의 대표적인 독립 도큐멘터리 감독이며 모웰펀드 Mowellfund 영화연구소의 큐레이터이자 소장직을 맡고 있다. 데오캠프는 필리핀의 영화예술의 발전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으며 특히 소형영화와 도큐멘터리영화에 매우 비중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뉴욕대에서 영화를 전공하였으며 학생시절부터 그가 제작한 영화들은 주요 영화제에서 커다란 호응을 받아왔다. 그는 필리핀을 에워싸고있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끈질기게 천착하여왔다. 식민체함과 빈곤에서부터 매매춘과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그의 영화 속을 통과하였다. 그러한 그의 활발한 활동과 필리핀 영화의 발전에 대한 공헌으로 그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10인의 청년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의 다른 대표작품으로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상영된 <섹스전사와 사무라이(1995)>를 비롯하여, <올리버 Oliver(1983)>, <체제의 아이들 Children of Regime(1985)>, <혁명은 노래의 후렴구처럼 일어난다 Revolution Happen Like Refarins in s Song(1987)>, <폭력의 유산 A Legacy of Violence(1990)> 등이 있다.

DIRECTOR



##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들 Not Just Passing Through

진 카를로무스토, 돌로레스 페레즈, 캐서린 살필드,  
그리고 폴리 디스틀스와이타의 공동작업  
Jean Carlomusto, Doles Perez, Catherine Saalfeld,  
and Polly Thistlethwaite  
60분, 비디오, Col, 1997, 미국



레즈비언들 비디오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다! 알다시피 레즈비언은 현대 사회에서 항상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도 없었으며, 그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곳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침묵과 부재 속에서 레즈비언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의 섬과 같더라도 자신의 역사를 만들었다.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레즈비언 비디오 활동가들에 의한 사라진 혹은 재발견된 레즈비언 역사의 보고서.  
한 시간 길이의 짙막한 도큐멘터리 비디오에서 레즈비언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법. 하지만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역사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며 또한 언제나 가능한 일. 그녀들은 공식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발원된 그 어느 곳에서도 항시 없었던 존재. 따라서 그들의 역사를 찾아내기 위해 고문서실을 뒤져보았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매우 보잘 것 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레즈비언들은 자신들의 카메라를 들고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버릴 듯하면서 기어코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헤집고다닌다. 그것은 바로 입과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또 공유되는 그들의 체험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레즈비언으로 살아남았으며 또한 자신의 육체와 체험 속에 레즈비언 문화와 역사의 흔적들을 간직한 노구의 레즈비언들을 찾는다. 1989년 타계한 마벨 햄튼 Mabel Hampton. 가사노동자였고, 가수이자 무용수였으며, 세상에 둘도없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던 또한 운동가로 서슴없이 싸우기도 했던 그녀의 구성진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마지 맥도날드 Marge Macdonald 가 보듬어낸 오하이오주의 레즈비언의 이야기들, 재야사학자 레즈비언인 준 찬 June Chan 이 찾아내고 기록한 아시아 레즈비언들의 역사, 브로드웨이의 반아시아적, 반레즈비언적 뮤지컬 <미스사이공>에 대한 항의시위 그리고 <다섯명의 레즈비언 형제들>이란 레즈비언 연극집단. 이 모두에서 우리는 늘 그랬듯이 침묵당하였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어가는 레즈비언들의 살아있는 역사와 조우하게 된다.

### DIRECTOR

진 카를로무스토 Jean Carlomusto 레즈비언 비디오 운동가이자 영화제작자, 작가. 그녀는 80년대 이후 대안적 미디어운동의 산 증인이자 과연이 아닐만큼 중요한 미디어운동 집단의 형성과 활동에 관여하여왔다. 그는 ACT UP, 게이 맨 건강위기(GMHC), 그리고 <한계를 시험하라 Testing The Limits> 그룹같은 여러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그녀는 GMHC의 시청각 전문가자격으로 기용되어 매우 열악한 제작조건과 시설에서 당시 극우보수주의자들의 데마고그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어있던 에이즈와 관련한 미디어 영역을 돌파하는 다양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GMHC의 시청각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GMHC의 에이즈관련 주간 케이블쇼를 진행하게되면서 에이즈운동과 접촉하게되고, 이 과정에서 액트업의 첫 시위현장에서 만난 몇몇 비디오작가들과 담합하여 <한계를 시험하라>를 발족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후 액트업의 활동을 기록하고 방송하며 지방조직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미디어 운동을 전담하게된 액트업의 결연조직 디바티비를 창립하기도 하였다. 현재 그녀는 레즈비언 역사에 관련된 작업에 많은 관심을 쏟고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의사들, 거짓말장아들, 그리고 여자들 Doctors, Liars and Women(Maria Maggenti와 공동감독/1988), <주사바늘 교환에 정통하는 법 Up In Arms Over Needle Exchange(Hilary Joy Kipnis와 공동감독/1988), <현재의 흐름 Current Flow(1990)>, <L은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L Is for the Way You Look(1991)> 등이 있다.

## 그것은 기본 It's Elementary

데브라 채스노프 Debra Chesnoff, 80분, 16mm, Col, 1997, 미국



데브라 채스노프의 신작 도큐멘터리 <기본은 지켜야지>은 이미 97년 주요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았던 장편 도큐멘터리.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게이영화제에서 최우수 도큐멘터리상을 받았으며 노던 라이츠(Northern Lights) 영화제에서 최우수 교육영화상 등을 받았다. 감독 데브라 채스노프는 이미 레즈비언/게이 공동체의 민감한 쟁점들을 목살하지 않고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답변을 끌어내는데 훌륭한 재주를 보여왔다. 게이들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던 획기적 도큐멘터리 "아이들을 선택하라 Choosin Children"이란 영화로 이미 정평이 나있던 퀴어 시네마티테. 그녀는 <치명적인 기만 : 제네랄 일렉트릭, 핵무기 그리고 우리의 환경 Deadly Deception: General Electric, Nuclear Weapons, and Our Environment>이란 영화로 1991년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도큐멘터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베테랑이기도 하다. 그녀는 오스카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커밍아웃을 단행하여 매우 유명하기도 했다.

<기본은 지켜야지>는 다문화교육과정 내에 게이 이슈를 포함시켜야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주목한다. 그녀는 그 논란에 개입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미국 전역의 학교를 돌아다닌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교사들이 반게이적 편견과 맞서싸우고 또 게이들의 비가시성에 저항하는 다양한 모습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레즈비언과 게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설득하는 대목이다. 과연 교사들과 교육담당자들은 나이에 걸맞으면서도 또한 설득력있는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시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걸까.

(1997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금문교상, 샌프란시스코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최우수 도큐멘터리상, 전국 교육미디어 네트워크 실버애플상 등 수상)

"지성적인 감독작업의 전범(빌 스타메츠 Bill Stamets, 국제도큐멘터리)

"재미있는 감동 그리고 흥분을 이끌어내는 영화!(브루스 미르켈 Bruce Mirken, 엘레이 리더 LA Reader)"

"게이, 레즈비언 이슈에 바쳐진 가장 중요한 영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배리 왈터스 Barry Walters,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San Francisco Examiner)"



## 5. 빛의 망명자들, 어둠의 거주자들 : 퀴어디아스포라

퀴어시네마는 자신과 이성애의 차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퀴어시네마는 도리어 더 많은 이미지와 소리들을 자신들의 차이에 쏟아붓는다. 그렇다고 퀴어시네마가 이성애와의 차이에 둔감한 것이 아니다. 되려 퀴어시네마는 바로 그 같음의 울타리 안에서 밀봉된 자신들 내부의 차이를 집요하게 묻고 들여다 봄으로써 이성애와의 차이를 훨씬 민감하게 포착한다. 이런 역설적인 전략의 효과는 무엇일까.

'빛의 망명자들, 어둠의 거주자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차이를 만드는 차이'에 주목한다. 이성애와 동성애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동시에 동성애 내부의 차이를 억압하고 봉쇄하고 침묵시키는 과정이라면 동성애란 범주는 위험하고 폭력적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동성애란 범주가 갖는 대표성 혹은 진정성에 과감하게 질문을 던진다. 그를 위해 우리는 인종과 민족을 성정체성과 빚대어본다. 흑인 게이란 것은, 아시아계 레즈비언이란 것은, 동구권의 게이란 것은, 결국 동성애란 범주로 환원가능하지 않다. 그 모두가 환원될 수 있는 동성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퀴어시네마는 백인 중간계급 게이 남성이 누려온 독점적인 권력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퀴어시네마가 다른 레즈비언, 게이영화와 구별되는 점이다.

## 사이몬이란 호모

### A Moffie Called Simon

존 그레이슨 John Greyson, 15분, 16mm, Col., 1987, 캐나다



사이몬 엔도키 Simon Ndoki는 흑인게이운동가이며 남아공 학생운동의 지도자이다. 이 압축적이면서도 통렬한 실험적인 드라마는 이 학생운동자의 투옥기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게이운동과 반인종분리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심문한다.



## 쿠쉬 Khush

프라티바 파마르, 24분, 16mm, Col, 1991, 영국



'쿠쉬 Khush'는 행복함이나 게이적인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무아경의 쾌락을 뜻하는 인도 우르두(Urdu) 말. 그리고 남 아시아계 레즈비언, 게이들은 자신을 정의하는 말로 이 낱말을 사용하여왔다. 프라티바 파마르는 영국과 인도에서 촬영된 이 영화를 통해 현실세계의 체험과 몽환적인 환상, 인도영화의 장면들, 춤 등을 뒤섞으며서 인도계 레즈비언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서술한다. 서부 남아시아계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인종차별주의와 거부에 시달려왔다. "인도계 레즈비언 영화제작자인 나에게 있어, 음악, 춤의 이미지들, 그리고 정치운동을 통해 우리 삶에 녹아든 기쁨과 쾌락, 그리고 열정이, 모호한 모순들,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전체성, 그리고 신비스럽고 에로틱한 환상 속에서 표현된다는 점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고 파마르는 말한다. 우리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쿠쉬>는 인도계 유색인종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야하는 그녀의 유목민적 정체성을 펼쳐보이는 가장 강렬한 전경임에 분명하다. 이 영화는 1991년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도큐멘터리상을 받는 것을 비롯해 마드리드, 파리 영화제 등에서 잇달아 수상한 바 있다.

### DIRECTOR

프라티바 파마르 Pratibha Pamar 페미니스트, 액티비스트이며 동시에 영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감독. 인도 케냐에서 태어난 영국 런던에서 살았다. 1986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들에 관여하는 다양한 독립 도큐멘터리영화를 제작해온 그녀는 최근에는 영국의 대표적 채널 가운데 하나인 <채널 4>에 방영하기위한 다양한 도큐멘터리를 제작하여왔다. 최근에는 <조디 아이콘 Jodie Icon>이란 작품을 제작하여 주요 영화제에 소개한 바 있다. 유색인종 레즈비언 독립영화감독으로서 그녀의 재능과 성과는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국제 레즈비언, 게이영화제는 1999년 그녀에게 특별기금을 수여한 바 있다. 그녀의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Emergence 1986>, <Sari Red> (1988) <Memory Pictures> (1989), <Place of Rage, A> (1991) <Double the Trouble, Twice the Fun> (1992), <Memsahib Rita> (1994) 등이 있다.

## 더러운 세탁물 Dirty Laundry

리차드 펑 Richard Fung, 30분, 비디오, Col, 1995, 캐나다



중국계 캐나다인 리차드 펑은 다인종사회에서 아시아계 게이로서의 삶과 정체성을 집요하게 탐문하여온 시네아스트. 캐나다 록키산맥을 종단하는 철로는 한 세기전 캐나다에 이주한 중국계 노동자들이 건설한 것. 이 철로를 타고 주인공은 부인되고 매장당한 초기 중국인공동체의 동성애와 자신의 동성애를 잇는다.

유명한 중국계 감독인 리차드 펑의 신작 도큐드라마인 도큐드라마는 중국계 캐나다 이민의 정착의 역사에서 이중적으로 삭제당한 역사를 되짚어낸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싸움이며, 동시에 지금 중국계 캐나다 이민공동체 내에서 게이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성찰이기도 하다. <더러운 세탁물>은 이 모두를 매우 탁월하게 결합시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일은 동시에 현재에 누적된 과거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고 읽어내는 일임을 일깨운다.

<더러운 세탁물>의 주인공은 중국계 이민의 후손인 게이청년.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초기의 중국계 이민이 건설한 철로를 따라 여행을 한다. 하지만 그 여행 중에서 그가 발견한 중국계 캐나다 이민의 역사는 이중적으로 삭제되어왔다. 모두 미혼남이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자식을 고향인 중국에 두고인 이들 초기 중국정착민들은 청교도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캐나다인들로부터 소동농들이라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계 이민의 역사를 새로이 쓰려는 후손들은 그런 역사적 흔적을 말소하고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친밀한 인간관계와 동성애적인 유대를 부인하거나 묵살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부인당한 과거를 파헤치고 다시 읽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중국계 캐나다인 게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다.

(1996 샌프란시스코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1997 인사이드아웃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뉴욕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등 초청)

"미래로 옮겨가기위해 우리는 늘 과거를 설명해야만 한다. <더러운 세탁물>은 19세기의 중국계 캐나다인들로부터 삭제된 성의 무법자들 - 소동농들과 매춘부들 - 의 역사를 다시금 읽어낸다" (도나 퀸스 Donna Quince)

리차드 펑 (Richard Fung)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게이 감독 리차드 펑은 다인종사회에서 비롯되는 인종적 정체성의 문제와 자신의 성적정체성의 문제를 탐색하는 실험 영화와 도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하여 왔다. 아울러 그는 에이즈위기 이후 뉴욕의 게이맨 건강위기 GMHC 센터의 시청각부를 통해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행한 바 있다. 현재 그는 캐나다의 다양한 레즈비언, 게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Chinese Characters(1986)>, <Fighting Chance(1990)> 등이 있다.

### DIRECTOR



## 연꽃자매들 Lotus Sisters

웨이 영 Wayne Yung, 5분, Col, 비디오, 1996, 캐나다



'난 지금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있어', '넌 아시아의 게이여왕이야', 거품처럼 허공 속에서 터뜨려지는 되돌아 오지 않을 듯한 몇마디의 말들. 그리고 서구 백인 게이사회에서 아시아계의 게이로 살아간다는 것. 섹스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

국수집에서 다시 스탠리 공원으로 홈비디오처럼 아니면 홈비디오 흥내를 내는 뮤직비디오처럼 또 아니면 뮤직비디오 흥내를 내는 홈비디오처럼 카메라는 비칠거리느 걸음으로 두명의 아시아계 게이를 쫓는다. 그리고 그 시퀀스들 사이로 마치 훑날리는 종이처럼 "패왕별희"와 "조이 락 클럽"의 장면들이 스며들었다 사라진다. 캐나다의 변방에서 아무것도 기억하고 기록해주지않을 듯한 그들을 스스로 기념하고 추억하는 듯이 이 비디오는 그들의 웃음을 몸짓을 쫓는다.

(1997 캐나다 인사이드아웃 Inside/Out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초청)

## 우유와 물이 섞이면 Blending Milk and Water: 신대륙의 성 A Sex In the New World

폴 웡 Paul Wong, 28분, 비디오, Col, 1996, 캐나다



그들은 모두 가난을 벗어나기위해 캐나다로 온 중국인들. 그들에게 이민으로서의 삶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기회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지에서의 삶은 타지의 섹슈얼리티와의 갈등을 주문한다. 각양각색의 아시아계 이민들이 들려주는 자신의 변천과 갈등, 그리고 그 언어들의 모자이크. <우유와 물이 섞이면>는 서로다른 모습의 18명의 인물들이 섹스에 관한 참여토론에서 스스로없이 털어놓은 자신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둥근 원처럼 이어진다. 젊은이, 교수, 공동체 활동가, 그리고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사이로 비집고들어오는 양식화된 시각적 이미지들과 어울려 이 비디오 테입 속에서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룬다.

(1997 캐나다 인사이드아웃 Inside/Out 국제레즈비언게이영화제 초청)

웨이 영 (Wayne Yung) 캐나다 밴쿠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비디오 제작자, 작가, 연기자.

폴 웡 Paul Wong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비디오작가 겸 큐레이터. 그의 독창적인 작품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여러차례 전시, 상영되었던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주요한 전시를 기획하고 예술관련 센터를 설립운영하였다. 1992년 비디오 예술부문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벨 캐나다의 비디오 예술부문상을 받았고 1996년에는 캐나다 국립미술관에서 그의 주요작품에 대한 회고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프라임 컷 Prime Cuts (1981)>, <유체 Body Fluid (1987)>, <평범한 그림자들, 중국의 그늘 Ordinary Shadows, Chinese Shade (1988)>, <중국놈의 산정 : 산맥등정기 Chinaman's Peak : Walking The Mountain(1992)> 등이 있다.

DIRECTOR



# 그저 그런 결혼피로연이 아니올시다 Not Simply a Wedding Banquet

미키 첸과 밍슈-첸 Mickey Chen and Ming-Hsiu Chen, 50분, 비디오, Col, 1997, 대만



요쟁과 그레이는 대만 주류사회에서 커밍아웃을 감행한 최초의 게이커플. 그들은 1996년 11월 대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게이 결혼연을 열었다. 그들은 쾌활하게도 그것도 대만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결혼식인 결혼연을 치른 것이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여한 이 결혼연에서 둘은 서로가 서로의 남편이 되겠다는 서약을 한다.

요쟁은 대만의 인기있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그렇잖아도 별난 결혼인데다 그의 명성 탓에 그의 결혼 선언은 특목히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과 티비,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들은 반년 동안이나 그 결혼에 관해 떠들어댔고, 타이페이 시장은 그 혼례의 주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이 소동으로 가득한 결혼연은 대만의 게이들 사이에서 적잖은 부러움섞인 기대와 후문을 만들어낸다. 이 비디오는 그러한 과정 전체를 비디오 캠코더에 오롯이 담아 우리의 눈 앞에 재현하여준다.

자칫하면 한평생 가족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할 지 모르는, 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람구실 못하는 줄 아는, 가족과 떠나서 사는 삶을 한치도 상상할 수 없는 사회에서, 결혼이란 동성애자들에게 매우 각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그마한 도큐멘터리는 이 지극히 아시아 게이적인 문제에 얽힌 모두의 갑갑증을 헤쳐갈 지혜를 줄지도 모른다.

## 6. 변신의 만화경

### Kaleidoscope of Metamorphoses

호모들은 예술가들이다. 호모들은 정체성의 예술가들이다.

계급, 인종, 종족, 학력, 육체의 능력, 성별 등등으로 이어지는 정체성은 '딱딱한' 정체성이다. 물론 그것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고, 또 변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도 만만치않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서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들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또 응분의 제재와 처벌을 받기까지 한다. 그 정체성들은 자신을 바꾸는데 그다지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차라리 정체성은 '전통'에 가깝다. 노동자라는 것이나 흑인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에 가깝다.

하지만 퀴어들은 그렇지않다. 그들이 동성애와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있다는 것은 어떤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미의 재료들을 끌어모아 자신을 무언가로 만들어내고 자신을 무언가로 구상한다. 또 그들은 자신을 배척하는 세계와 대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곧 바꾸어낸다. 그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정체성을 가지게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의 사회적 기반이 공동된 경제적 능력, 공동된 정치적 지위 같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퀴어들은 안정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데 대해 불안해 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말라.

결국 퀴어들은 우리가 흔히 일컫는 문화적인 영역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빚어낸다. 그들은 빛과 언어와 이미지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식별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힌다. 퀴어들이 퀴어라는 사회적 존재가되는 것은 또한 동시에 미적 존재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퀴어들이란 예술가임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던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현실세계의 수치스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술, 오직 예술을 통해서 만이다." 호모들은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예술을 사랑하기에 예술가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가꾸고 빚어지고 그려져야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술가였다. 정체성의 예술가들이 호모들에게 축복과 영광있으라!

퀴어들의 감수성은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듦으로써 사회에 또한 통합된다. 수잔 손탁 Susan Sontag 같은 바로 이러한 게이적 감수성과 예술적 삶이 도덕성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도덕적 분노를 중화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도덕의 잣대 위에 올려놓으려 는 말이 건네질 때 아름다움에 대한 말로 그 말을 대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도덕적 비난과 증오를 따돌렸다. 하지만 퀴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왔다는 것은 또한 세계의 인공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퀴어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끊임없이 바꾸고 다시 채워넣음으로써 심지어 이성애마저 인공적인 것이며 알고보면 '척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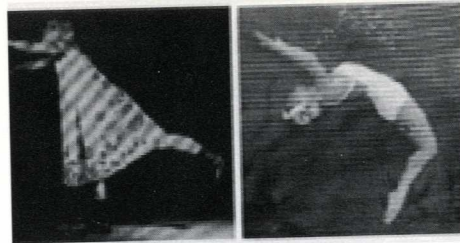
퀴어들은 항상 변신(變身)한다. 그것은 위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들롱날까 두려워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타고난 응고된 정체성이 없기에, 이미 주어진 불변의 정체성이 없기에 변신한다. 그러한 퀴어들에게 음악과 노래와 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퀴어들이 예술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있다는 말은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재치있는 말이기도 하다. 퀴어들은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과 유별난 인연을 맺어야 했다.

퀴어들의 문화는 캠프 camp의 문화이다. 캠프란 과장과 아이러니, 패러디를 통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얻어내는 것이다. 캠프는 키치 kitsch(저속한 것, 평범한 것, 통속적인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얻어내는 것)와는 또다른 풍자와 비판을 실행하는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엔 드랙 Drag을 비롯한 수많은 아름다움의 사슬이 있다. '변신의 만화경'이란 프로그램은 바로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연기하고 실행하는 performing 정체성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냄으로서 존재하게되는 존재들의 무한한 변주이다. 그 변주곡 속에서 퀴어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는다. 노래하고 춤추는 퀴어여, 그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끈다!



## 젖는 것은 위험하다 Dangerous when wet

다이안 본더, Diane Bonder, 8분, b&w, 비디오, 1992, 미국



'젖는 것은 위험하다'는 첫 번째 오르가즘과, 그러한 경험을 묘사할 마땅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학교 수영팀에서 한 소녀는 수영복 입은 친구의 모습, 물속에서 질주하는 동안 눈앞에서 움직이는 친구의 육체, 자신의 신체와 접촉할때의 감촉등을 통해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된다. 화면의 이미지들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욕망을 탐색하는 동안, 내러이션은 그러한 성적자극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의 두려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한다.

(1994년 블랙 마리아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감독상, 뉴욕 새 현대미술관 초청, 로스앤젤리스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보스턴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뉴잉글랜드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The Imagery Award, 1993년 루이스빌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The Merit Award)

### DIRECTOR

다이안 본더 (Diane Bonder)의 비디오들은 많은 국제적인 필름 페스티벌들에 초청되었고, 유명한 미국의 미술관과 갤러리등에서 상영, 전시되면서 여러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1993년 작품인 <파롤 Parole>은 연인을 살해한 레즈비언에 관한 하블록 엘리스 박사의 임상사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실험영화이다. 이 영화는 의학과 심리학의 담론들을 통해서 성적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검증한다. <막대기 얼굴들 Stick Figures>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과, 공유된 호모포비아의 경험에 관해 말한다. '막대기 얼굴들'이란 웃을 입히거나 머리 모양을 다르게 하기전에는 성구별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의미한다.

<파롤 Parole> 1993, <젖는 것은 위험하다 Dangerous When Wet> 1992, <막대기 얼굴들 Stick figures> 1992

## 깨끗한 흐름 Fresh Kill

슈 리칭 Shu Leacheang, 90분, Col., 1994, 미국



수리칭(Shu Leacheang)의 감독 데뷔작인 <깨끗한 흐름 Fresh Kill>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산업자본주의에 대해 치명적인 조롱을 가하는 코메디이다. 종말의 징후가 엄습해오는 뉴욕, 두명의 레즈비언 커플, 사리타와 에린은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유명처럼 떠도는 폐선, 핵폐기물, 썩어 문힐 곳을 찾아 방황하는 죽은 별의 운석들이 지구를 휩쓸기 시작한다.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은 비대하게 성장하다가, 갑작스럽게 모두 사라져 버린다. 하늘이 통째로 열리면서 비누성분의 눈비가 펄펄 내린다. 이 모든 종말의 징후속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딸이 실종된다. 사람들은 알수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과 의미의 전달망은 바벨탑을 쌓아 버린 거대 매스미디어의 왜곡에 의해 단절되어 버린다. 이러한 세기말의 혼돈속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미디어와, 쓰레기를 분출하면서 신과 같이 군림하는 대기업에 대항하여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원래 '죽임'과 '흐름'의 두가지 뜻을 가진 'Kill'이라는 단어는 부패한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의 흐름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세계의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영화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유포하는 미디어와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공격이다.

(1994년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 AFI 비디오 페스티벌)

### DIRECTOR

게릴라적인 비디오감독, 슈리칭(Shu Leacheang)은 영화와 비디오 설치물들의 제작에서 내용과 형식의 관습적인 본리를 거부하는 힘있고 도발적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녀는 1981년 이래로 '종이호랑이 텔레비전(Paper Tiger TV)'이라는 대안미디어의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1989년에 청은 북경을 여행하면서 천안문 사태를 목격했고,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비디오 설치물, <뉴스 만들기/역사 만들기: 천안문 광장으로부터 살아남기 Making News/Making History: Live from Tiananmen Square>이다. 이 작품에서 청은 미국과 중국에서 찍은 장면들을 동시에 교차시키고 그녀의 가족들, 학생들, 군인들의 실제 모습을 담아 대학살의 기록을 재현했다. <전파 계획 The Airwave Project> 역시 개인적인 역사쓰기의 작업이다. <동요하는 욕망의 대상들 Those Fluttering Object of Desire>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비디오 설치물인데, 동전으로 조작되고 들여다 보는 구멍을 가진 비디오 부스들과 전화 섹스 라인들을 연결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비디오 설치물들과 영화들은 거대 미디어의 정보왜곡과 인종차별적인 환경정책에 저항하는 수리칭의 정치적인 의제를 담고 있다. 그녀에게 거대미디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이성애주의, 성차별주의의 비논리적인 언어를 유포하는 바벨탑이다. 또한 환경문제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자각은 특별히 산업폐기물의 제3세계 우송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뉴스만들기/역사 만들기: 천안문 광장으로부터 살아남기 Making News/ Making History: Live from Tiananmen Square> <전파계획 The Airwaves Project> <동요하는 욕망의 대상들 Those Fluttering Object of Desire>, <볼링장 Bowling Alley>



## 흑인이란 것은

### Black is.....Black ain't

말론 리스 Marlon Riggs, 88분, 16mm, Col, 1995, 미국



흑인다움(blackness)이란 무엇이며, 흑인답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인종적 집단에 통일된 정체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단일한 인종적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내부의 소수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또다른 폭력이 아닌가? 말론릭스의 마지막 유작, <흑인이란 것은 Black is .....Black ain't>이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들이다.

흑인이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이래로 몇세기동안 백인들은 '흑인다움'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정의들을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정의 속에서 모든 흑인들은 야만적이고, 심지어 식인종이라는 스테레오타입들이 믿을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초기의 흑인 정체성이 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적이고 왜곡되며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흑인 정체성을 주장해 내는 것은 수많은 흑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영화속에서 안젤라 데이비스는 흑인 스스로의 정당한 명명과정의 얼마나 시급한 것이었는지에 관해서 말한다.

"우리들 삶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붙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긍정적이면서 새로운 흑인 정체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반화들이 흑인집단 스스로에 의해서 부과되기 시작했다. 어떤 행동들, 말하는 방식들, 사회적인 실천들, 심지어 특정한 복장이 미국계 흑인들에게 '가장 흑인다운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다른 것은 백인 같은 것으로 비난받았다. 흑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고,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 내부에서 덜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집단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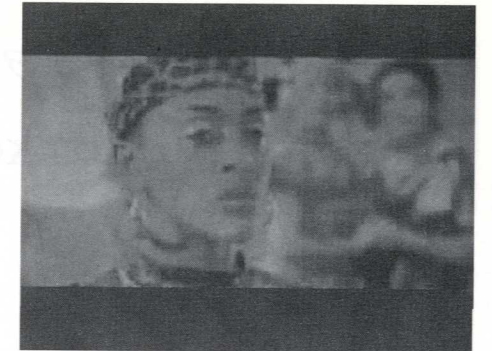
<흑인이란 것>에서 말론 리스는 단일화된 흑인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갈등의 상황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리스는 흑인 정체성의 복잡성을 재현하기 위해 더욱더 시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전통적인 내러티브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의 카메라는 도시, 시골, 중간계급이 사는 교외등으로 옮겨 가면서 관객들을 젊은, 늙은, 부유한, 가난한, 게이, 이성애자들의 다양한 흑인집단 내부로 데리고 간다. 흑인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계급, 종교, 성적정체성들은 이들이 단일한 집단일 수 없음을 역력히 보여준다. 또 감독은 흑인 문화의 풍부함을 말하기 위해 다양한 흑인 예술가들의 공연모습을 담는다. 결국 리스는 단일한 흑인정체성의 주장들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주의, 호모포비아, 보수적인 실천들에 우리가 직면하도록 한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 '흑인은 아름답다'는 주장들이 실제로는 '흑인 남자가 아름답다'는 주장이었으며, 흑인 인권운동이 너무나도 자주 '흑인다움'을 '남성성'과 동일시했고, 여성들을 소외자나 성적인 대상으로 치부했다고 주장하는 몇몇의 여성들이 카메라에 담긴다. 또한 흑인집단의 단일한 정체성 형성에는 교회가 있었다. 흑인 정치 지도자들은 종종 흑인 교회로부터 나왔고, 교회의 흑인해방운동가들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관객들은 <흑인이란 것은>을 통해 전통적인 흑인 교회의 교조주의가 동성애를 억압하는 호모포비아로 가득차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영화의 많은 부분들에서 감독인 말론 리스의 직접적인 자기체험들을 발견한다. 말론 리스는 게이이자, 에이즈에 걸린 흑인 남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소외를 느끼게 해준다. 핏기없는 얼굴과 마른 몸뚱아리로 보조기계에 묶여 정맥주사를 팔뚝에 맞으면서, 리스는 우리의 눈앞에서 쇠락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엄습해 오는 죽음의 위협속에서도, 그는 한 사람의 게이이자 흑인이었던 가장 구체적인 자기정의를 위해 병원침대에서까지 이 영화를 계속 만들고 감독하였다.

"하나의 고정되어 있거나 결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주장하기 보다 우리들 각자가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살아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단일한 흑인다움의 모델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하며,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삶이 광범위하며, 역동적이며, 즉흥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수락해야만 한다. 단일한 정체성의 모델은 그렇지 않은 집단을 집단외부로 소외시키고, 게토화되어 버린 그런 집단들을 단죄할 수 있는 도덕률을 만들어낸다. 즉, 단일한 흑인다움의 모델은 언제나 중산층의, 남성우월적인, 가족중심적인 흑인다움을 주장해왔고, 그속에서 흑인 게이들은 가장 소외된 집단이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집단이었던 것이다."(말론 리스)

## 레스보스 섬 Isle of Lesbos

제프 하몬 Jeff B. Harmon, 98분, 35mm, Col, 1996, 미국



너무나 악취미적이고 너무나 불손하기 짝이 없는 <레스보스 섬>은 우리의 여전사 애피 퍼켓의 대모험과 역정을 그린 엉망진창 뒤죽박죽 레즈비언 환상 뮤지컬, 혹은 레즈비언 판 오즈의 마법사. 작은 시골마을 범벅에는 오천마리의 소와 만마리의 돼지와 한 마리의 말과 삼백명의 백인노동자들이 산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믿고 클린턴 대통령을 숭배하고 소수집단을 미워한다. 또 그들은 단지 아이들을 낳기 위해 사랑을 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보수적인 마을에 사는 애피 퍼켓은 고등학교때의 바보같은 애인과 결혼하기 보다는 죽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녀는 레스보스 섬으로 휩쓸려 간다. 시골마을에서 흥청망청하고 요란스러운 레스보스 섬으로 날아온 소녀는 섬의 여왕인 불 다이크(bull dyke)의 애인이 된다. 다이크 여왕과 그녀의 경박한 일가들이 공중을 향해 다리를 차올리며 춤을 추고, 오로지 다이크만을 위한 맥주를 마시며, 흥청망청 취해서 부르는 레즈비언 찬가가 요란한 레스보스섬! 마침내 애피 퍼켓은 이곳에서 그녀의 진정한 고향을 발견한다. 그러나 과격하고 무식한 퍼켓의 약혼자는 그녀의 새로운 행복에 분개하고 이 사포의 요새를 공격하려고 한다. 마침내 범벅의 보수주의자들은 레스보스 섬을 향해 핵폭탄을 발사하는데...

(1997년 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할리우드 뮤지컬의 황금시대로 부터 영감을 얻은 하몬은 웃기고, 위반적이며, 날카로운 저예산의 명작을 완성했다." (오웬 레비(Owen Levy), 무빙픽처매거진(Moving Pictures Magazine), 1997, 2,17)

"당신이 '오즈의 마법사'에다 '룩키 호로 픽쳐쇼'를 덧붙이고, 거기에 존 워터스 영화의 어떤 요소들을 결합한다면, 아마 '레스보스섬'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레즈비언들이 '캠프적'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영화를 꼭 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은 이 영화의 티켓을 사라. 나는 당신이 적어도 한번은 열렬한 갈채를 보내면서 노래를 하지 않고서 그 극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한다.(메건 레드클리퍼(Megan Radclyffe), 타임아웃매거진(Time Out Magazine) 1997, 3, 19-26)

"마침내, <룩키 호로 픽쳐쇼>는 그것의 합법적인 계승자를 발견했다. 생생한 칼라, 괴짜같은 웃차림과 행복에 가득찬 노래가 이 기괴한 쇼에 뮤지컬 황금시대의 야함과 매력을 준다. (팁매거진 Tip Magazine(Berline), 1997, 2, 6-19)

<레스보스 섬 Isle of Lesbos>은 제프하몬(Jeff Hamorn)의 첫 번째 장편영화이다. 제프하몬은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는 기사를 쓴 전쟁 특파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20년동안 엘살바도르와 이라크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어 왔고 많은 상을 받았다. 현재 43살인 그는 그의 전력을 아는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갑작스럽게도, 1940년대의 테크노컬라 스타일의 레즈비언 뮤지컬, <레스보스 섬>을 만들었다.

"저널리스트로서 나는 BBC, 채널 4, 내셔널 지오그래픽 텔레비전으로부터 5개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불러 일으키는데 관심이 있다"

"나는 할리우드 해피 엔딩 전통을 믿으면서 내 영화의 낙관주의를 선언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단지 게이 아님이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영화의 메시지이다. 너무 많은 게이 영화들은 비극적이다. 그것들은 죽음, 질병, 애처로운 운명에 대해서만 말한다. 나는 그러한 영화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고, 게이관객들을 지향하면서 오직 커뮤니티에만 호소하는 게토피름들이라고 생각한다. <레스보스 섬>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제프 하몬)

<레스보스 섬> 1996, <사담의 이라크Saddam's Iraq> 1991, <아프칸 Afgan> 1989, 그외 다수의 다큐멘터리 작품들

DIRECTOR



## 고양이 잉꼬를 삼키고 말하다 Cat swallow Parakeet and Speaks!

일레나 피에트로브루노 Ileana Pietrobruno,  
75 분, 16mm, Col & b&w, 1996, 캐나다



고양이 잉꼬를 삼키고 말하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아리송한 제목? 그러나 당신은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전혀 없다. 여성육체에 대한 삼류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과장된 기사들과 (당신은 아마 해외 토픽지에서 너무 많이 써서 죽은 후, 자신의 집 문을 부수고서야 겨우 시체가 나올 수 있었다는 뚱뚱한 부인의 기사에 대해서 읽어 보았으리라), 여성의 육체를 시도 때도 없이 노려보고 견주어 보는 사회의 부조리한 시선들에 대한 비유일 뿐이니까.

젊고 아름다운 모델, 세헤라자데는 위궤양으로 쓰러져 음산하고 기괴한 병원으로 실려온다. 그녀는 옆침대에서 죽어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의사 스토리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그가 자신을 죽여 버릴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진다. 신기한 이야기거리를 찾으려던 세헤라자데는 싸구려 신문들의 온갖 가십거리를 믿는 거식증에 걸린 발레리나 지망생 코어와 친해진다. 아라비안 나이트 설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여성 육체를 스테레오타입화하고 착취하는 선정적인 미디어와 가부장적인 의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시도하는 이 작품은, 초현실적인 영상과 사운드로 이루어진 실험영화이다.

(토론토 국제 필름 페스티벌, 캘커타 국제 필름 페스티벌, 몬트리올 뉴보 시네마 필름 페스티벌, 로스앤젤리스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북서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심사위원상 (그외 다수))

"피폐한 정신병원에서 한 페미니스트가 벌이는 기괴한 유희. 일리어나 피에트로브루노(Ileana Pietrobruno)의 <Cat swallows Parakeet and Speaks!>는 여성육체에 관련된 사회적 태도들에 대한 모던하고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세헤라자데(Scheherazade)를 통해 타블로이드 신문의 이야기를 다시 말함으로써, 부권적이고 불공정한 의학에 저항하고자 노력한다. 레즈비언들, 거식증, 시체애호증, 생리등의 문제로 가득찬 이 작품에서 감독은, 심지어 가장 설익은 페미니스트들조차도 그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우화 한편을 만들었다.(Exclaim!, 1996, 10)

"이 영화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전설을 초현실적인 페미니스트의 개작으로 바꾸어 놓았고, 배우들의 명연기와 흑백, 칼라의 아름다운 화면 조화가 돋보인다. 부분적으로는 페미니즘적인 내용, 부분적으로는 초현실적인 꿈, 부분적으로는 공포영화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이러한 환각적인 첫 번째 장편을 통해 우리는 피에트로브루노가 전도 양양한 감독임을 알게 된다."(Liz Czach, Perspective CANADA)

"영화의 첫장면이 시작되자 마자, 당신은 아방가르드적인 공격에 움찔한다.....타블로이드 신문의 선정주의, 여성육체에 대한 사회의 좁은 시각, 그리고 자매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미묘하지만 정직한 이야기이다." (켈리 M. 브라이언 (Kelly M. Bryan), 저스트 아웃(Just Out), 1996, 12,1)

### DIRECTOR

일리어나 피에트로브루노(Ileana Pietrobruno)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밴쿠버의 독립영화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그녀의 단편 드라마 <지온의 자매들 Sisters of Gion>은 캐나다 학생부문 최고실험영화상을 받았다. 1990년대에 그녀는 45분 짜리 단편드라마 <칠리웍 공주 Chilliwack Princess>를 만들었고, 이 영화는 유럽과 미국의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그녀는 최근에 첫번째 장편 <고양이가 잉꼬를 삼키고 말하다 Cat swallow Parakeet and Speaks!>를 연출했고, 이것은 언더그라운드 영화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흥행하였다. 필모그라피 <고양이가 잉꼬를 삼키고 말하다 Cat Swallow Parakeet and Speaks!> 1996, <나르시시스 Narcissus> 1996 Yorkton Film Festival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동물원 Zoo> 1992, <칠리웍 공주 The Chilliwack Princess> 1990, <지온의 자매들 Sisters of Gion> 1987, <스페이스인 Spacing-in> 1984,

## 지상최대의 낙천주의자들: 호모코믹스 Homocomics

퀴어 애니메이션 / 뮤직비디오 모음



### ★ 맹목적인 아름다움(Beauties without a cause)

데이비드 웨이스만 David Weissman, 7분, 16mm, Col, 1986, 미국

'돈을 갖고 튀어라! 트랙퀸들아!' 당신은 이 영화에서 은행털이와 경찰들간의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장면의 서스펜스가 펼쳐지리라고 기대할지도 모르지만...어떤 화면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지는 당신의 상상에 맡김. 지상에서 가장 설령한 범죄!!!

데이비드 웨이스만(David Weissman)은 <맹목적인 아름다움 Beauties without a Cause>외에, 선정적인 전화 섹스 광고를 응용해서 만든 에이즈 광고들이 펼쳐지는 <976>과,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샌프란시스코의 인기배우이자 댄서인 로드니 프라이스의 마지막 노래를 담은 <한 천사가 부르는 노래 Song from an Angel>를 만들었다.

### ★ 평균률 (Law of Average)

제임스 다우징 James Duesung, 14분, 비디오, Col, 1996, 미국

모든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원이 있다. 이 이상한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푼의 동전만 넣으면 된다. 화려한 색채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신비하고 상징적인 내용과 함께 펼쳐진다. (1997년 샌프란시스코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제임스 다우징(James Duesung)의 잘 알려진 컴퓨터 애니메이터인 그의 캐릭터들은 워너 브라더스사의 작품에 인용되기도 하고, 국제적인 필름 페스티벌과 전시회에서 널리 상영되었다.

<Impetiga> 1983, <유산 : 살아숨쉬는 문서저장고 Legacy : A living Archive> 1984, <잠깐만 Just a Minute> 1985, <Midwestern Skidmarks> 1986, <Tugging The Worm> 1987, <텔레비전 새장TV CAGE> 1988, <맥스웰의 악마 Maxwell's Demon> 1991, <평균률 Law of Average> 1996.

### ★ 알다가도모를 게이 2인조 (Ambiguously Gay Du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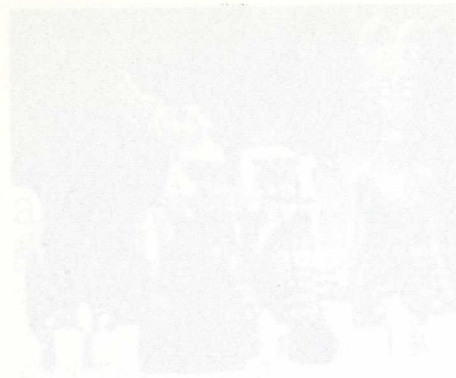
제이제이 세덜메이어 JJ Sedelmeier, 12분, 비디오, Col, 1997, 미국

이상야릇하게 서로 친한(?) 게이 이인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다! 미국에서 토요일밤의 텔레비전 코믹시리즈물로 방영되었던 이 유쾌한 애니메이션은 <비비스와 버터헤드>를 제작한 제이제이 세덜메이어 프로덕션의 작품. 매회마다 등장하는 악당들의 궁금증은 단 하나. '과연 눈에 가시같은 슈퍼맨 2인조는 게이일까? 아닐까? 오늘도 그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작전을 망치는게 아닐까?' 그러나 악당이 있는 곳에 게이 2인조가 있다. 여지없이 나타나 힘을 합쳐 악당을 물리치는 게이 이인조. 승리를 자축할때 빼놓지 않는 말.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  
<1편 : 탱고를 추려면 둘이 필요하다> <2편 : 공포의 여왕> <3편 : 우리 지금하자 아니면 영원히 못해> <4편 : 게이 2인조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는다>

(1997년 런던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제이제이 세덜메이어는 1991년 뉴욕에 제이제이세덜메이어 프로덕션을 차렸고, 최근 몇 년동안에 미국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했다. 파격적인 내용과 지속적인 언어로 최근 인기와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MTV의 <비비스와 버터헤드 Beavis and Butt-Head>도 제이제이 세덜메이어 프로덕션의 작품이다. 또 NBC의 정치시사 풍자만화인 <토요일 밤의 라이브 Saturday Night Live>와 저퍼니메이션 스타일의 <스피드 레이서 Speed Racer>가 주요한 작품이다. 제이제이 세덜메이어의 애니메이션 제작소는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많은 상을 받았다. 최고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위한 ASIFA Hollywood's Annie Award, 뉴욕페스티벌 황금 메달상, 방송프로듀서상, IBA 상.





### ★ 메이데이(Mayday)

#### ★ 밤 이숙히(Late at Night)

Stefanie Jordan, 2분, 비디오, Col, 1997, 미국 / Stefanie Jordan 외, 4분 29초, 35mm, Col, 1997, 독일

이토록 시적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가? 아름다운 색채와 감미로운 음악. 늦은 밤 길길을 잃은 나그네의 서러운 비명이 애틋하다.

(1995년 :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 제 1회 유럽 여성 단편 필름 페스티벌, 베를린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제 10회 런던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카디프(Cardiff), 그외 다수)

스테파니 조단(Stefani Jordan)은 1965년 독일 만하임에서 출생. 샌프란시스코 아트 연구소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포츠담에 있는 영화 & 텔레비전 학교인 "Konrad Wolf"에서 애니메이션 공부한 후, 영화와 비디오 제작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중이다. <A Few Fast Frames> 1990, <Jesses Maria> 1993, <Mayday> 1995, <Crude> 1996, <Late at night> 1997.

### ★ 나의 달 그녀의 세상 (My moon Her world)

Vicky Smith, 7분, 16mm, Col, 1997, 영국

화려한 색채의 화면속으로 감미로운 사랑노래가 울려 퍼진다. 실험적인 정치화면이 돋보이는 작품

(1996년 1997년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 ★ 아킬레스(Achilles)

Barry Purves, 11분, 35mm, Col, 1997, 영국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와 페트로클러스의 사랑이 웅장한 그리스 서사시로 읊조려지는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답고 에로틱한 크레이 애니메이션.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이, 추방된 삶이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1996년 바르셀로나 필름 페스티벌 관객상, 플로리다 필름 페스티벌 애니메이션상, 히로시마 심사위원 특별상, 드레스덴 이등상, 투린 게이 & 레즈비언 페스티벌 관객상, 1995년 :빌바오(Bilbao) 애니메이션 부문 은메달)

베리 J.C 퍼브스는 BBC와 채널 4에서 상영된 <리굴레토 Rigoletto> 1993, <아킬레스 Achilles> 1995, <화성침공 Mars attacks> 1995, <깃털 Feather>, <헤리 - 순진무구한 공무원> <그리스인들 The Greeks>을 제작 감독했다.

### ★ 진짜 널 원했어 I really wanted You

Anjali Sundaram, 2분 30초, 비디오, Col, 1997, 미국

퀴어 펑크밴드 팬지 디비전(Pnasy Division)의 시원한 뮤직비디오. "해변에 누워있던 너의 검게 그을려 매력적이던 몸매. 그토록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밤..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널 채 가버렸어..그리고는 너와 결혼한다니...난 믿을 수 없어..난 정말 널 원했는데...". 팬지 디비전의 노래, "진짜 널 원했어"가 들리는 동안...호모에로틱한 사랑이 여름날의 풍경과 함께 펼쳐진다.

팬지디비전 (Pansy Division)은 호모코어로 전향한 후, 활기찬 호모펑크의 스매시 히트송 <Bill and Ted's Homosexual Adventure>과 <Smell like Queer Spirit>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들은 1994년 가을 펑크 팝스타 그린데이의 전국투어를 서포트하면서 시골 펑크 밴드의 묶은 띠를 벗고 미 대륙 전역으로부터 초점을 한눈에 받는 호모펑크의 대명사가 되었다.

### ★ 퀴어코어(Queercore)

Sott Treleaven, 21분, 비디오, b&w, 1997, 미국

퀴어코어란 80년대 후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캐나다의 토론토 등지에서 잇달아 등장한 레즈비언, 게이 멤버들로 이루어진 펑크록 밴드. 퀴어밴드가 펑크록으로 다시 쓰는 퀴어들의 역사!

### ★ 에이디에스 전염병 Ads Epidemic

John Greyson, 4분, 비디오, Color, 1997, 캐나다

에이즈의 잘못된 표기가 아니냐고? 절대아님. 에이디에스 전염병은 후천성 섹스공포증...뮤직비디오 형태의 이 작품은 보수적인 에이즈 시대를 신랄하게 비꼬는 존그레이스의 유쾌한 농담

### ★ 샤를렌느의 천사단(Charlene's Angels)

Donna Quince, 10분, 비디오, Color, 1996, 캐나다

샤를렌느의 천사단(Charlene's Angel)'은 위험에 처한 레즈비언 친구들을 구하는 레즈비언 천사단. 어느날 '카렌의 천사단'으로 한통의 전화가 온다. 전화의 내용은 자신의 애인이 악명높은 레즈비언 테러단인 BALUAS에게 납치되어 폭행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 샤를렌느의 천사단은 발루아스의 소굴로 잠입하는데.... 아마조네스의 후예들인 레즈비언 바비인형들의 활약상이 통쾌하게 펼쳐진다.

(시카고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아틀란트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언더그라운드 미니 페스트, 로스앤젤레스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멜버른 퀴어 필름 페스티벌, 오스트레일리아 이미지 필름 & 비디오 페스티벌 외 다수)

도나 퀸스(Donna Quince)는 카르튼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오타와 대학에서 비주얼 아트를 전공했다. 다수의 페스티벌에서 코디네이트와 큐레이트로 활동 중이다.



## 7. 에이즈 쇼 AIDS SHOW

서울 퀴어영화제는 주저없이 제1회의 특별 프로그램을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미련과 후회도 없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이렇듯 무모하고 낮은 선택과 결정을 내린데 대해 스스로 너무나 행복하며 또 대견하다.

우리는 퀴어시네마의 일차적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에이즈라고 생각한다. 성이 죽음과 연결되는 시대에 에이즈는 자리했고 또 그 시대를 장악했다. 적어도 서구사회에서 섹스와 섹슈얼리티는 에이즈를 경유하지않은 채 생각될 수도 말해질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결국 성이 만들어놓는 의미의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식별하고 긍정해야했던 레즈비언, 게이, 또 다른 성적 소수집단에게, 에이즈는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야할 세계의 출발점이었으며 종착점이었다. 에이즈는 섹슈얼리티를 생각하고 체험하는 의미의 지평이었으며, 무엇보다 퀴어들로 하여금 다시금 저주받게된 자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에이즈는 재앙이었기보다는 퀴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의 욕망과 육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저항하도록 한 축복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설을 되새기고자, 그리고 퀴어시네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역사의 시선 속에 되돌리고자, 에이즈와 그에 대한 퀴어시네마의 개입에 주목한다.

결국 나중에 에이즈란 이름을 얻게될 의료적 현상이 발견되고 풍문을 떠돌게된 것은 1981년이였다. 잘 알려졌듯 일군의 게이남성들에게서 후천적인 면역 관련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고, 그 임상사례들의 특성 탓에 에이즈는 동성애와 직결되었다. 그 결과 80년대 초 에이즈는 현대 의학의 담론 가운데 가장 무모하고 또 가장 의미심장한 소동을 만들어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암 Homo's cancer' 라거나 "GRID(Gay related Immune Disease)" 같은 흉흉한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 진단과 해석을 반갑게 받아들이기 기독교 우파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시무시한 묵시록적 예언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하나의 질병이 한 집단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또 그렇게 부여한 정체성에 의해 그 집단을 정의하고 탄핵하며 저주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동성애는 병이었고 재난이었고, 위험이었고, 타락이었으며, 퇴폐였고, 악이었고 결국엔 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섹슈얼리티와 질병의 담론과 사회적 규범과 정치를 한줄로 잇는 이음줄이 되었다.

80년대 수많은 애칭을 가진 자들, '신 청교도', '도덕적 다수파', '우익 근본주의자', '보수우파'들은, 에이즈에 영향을 받은 일차적 주요집단이었던 동성애자들을 악의 화신으로 몰아붙임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난처해하던 70년대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출구를 찾았다. 60년대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서 폭발했던 성의 혁명은 가족, 친족 체계, 결혼, 이성애, 성역할 등 성을 둘러싼 모든 문화적 규범과 질서를 뒤흔들어놓았고, "휘청거리던 60년대 swinging 60's"를 지나 70년대에는 대중들의 삶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은 물론 새로운 여성주의의 물결과 레즈비언, 게이해방운동의 약진이었다. 이들은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의 모든 철칙에 도전을 시도했고 이는 많은 이들이 당연하고 또 불변적이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회의하고 거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에이즈는 이러한 모든 변화에 중지부를 찍는 듯 했다. 그들은 70년대 이후의 대안적 생활양식이나 새로운 공동체 모델, 변화된 성의 관습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에이즈를 통해 그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과 공포를 만회할 기회를 마침내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가족의 가치와 전통을 회복함으로써 타락과 퇴폐의 70년대로부터 비롯된 대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를테면 극우보수주의의 대변자인 강리치는 의회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연설했다. "에이즈는 미국이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있으며, 오래 접했던 것과 다른 특별한 성행동이 어떤 위험을 가졌던 가를 비로소 깨닫게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에이즈란 거대한 표어이다."

그렇지만 에이즈와 아무런 직접적 연고도 없는 무고한 동성애자 남성을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아부친 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간단했다면 우리는 그저 진실의 법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정정하는 판결을 얻어내는 것으로 족했을 것이다. 에이즈와 우리는 무고하다. 우리를 그 허위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라. 하지만 에이즈는 이미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있었다. 에이즈는 성과 문화를 둘러싼 동시대의 인식과 체험 모두에 깊숙이 스며든 에테르였다. 그것은 80년대 이후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있었고, 따라서 에이즈는 단순히 의료적 사실이 아니며 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만도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의 문제였으며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에이즈는 세상을 송두리채 뒤바꾸어 놓았다.

먼저 에이즈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인 생각을 허물었다. 에이즈는 질병을 보유한 환자와 그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의사, 공중보건담당자, 사회사업가 따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지않고, 한 사회를 이를 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정치적, 문화적 질문으로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심지어 사회 전체를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간 한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질병이 성과 사회를 잇는 무수한 고리에 눈을 뜨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에이즈와 둘러싼 담론이 주요한 표적으로 삼았던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이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동성애자들은 병리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간단한 가설에 의해 단번에 위험집단 risky group으로 정의되었고, 80년대 이후에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질병과 육체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정체성이 그들의 일차적인 정체성이 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섹스를 하는지, 그들이 몇 번이 섹스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파트너를 만나는지가 에이즈란 질병의 감염과 확산에 대한 정보가 되었고, 동시에 그것은 동성애 정체성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레즈비언, 게이들에게 충격이 되었다. 그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였던 지난 시절의 싸움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는 와중에 그들이 누락시켰던 결정적인 질문 즉 동성애란 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체험되는가를 생각할 기회를 잃고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거부도 머무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동성애란 한결같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힘들과 주장들이 엮여있고 뒤섞이며 정의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되고 또 동성애의 진실을 장악한 힘에 의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지배의 규칙과 질서 또한 만들어지게 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에이즈는 동성애자에 닥친 느닷없는 불행도 우연한 재앙도 아니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잊고있던 지난 몇세기 동안의 동성애에 대한 지배의 형식과 절차를 압축하여 상연하는 하나의 무대였으며,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즈의 위기에 분노하여 일어난 수많은 풀뿌리운동은 에이즈로부터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에 머물지않았다. 1992년 레즈비언, 게이해방운동의 퀴어운동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엑트 업 ACT UP>이 발족했다. 그리고 뒤이어 <레즈비언 보복자들 Lesbian Avengers>과 <퀴어 네이션 Queer Nation>과 같은 90년대산 퀴어조직들이 아래로부터 생겨났다. 이들은 에이즈 위기가 열어놓은 질문을 에이즈란 질병에 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동성애정체성과 그들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 과거에 대한 이해 속으로 끄집어넣었다. 그들은 백인 게이 남성에게 의해 정의된 획일적이고 패권적인 게이정체성에 의문을 가하고 다양한 레즈비언, 게이정체성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터득한 차이의 정치에 바탕하여 8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꾀하는 모든 담론에 자신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거칠게 정리한 에이즈 위기와 그 이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화의 움직임, 차라리 영화의 떨림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그들은 아무런 숙련도 없이 또 아무런 재원도 없이, 비디오 카메라로 순간의 장면들을 기록했고 또 보고했다. 그들은 오르렁거리며 싸움을 벌이는 진실들 속에 파고들었으며, 지금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언어를 반박하고 부인하는 또다른 진실의 편에서 관조가 아니라 개입하고 실천하는 비디오를 찍었다. 이들은 에이즈에 개입하고 에이즈를 새로운 인식과 체험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데 전력했다. 그들은 에이즈위기에 맞서 싸우던 투사들의 대열 속에서 비디오를 찍었고, 그렇게 찍은 비디오를 그날 밤 케이블티비를 통해 긴급 방송했으며, 다음날 그 비디오테이프를 토론모임으로 운반해 동성애자들과 함께 에이즈와 자신들의 삶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에이즈를 에워싼 삶의 공간을 셀룰로이드 화면으로 옮기면서 에이즈와 동성애 사이를 잇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냈고, 이미지와 표현과 언어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그 와중에서 싸움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죽어가는 이를 돌보았으며, 영화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지, 그들의 육체와 욕망을 어떻게 체험하도록 하는지를 배웠다.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은 결국 퀴어시네마의 한켠에 자리잡은 퀴어시네마의 하위 역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퀴어시네마의 역사를 가능케하고 움직였던 열정의 원동력이며, 또 퀴어시네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전제하고 구성했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퀴어시네마의 역사 속에서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1. 침묵은 죽음이다 :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특별 프로그램 I)  
Solence Is Death : A Tribute To AIDS Video Activism(Special Program I)

침묵은 죽음이다! 제1회 서울퀴어영화제의 퀴어시네마에 대한 가장 단호한 입장 가운데 하나는 퀴어시네마는 에이즈 시대의 동성애에 관한 영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에이즈 비디오운동을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그것은 서울 퀴어영화제가 제기하는 퀴어시네마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입장'을 보여준다.

에이즈 비디오 운동의 역사는 80년대 이후 불붙은 대안적 미디어 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5-60년대의 제3영화와 뉴 아메리칸 시네마, 70년대의 도큐멘터리 및 민속지 필름제작, 소수집단 영화의 발달(흑인 및 여성영화운동의 활발한 전개)은 모두 기존의 영화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출발했다. 물론 이는 주류 영화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공동체를 재연하지 못하는 데 대한 거부와 저항의 의지만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었다. 영화산업은 동시에 산업영화이다. 그것은 엄청난 기술과 자본이 투여된 거대한 자본의 투기이며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새로운 재생산양식을 부여하는 순환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대안적 미디어운동은 산업영화에 맞설 수 있는 기술의 개량과 보급을 밀바탕으로 한다. 그 가운데서도 8-90년대의 영상기술의 발전과 저렴화, 경량화, 대중화는 토착 미디어 및 캠코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한 조건에 바탕해 출발한 80년대 이후의 대안적 미디어운동은 퍼블릭 액세스 케이블 티비 public access cable TV의 확산과 더불어 증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적 미디어운동 가운데 에이즈 비디오 운동 역시 존재한다. 에이즈 비디오 운동 역시 대안적 미디어운동이 겨냥했던 모든 목표를 공유한다. 그 역시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접근과 통제가 모두 봉쇄되고 단방향으로 융단폭격되는 미디어 산업의 모든 폐해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은 물론 프로그램의 편성과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대안적인 언어와 체험,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영유한다는 미디어운동의 목표처럼, 에이즈 비디오 운동 또한 주류 매체에 의해 유포되고 정의되는 에이즈의 진실들을 재평가하고 재정의했다.

에이즈 미디어라 부를 만한 것의 역사는 물론 에이즈 비디오 운동 이전에도 존재했다. 주류미디어는 에이즈가 발견되었던 즈음부터 지속적으로 에이즈에 관한 보도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1981년 그 병이 발견된 직후 여러차례 그 질병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1982년 에이즈란 이름으로 그 질병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그 질병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나 존재하는 질병으로 간주되었을 뿐 '대다수 시청자'가 무관심한 그 질병은 좀체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 매체들에 의한 에이즈의 회색양화에 저항하는 에이즈 감염자들의 조직이 출현하고 그들은 에이즈 미디어운동의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이들은 에이즈를 질병으로 그리고 그 감염자를 환자로 정의하는 주류 미디어에 맞서 그들을 지칭하는 환자란 명칭을 거부하고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PWAs: People With AIDS)'의 공동체로 정의한다. 그것은 에이즈로 인해 죽어가는 재난의 사람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라는 특별한 삶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신을 정의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해 스스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또 그에 근거하여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1985년 미국의 국민배우 '록 허드슨'의 죽음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도록 부추긴다. 게다가 매마침 에이즈는 동성애와 무관한 것이란 점을 증빙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보고되었다. 게이 남성 그리고 매춘여성과 마약주사 사용자들이 연루되었던 에이즈가 혈우병환자들과 같은 이성애자들에게 의해 발견되면서 이른바 이성애적 에이즈 heterosexual AIDS가 탄생하고 에이즈는 탈게이화 de-gay 된다. 게다가 이성애자 여성들에게도 역시 에이즈가 발병한다는 사례가 발표되면서 에이즈를 둘러싼 미디어의 보도와 관심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대안적 에이즈 미디어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작업은 바로 이 때부터 시작한다. 영국의 채널 4를 위해 제작된 스투어트 마셜 Stuart Marshall의 <브라이트 아이즈 Bright Eyes>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제외하면 주류미디어의 바깥에서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접근을 시도하는 예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게이남성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족했던 게이멘 건강위기 Gay Men's Health Crisis 센터는 게이남성들을 대상으로한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해 비디오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시에 불어닥친 에이즈의 탈게이화가 가진 역설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었다. 에이즈의 탈게이화는 에이즈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란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에이즈와 동성애자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결과를 빚어놓았다. 에이즈는 동성애와 병리적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님에 분명하지만



동성애자의 공동체와 그들이 수립한 생활양식에 따라 특별한 예방과 대책, 그리고 이해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변화된 상황은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며 마련된 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한 활동에 거의 할애하지 않았다.

결국 에이즈가 '일반적인' 사회의 의제가 됨으로써 동성애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님을 인정받게되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그 질병을 적절히 예방하고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에이즈 비디오 운동가들과 에이즈운동집단은 다시금 에이즈를 탈게이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것은 에이즈를 동성애 정체성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를 게이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연관시킴으로써 동성애자공동체에 적절한 에이즈 예방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에이즈 위기가 파문했던 동성애자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공공연히 토론하고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자기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덕적인 게이와 비도덕적인 게이, 문란했던 전세대의 게이와 그 게이 세대의 피해자인 신세대 게이 사이의 구분을 만들어내면서 게이공동체를 자칫 퇴행적이고 보수화시킬 수 있던 당시의 정세는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당시에 들불처럼 번지고있던 새로운 세대의 퀴어운동과 그들이 대변하던 퀴어공동체의 변화된 정체성에 의해 지지되었다. 전 세대의 문란하고 위험천만한 생활양식을 청산하여야한다는 패배적이고 자멸적인 주장은 게이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대체되어야 할 뿐이라는 이해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에이즈 비디오 운동은 탁월한 기여를 한다.

방금 언급한 GMHC의 시청각부에서 제작한 일련의 비디오와 그에 뒤이어 발족한 에이즈 비디오운동 조직인 <한계를 시험하라 Testing The Limits> 그룹에 의한 비디오 작업, 그리고 액트 업의 지원조직으로 발족하여 에이즈운동의 현장을 중계하고 그를 통해 에이즈와 동성애정체성의 현실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활동을 촉진했던 '저주받은 개입하는 비디오 운동가 티비 DIVA TV' 등은 이러한 활동에 주역이었다(액트업은 디바티비 외에도 다양한 예술가와 사회집단을 결합한 선전조직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엔 에이즈를 둘러싼 미디어의 폭력과 전횡에 반대하여 포스터운동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대중미술운동을 전개한 '거대한 분노 Gran' Fury' 그리고 비위협집단으로 여성을 상징함으로써 결국 여성을 무성적인 sexless 사회적 존재로 재정의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여성들을 위한 에이즈 정보의 제공과 건강의 보호를 외면하는데 저항한 레즈비언 및 페미니스트 운동가 조직인 '웹 WHAM(여성 건강을 위한 행동 및 동원단 Women's Health Action and Mobilization : WHAM' 등의 연대조직과 결연조직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에이즈 비디오운동의 작업 가운데서 가장 거칠고 또 가장 조야한, 하지만 가장 열정적이었던 디바티비의 작품을 특집으로 소개한다. 애초 우리는 에이즈 비디오운동의 성과를 망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던 많은 에이즈 비디오운동 단체들은 문을 닫거나 전설이 되어버리는 등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디바티비의 작업을 소개하는 데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빈약한 자료가 퀴어시네마에 대한 비판적 조망을 위해 우리의 시선이 거쳐야할 필수적인 관문이라는 주장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 운동가의 역할 Role of AIDS Activists 29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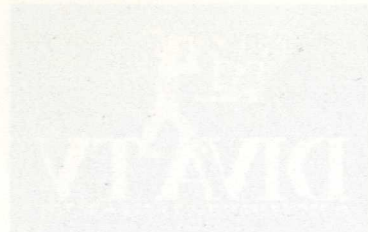
스톤월의 정신으로 퀴어들 에이즈와 맞서싸우다 In the Tradition of Stonewall, Queers Fighting AIDS, 29분, 비디오, Col, 1994, 미국

에이즈 도큐다이어리 By Any Means Necessary, 6분, 비디오, Col, 1994, 미국

정치적 장례식 Political Funerals, 29분, 비디오, Col, 1995, 미국

<정치적 장례식>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장례식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침묵과 태만에 대한 항의로 봉헌한 이들의 장례식을, 카메라는 쫓아다닌다. <정치적 장례식>은 거리의 울부짖음이 그 모두이다. 이 비디오 클립은 데이빗 워나로위츠 David Wojnarowicz의 장례식에서 출발한다. 탁월한 시인이었으며 화가였던 하지만 동시에 에이즈의 위기에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저항했던 이 시인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제 피사체가 되어, 셀룰로이드의 표면 위에 이미지로 기록되어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살아서 들려주던 으르렁거림과 속삭임보다 더 크게 분노의 으르렁거림으로 들린다. 이 클립의 감독인 웬지 Wnentyzy는 일종의 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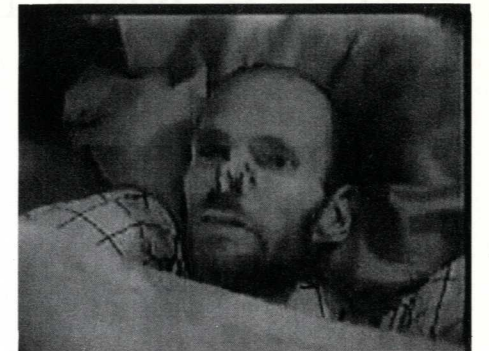
비와 같은 장면 속에서 그의 모습을 The아낸다. 비칠대는 카메라의 걸음은 사랑하고 친했던 하지만 그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친구의 죽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처럼 어슬렁거린다.

하지만 화면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장례는 우리가 보아온 그런 장례식이 아니다. 관은 열려있고 몇 사람들이 그 관을 거리에서 실어나르고 있다. 워싱턴에서 있는 팀 베일리 Tim Bailey의 장례행렬은 경찰과 대치하고, 대열 속의 사람들은 벤 속에 실려있던 관을 꺼내기위해 멈추어선다. 하지만 급기야 행진을 계속하려는 대열과 경찰은 몸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그들이 대치하고 있는 행렬의 가운데엔 관이 놓여있고 그 속에서 베일리의 몸은 이리저리 출렁거린다. 하지만 그것은 이 29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속에 담겨진 그저 하나의 장례일 뿐이다.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광기와도 같은 저주, 국가의 무관심과 제약자본의 횡포 이 모든 사회적 무책임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된 이들은 이들 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바티비 DIVA TV . '저주받은 개입하는 비디오운동가 티비 Damned Interfering Video Activists TV'의 준말인 디바 티비는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뉜다. 먼저 캐서린 살필드 Catherine Saalfeld, 레이 나바로 Ray Navvaro, 진 칼트로무스토, 그렉 보르도위츠 Gregg Bordowitz, 밥 벡 Bob Beck, 코스타 파파스 Costa Papas, 엘렌 스피로 Ellen Spirio, 롭 쿠릴라 Rob Kurilla, 조지 플라기아노스 George Plaggianos 등이 주축이 되어 발족했던 1기가 있다. 이 때는 액트업 멤버들을 일차적인 타겟으로 삼으며 운동에 의한 그리고 운동을 둘러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운동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들은 주로 액트업의 시위현장이나 주요 집회를 '썩썩하고 지저분한 quick & dirty' 비디오들로 제작하여 액트업 산하조직에 배포하였다. 이들은 아무런 보수없이 그리고 비디오 대여수입금을 모두 비디오테이프 구입금으로 적립하며 공동참여 공동제작의 원칙을 지키며 수년간 활동을 하였다. 이 가운데 레이 나바로 등이 에이즈로 숨을 거두고 일부는 '한계를 시험하라' 그룹과 함께 합류하여 독립 도큐멘터리 영화제작사에 합류하는등 변화 끝에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다. 하지만 1993년 디바티비는 제임스 웨츠니 James Wetzney와 더불어 활동을 재개한다. 먼저 디바티비는 에이즈 공동체 티비 AIDS Community TV의 30분짜리 퍼블릭 액세스 쇼를 맡아 매월 12회씩 지금까지 100여편이 넘는 에이즈 비디오 쇼를 이끌고 있다. 그는 이전의 디바티비 시절과 같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에이즈운동 현장의 테이프와 에이즈관련 티비물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테입들로 매주 쇼를 진행하고 있다.

## 실버레이크 라이프 : 여기로부터의 조망 Silverlake Life : The View From Here

탐 조슬린과 피터 프리드먼 Tom Joslin and Peter Friedman, 99분, 비디오, Col, 1993, 미국



그 어느 멜로드라마보다 천만배는 슬프고, 그 어느 사랑보다 숭고한 사랑을 찾는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들의 표정을, 이들의 몸을 뒤덮은 죽음의 망령을, 그리고 죽어 분명 천사가 되었을 이들의 영혼을 살펴보라. 에이즈는 차라리 축복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그간 잊고있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배웠기 때문이다.

<실버레이크 라이프>는 제작자가 없다. 이것은 영화의 제작과 생산을 가능케한 이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피사체를 찍고, 테이프를 편집하고, 사운드를 덧씌우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일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버레이크 라이프>를 마주할 때 우리는 영화를 제작하는 공정(工程)과 생산의 흐름을 모두 잊을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이 영화와 마주하는 순간만은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망각하여야한다. 다른 많은 에이즈비디오와 에이즈 필름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영화에서 아직도 가까스로 살아있는 혹은 요행히 살아남아있는 자의 손에서 또다른 자의 손으로 옮겨지는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죽음에 대한 애도, 저주받았음에도 존엄을 잃지않는 자의 숭고함, 그리고 그 어떤 횡포를 무릅쓰며 죽어가는 연인을 감싸안은 무한한 애정의 깊이를 마주할 수 있다. 그속엔 자의식을 갖출 때나 가능한 연민은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경의감이 이 영화에서 따뜻한 물길처럼 출렁일 뿐이다. 1993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도큐멘터리 그랑프리 수상한 이 영화는 바로 그즈음 블록버스터를 뒤쫓았던 <필라델피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알다시피 <필라델피아>는 에이즈 미디어마저 값싼 인간주의로 포악하게 삼켜버리며, 에이즈 미디어운동이 침묵과 무관심에 항의하며 벌여온 끈덕지고 힘겨운 싸움을 단순히 주류화시켜버렸었다. 80년대의 에이즈 위기가 적어도 서구 레즈비언과 게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일련의 카운터 퀴어시네마(counter-queer cinema)들이 갖는 뻔뻔스런 보수성을 잊지않을 수 없다. 물론 <필라델피아>는 명칭하기 짝이 없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고 자기연민에 휩싸인 채 흐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가 자신이 취해온 거리를 일순 잊게한다. 그리고 이 순간은 너무나 위협하다.

에이즈의 위기를 레즈비언, 게이 공동체의 삶으로 특수화시키고 이를 통해 '선한 그들과 저주받은 패덕자 동성애자들'의 문화적, 정치적 이분법을 만들어온 그간의 문화적, 정치적 전략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존엄으로 둔갑할 때 그것은 결국 휴머니즘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에이즈 위기를 통해 폐죽음을 맞이하게되었던 수많은 레즈비언, 게이 운동집단의 목숨을 건 싸움의 결과였다. 세계는 느닷없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자명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실버레이크 라이프>는 퀴어 시네마베리테의 퀴어 시네마베리테이다. 이 도큐멘터리는 다른 에이즈 필름들처럼 우리에게 타인의 슬픔을 관조하도록 하지않는다. 이 영화는 그저 관객에게 고통과 고립, 좌절, 그리고 끝간데 없는 피로의 급류 속으로 말려들게한다. 조슬린이 한밤 중에 잠에서 깨어나 그의 살아있는 악몽을 기록하기위해 카메라를 켤 때, 관객이 이 느릿느릿 고통스럽게 다가와있는 질식할 듯한 친밀한 죽음의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곳은 아무데도 없다. 결국 <실버레이크 라이프>는 너무나 개인적인 홈 무비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에이즈를 우리의 문제로 만듦으로써 그 사적인 성격을 거스른다. 이 도큐멘터리 속의 인물이 화면 속으로 들락거릴 때 우리는 어느 도큐멘터리같은 편안한 거리를 만끽할 수 없다. 그 거리는 거둬 무너지고 결국 질병이 진전될 만큼 진전되어 카메라를 놀리는 손이 무거워질 때, 그리고 마침내 톰의 죽음으로 카메라가 완전히 벗어나버릴 때, 우리는 도큐멘터리가 결국 세계의 모든 위악한 폭력을 압도하는 순간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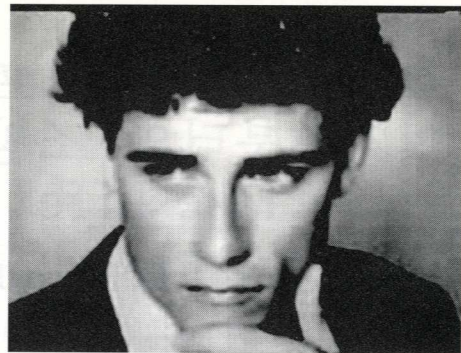
(1993 선댄스영화제 도큐멘터리부문 그랑프리, 베를린 영화제 테디베어 도큐멘터리부문 최우수영화. 1993년 유에스에이 투데이,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보스턴 글로브 올 해의 10대영화로 선정)

" 에이즈와 함께하는 엄청난 일상의 고통을 선명하고 정직하게 그려낸다...깊은 감동의 영화 "(버라이어티 Variety)



## 볼로 볼로 Bolo! Bolo!

지타 삭센 & 이안 라쉬드 Gita Saxen & Ian Rashid,  
30분, 비디오, Col, 1991, 캐나다



토론토의 남아시아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비디오는 건강, 섹슈얼리티, 그리고 문화정체성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조직화를 피하는데 관심있는 사회사업가, 교육자, 공동체 활동가에 매우 교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애초 이 비디오는 남아시아계 에이즈예방협회와 토론토 에이즈감염자모임의 지원으로 제작된 작품이었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이란 연유로 이 자그마한 비디오를 펴내는 건 큰 실수. 교육적인 주장이 담고있는 따분함과 상투성을 피하고, 인종적인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문화적 차이를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관객을 설득하는 영화의 솜씨는 우리에게 분명 적잖은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질병 앞에서 우리는 전연 평등하지않다. 질병은 우리에게 통증과 죽음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한 집단의 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죄다 바꾸는 문화적 힘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이즈라는 질병을 이겨내기위해 우리가 대적해야할 적은 HIV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술한 주류 에이즈 교육용 영화들과 달리 <볼로! 볼로!>는 반섹스적이지 않다!...의학적, 사회적, 사적, 정치적 맥락들이 모두 얹혀 너울거린다." 카메론 베일리 Cameron Bailey, 나우 매거진 Now Magazine)

## 8.성별의 무법자 Gender Outlaws

"당신은 이미 주어진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책임이 있다"

----- 레버랜드 제시 잭슨 (Reverend Jesse Jackson)

우리는 섹슈얼리티를 이미 주여졌거나 고정되어 있으며 영속적일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실체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특정 사회와 역사에서 발생하는 담론과 지식, 권력관계의 복잡한 전이지점속에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섹슈얼리티는 권력의 장내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직접적인 생물학적 자극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는 섹슈얼리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바탕으로 육체와 정신의 어떤 기질들과 관련된 확고부동한 법전을 들이민다. 우리는 이차성징이라는 발육단계를 지나면서 특정한 형태의 육체적 기질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며, 그러한 기질에 걸맞는 몸가짐과 정신을 내면화해야 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이 가져야만 하는 육체와 정신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퀴어영화제가 발견한 이 '성별의 무법자들'에게 섹슈얼리티는 자연적인 사실일 수 없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불일치를 자각하거나, 다른 성별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깨닫게 되는 어떤 지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다시 쓴다. 그래서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조형적 섹슈얼리티'일 수밖에 없다. 로자 폰 프론하임의 <위험적인 성전환자들>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같은 이름의 성전환자 조직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급진적인 조직은 오랜 세월동안 성전환자들에 게 달라붙어온 보편의 신화들에 도전한다. 성전환자들(male to female)은 종종 레즈비언 공동체에 의해 정치적으로 저주스러운 존재들로서, 게이 남성들에게는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싸구려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이성애자들에게 모든 성전환자들은 창녀아니면 쇼걸이다. 결국 한 사회에서 여성이 열등하게 취급되어 왔다면, 남성성전환자들은 이류여성들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위험의 성전환자들'과 같은 운동조직은 이러한 부당한 명명화에 저항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퀴어커뮤니티 내부에서 존재하는 또다른 억압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종종 게이, 레즈비언 운동조직에 의해 그들이 제기하는 실제적인 이슈들이 폐기처분되어 버리는 상황에 종종 직면해 왔다. 감옥에서 벌어지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강간을 멈추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위험의 성전환자들'은 배신감에 가득차서 퀴어들을 향해 절규했다. "게이 액티비스트들은 그러한 강간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강간'으로 잘못 이름붙여질까 봐 그 이슈를 무시했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강간에 대한 이슈를 희석시킬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무시한다." 퀴어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성전환자들은 여전히 결끄러운 존재들이다. 그것은 이들이 원하던, 그렇지 않은간에 어떠한 성별에도 자신을 묶거나 안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적인 면에서 이들의 유동성은 이성애자들뿐 아니라 스스로의 성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레즈비언, 게이들에게 모종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그들의 존재방식 자체가 너무나 '위험적'이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들>은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에 살면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남성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는 성적 소수집단과 특정한 섹슈얼리티가 의미화될 수 있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부분을 탐색한다. <신주쿠 소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동남화된 의미에서 여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오나베'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이성애자 여성들과 관계를 맺거나,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 가운데 어디쯤 어정쩡하게 놓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자신의 불균형한 육체에 실망하고 놀라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섹스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여성이 된다는 것을 약하고 위험에 민감한 어떤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결코 여성이 되지도 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나베들은 존재해본적이 없었던 어떠한 성적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낸다. <마법의 성별>은 수염이 나는 여성이자 레즈비언인 제니퍼 밀리에 관한 그림이다. 그녀는 이분법적인 육체적 기질의 어느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성별의 마법을 본다. 실제로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이 둘다 존재하는 우리의 육체는 그 호르몬이 어 많고 적음에 따라 너무나 부당하게도 어느 한쪽의 성별을 배정받을 뿐 아니라, 그 성별에 적합한 정신들, 관계의 대상들, 규정되어지는 삶까지 할당받는다. 그러나 불쑥 호르몬의 마법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어떠한 성별을 우리앞에 등장시킨다. 그녀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그녀는 그 어느쪽에도 타당하지 않는 이중적인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무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의 엄숙한 규준을 허무는 존재들을 만났다. 그들은 행복할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퀴어세대들이다. 당신의 신체와 육체, 욕망의 대상에 대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없다. 이들이 그것의 증명이다.



## 해바라기들 Sunflowers

숀 하인스워스 Shawn Hainsworth, 50 분, 비디오, Col, 1996, 미국



동성애와 성정체성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들을 탐색하고 있는 '해바라기들'은 필리핀 시골마을에 사는 게이 집단들의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림이다. 필리핀의 '산타크루즈(Santa Cruzan)'이라는 전통적인 축제에서는 드랙쇼가 매년 성대하게 열린다. 이 드랙쇼에 참가하는 게이들은 '해바라기'라고 불리며, 쇼는 마을 주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개최된다. 산타크루즈 축제의 드랙쇼 참가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린시절의 기억들, 커밍아웃 이야기들, 가족들과의 관계, 카톨릭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한 작은 섬마을을 통해서 독특한 성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 들여지고 의미화될 수 있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부분들이 탐색된다.

(국제 교육 미디어 네트워크 경쟁부문, 청동사과상, 휴스턴 필름 페스티벌, 청동상, 튜린 국제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윈드 시티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황금송아지상, 필리핀 에이즈 위원회로부터 기금, 뉴욕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샌프란시스코 레즈비언 & 게이 필름 페스티벌)

### DIRECTOR

숀하인스워스(Shawn Hainsworth)는 하버드 대학 비주얼 학과를 2등으로 졸업했다.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 실험 단편부문 황금상을 비롯해서 그의 영화들은 많은 상을 받았다.

## 위협적인 성전환자들

### Transexual Menace

로자 폰 프라운하임, Rosa von Praunheim,  
60 분, 비디오, Col, 1995, 독일 / 미국



성전환자들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두가지 사건이 있다. 여성성전환자들(female to male)을 위한 '서든 컴포터 회의(Southern Comfort Conference)'와 워싱턴에서 열린 '성전환자의 날(Transgender Lobbying Day)'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전환자들은 비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뉴욕에 위치한 성전환자들의 운동조직인 '위협의 성전환자들(transexual menace)'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복을 위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퀴어들의 이미지를 급진적으로 드러낸다.

1942년에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로자 폰 프라운하임(Rosa Von Praunheim)로자 폰 프라운하임은 동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성장했고, 미국과 독일의 다양한 레즈비언 & 게이 시민운동에 몸담았다. 감독 로자 폰 프라운하임처럼 그의 작품들 역시 정치적으로 대담하고 용감무쌍하다. 프라운하임의 첫 작품인 <연인들의 친구, 혹은 이단자들의 도발 Army of Lovers, Revolt of the Perverts>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질적인 모델이 다 포괄할 수 없는 미국 게이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영화화했다. 프라운하임은 1970년대 동성애운동의 이정표가 될만한 영화 <동성애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곳이 비정상적이다. It is not the homosexual who is perverse, but the situation in which he lives>를 포함해서 30여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1996년 미국성전환자 커뮤니티를 탐색하는 <위협의 성전환자 Transsexual Menace>를 만들었다. 또 <내가 나의 부모에게 말하는 방법 How do I tell my parents>은 독일 성의학자 마그너스 히루쉬펠트에 관한 영화이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의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 <내 스스로 나는 여자이다 I am My own Woman>는 독일의 가장 유명한 드랙쇼 Mahlsdorf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1992년 많은 상을 받았다. 프라운하임의 최근의 영화 <Neurosia>는 1996년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고 국제적인 게이 &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그 제목이 "로자"라는 단어와 "neurosis"라는 단어에서 나온 자전적인 영화이다.

<삶은 오이와 같다 Life is Like a Cucumber> 1991, <침묵은 죽음이다 Silence=Death> 1990, <긍정적인 Positive> 1990, <나는 내 스스로 여자이다 I am My own Woman> 1992, <바이러스는 어떤 도덕도 알지 못한다 Virus Knows No Morals> 1986, <공포스러운 공허 - 비어있음에 관한 두려움 Horror Vacui-The Fear of Emptiness> 1984, <잃어버린 영혼들의 도시 City of Lost Souls> 1983, <연인들의 친구, 혹은 이단자들의 도발 Army of Lovers, or Revolt of Perverts> 1979

### DIRECTOR



## 마법의 성별 Juggling Gender

타미 골드 Tami Gold, 27분, 비디오, Col, USA



수염이 자라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레즈비언이자 행위예술가이고, 수염이 무성한 서커스 감독인 제니퍼 밀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여성 혹은 남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 관객들의 익숙하고 해묵은 범주에 도전하는 27분 짜리 비디오는 제니퍼 밀러의 구체적인 삶의 여러 단면들에 접근한다. 서커스 공연에서 묘기를 부리거나 바늘침대위에 누워 요가를 하는 모습, 수염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녀, 게이 퍼레이드에서 활기차게 행진하는 그녀. 어떤 장소에 존재하고 무엇을 하든간에 그녀는 이미 성의 구별을 넘어서서 충분히 아름답다.

"신랄하고, 힘있고, 압도적인 '마법의 성별'은 젠더와 정체체성의 익숙한 범주들을 붕괴시킨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비디오를 볼 필요가 있다." (Judith Walkowitz, Director, 존홉킨스 대학 여성학과)

"타미 골드의 수염을 기르는 제니퍼 밀러에 관한 매력적인 초상은 현대 사회에서 젠더의 복잡성에 관한 설명 이상이다. '마법의 성별'은 한 사람에게 젠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심호한 탐구이다. 이러한 탁월한 다큐멘터리는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를 넘어서는다.

(스튜어트 어윈 Stuart Ewan 작가, All Consuming Images 현대 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DIRECTOR

타미골드 (Tami Gold)는 넓은 범위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왔다. 그녀는 수상경력 많은 비디오 아티스트이며 최근에 페미니스트 주제들을 다룬 많은 작품들을 공동제작하거나 감독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Why Women's Fumds>라는 박애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20분짜리 비디오가 있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여성의 지난한 일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변화를 위한 선언 Prescription for change>이 있다. 그녀의 많은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PBS방송을 통해 방영된 바 있다.

## 신주쿠 소년들 Shinjuku Boys

김 론지노토와 자노 윌리엄스 Kim Longinotto & Jano Williams, 53분, 16mm, Col, 1995, 영국



도쿄에 있는 뉴마릴런 클럽을 방문하면 말쑥히 남장을 한 채 여자손님을 맞이하는 여자들인 '오나베 オナベ'를 만날 수 있다. '신주쿠 소년들'은 평소에도 남자처럼 살면서 이 클럽의 호스트로 일하는 세명의 오나베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타트슈는 여자친구 토모에와 함께 살고, 가이수는 걸프렌드가 많은 플레이 보이 타입에 터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가주키는, 남성성전환자면서 나이트 클럽 댄서인 큐미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세명의 오나베들은 카메라 앞에서 성역할, 복장도착, 레즈비어리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뉴마릴런 클럽의 고객들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실망한 적이 있는 이성애자 여성들이고 오나베들과 관계를 가지거나 사랑하게 되지만, 그러한 관계는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하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빈번히 좌절된다. '신주쿠 소년들'은 클럽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면들과 매력적인 오나베들의 인터뷰를 병행하면서 한편의 도발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오늘날 일본 여성들의 정체체성의 복잡성에 대한 탐구이다.

(런던, 암스테르담, 피아, 멜버른, 뮌헨, 홍콩, 마디그라, 튜린, 웰링턴, 오클랜드, 휴스턴, 나고야, 시카고 페스티벌, 그외 다수, 휴스턴 필름페스티벌 황금상, 로스엔젤리스 게이, 레즈비언 필름 페스티벌 주목받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Grand Jury 상, 시카고 국제영화제 실버 Hugo 상, 마드리드 필름 페스티벌 최고 다큐멘터리 상).

DIRECTOR

김론지노토(Kim Longinotto)는 런던 영화학교에서 카메라와 연출을 공부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장소에 관한 자부심 Pride of Place>과, 런던의 홍리스 여자들의 호스텔에 관한 영화, <Theatre Girls>를 만들었다. 영화학교 졸업후 그녀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프리랜서 카메라맨으로 참여했다. 1986년에 그녀는 '21th Century Vixen with Claire Hunt'라는 제작사를 만들고, 일본 춤과 배우에 관한 <키모노를 먹어라 Eat the Kimono>와 일본여성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토코의 훌륭한 아내 The Good Wife of Tokyo>를 만들었다. 이 기간동안 론지노토는 특별한 이슈들을 포함하는 비디오 시리즈들을 제작했는데, 장애자들을 위해 자비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비극적이거나 용감한 Tragic but Brave>은 이 시리즈중의 마지막편이면서 채널 4 텔레비전에서 상영되었다. 그녀는 그후 일본의 타카라주카 연극에 관한 <꿈의 소녀들 Dream Girls>과 남자처럼 사는 일본 여자들인 <신주쿠 소년들>을 만들었다.

<장소에 관한 자부심 Pride of Place>, 투어즈(Tours) 필름 페스티벌 최고 다큐멘터리 상, <극장 소녀들 Theatre Girls>, Special Mention Tours & Nyon Festivals 최고 다큐멘터리상, <Fireraiser> Pascoe Mcfarlane상, <키모노를 먹어라 Eat the Kimono> 아테네 필름 페스티벌, 최고 다큐멘터리상, <숨겨진 얼굴들 Hidden Faces> 멜버른 필름 페스티벌 최고 다큐멘터리상, <도쿄의 좋은 아내들 Good Wives of TOKYO>, <꿈의 소녀들 Dream Girls>,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Certificate of Merit 외 다수 수상, <신주쿠 소년들>



## 9. 다른 몸 / 다른 시선 : 한국의 레즈비언 / 게이 필름들 (특별 프로그램 II) Different Bodies/Different Gaze : Lesbian Gay Films in South Korea (Special Program II)

지금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필름은 무엇인가. 감독의 신원과 영화의 주제와 영화의 공간은 영화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난 수년간 잇달아 선보인 주요한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주제의 단편영화들을 망라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질문에 착수한다.

과대망상,  
어머니,  
경멸,  
허스토리,  
새가 없는 도시

## 경멸

김진한, 18분, 16mm, 1994, 한국

아직 동성애 담론이 대중화되지 못했을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자못 궁금해진다. 동성애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까. 영화제에서 공론화되고 영화적 경력까지 인정받은 이 영화가 그리고 아마도 이성애자인 감독이 그 주제에 관해 전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 혹은 그는 게이.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말할 상대가 없는지 정신과 의사를 만나 과거를 되짚는다. 멸시와 조롱을 그녀의 바램으로 포장한 과거를 능청스럽게 이야기하는 현실의 그녀와 내막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정신분열증적인 그녀의 상태를 말한다.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자는, 내몰린 자는 현재화되고 환상화된 과거속에 거짓 주체를 만들며 산다. 획득할 수 없는 여성성과 떼어버릴 수 없는 남성성 사이의 혼란, 이것은 아마도 남성 동성애자들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과잉된 여성성은 미끈한 다리사이로 빠져나간다. 마돈나가 <보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는 정체성을 유희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한 유희가 실존적인 문제에선 생과사를 넘나드는 결코 유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보여줄 뿐이다. 마치 <빠리는 불타고 있다>에서처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으로 부터 버림받고 구역질만 남겨준 첫사랑. 벗어나고 싶어했던 더러운 남자화장실에서 자살할 운명. 빠져볼 만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여 세인의 관음증적 시선을 유발할 요소는 없다. 그녀의 말과 과거사실과의 간극은 애처로움과 연민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기제이다. 뜨거운 감자인 소재때문에 자못 의구심을 자아냈던 '경멸'이라는 제목도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힌다. 즉 정체성이 무엇이건 그녀를 소외시키고 결국엔 죽음을 맞게한 사회의 경멸. 근대의 주체개념과 자유주의에 기대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러한 지경으로 내모는 행동이 옳은가의 문제로 조망한다면, 이 영화는 보장된 사람한테만 주어진다는 자유주의 정신을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할 뿐이다. 그러므로 게이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아무것도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스펀지 같은 속성, 성과학의 담론대로 조직화하거나 혹은 이단으로 내몰면서 무조건 자신의 경계내에 감시하는 정신 덕택으로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치는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이 영화에는 새로움이란 없다. 여성성의 과잉을 보여주는 듯 술집에서 근무하는 짙은 화장을 한 게이들. 그리고 영원히 어둠속에 갇혀 살아야 할 것 같은 수인들의 모습. 이러한 동종의 재현형태는 동성애 담론을 조직하는 또 하나의 매카니즘의 산물로 보인다. 동성애는 이런 것이야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들. 다른 존재형태를 무시하면서 아예 그 세력의 빛을 차단하려는 보이지 않는 정책의 산물. 그렇다면 이 영화가 대중성이 적은 단편영화임을 축하해야 할까.



## 히스토리

민규동, 26분, 16mm, 1995, 한국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밝혔듯이 자본주의가 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성적 장치들이 빚어낸 자연스럽지만 한편으로 아주 부절적인 상황. 청소년기에 막혀있는 성적 욕망을 분출하는 한 번의 장난이었던 진정한 정체성의 인식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 혼이 있는 일이다. <첫사랑>이라는 소설에서 한 소설가가 첫사랑의 대상을 중학교 때 동료에게서 찾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Herstory>에서는 그 경험에서 한 번의 열병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경멸>의 이분법적인 상황을 탈피해 자신의 과거를 객관화시키고 공론화시킨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은 그것이 추구하는 삶 즉 사회적, 정치적 실천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와 동시적이지 않다. 그것은 삶과 죽음, 침묵과 행동처럼 가깝고도 먼 거리이다. 중경은 그 이분법에서 죽음의 편에 섰고 주회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지만 자신이 쫓겨나고 가야할 실천적 삶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폭풍처럼 지나간 사건뒤에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되듯 보통의 삶으로 되돌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정체성 찾기의 로드무비이다. 그 길은 두 층위로 구성된 내러티브가 진행되면서 발전된다. 준비되고 있는 공연에서 벌어지는 고등학교 시절의 객관화, 현실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주인공의 모습.

두 정체성, 중경이 표상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싸워 나가는 정체성과 동성애는 죄라고 단정하며 현실에 굴복하는 추미의 정체성을 전경에 위치시키면서 주인공은 그녀를 포함한 레즈비언들의 두 모습을 본다. 두 정체성 간의 대립과 투쟁. 결국 그녀가 동일화하고 전이되는 모습은 중경의 것이다. 중경의 유품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귀걸이와 목걸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게 된다. 영화 첫 시퀀스와 연극의 마지막,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은 실천적 지향을 결정하고 체화시키는 적절한 기제로 작용한다. 머리 자름의 제의를 치루고 중경의 귀걸이를 한 순간 주인공은 제2의 중경이 된다.

기술적으로 미흡한 문제는 차지하고 이중구성, 내러티브상 모티브와 영화속도를 조절해가는 감독의 능력은 잘 발휘된다. 내러티브는 외디푸스 드라마를 비롯해 정체성을 찾는 드라마들의 관습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그런 면에서 신화적인 해피엔딩을 맺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혹시 그 해피엔딩으로 많은 틈들이 도배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 틈들을 끄집어내고 영화에 균열을 가하는 역할은 레즈비언 당사자들에게 넘겨야 할 것 같다.

## 어머니

박동훈, 30분, 16mm, 1996, 한국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감옥안에서의 두 남성죄수의 관계가 주된 사건이다. 주제를 함축하는 듯한 '어머니'와 두 죄수의 삼각관계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로 전치되고 변화, 발전한다. 감옥안에서의 폐쇄된 상황, 그런만큼 알레고리를 환기시키는 공간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성과 남성동성애를 둘러싼 이론적 가설을 장면화한 것으로 읽기에 많은 단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각의 프레임내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성제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흰얼굴은 세상에 자자히 이름이 알려진 죄수, 고참 큰주먹과 함께 방을 쓰게 된다. 남성성 구축에 필연적인 타자에 대한 공격성을 담지한 사람들의 공간, 감옥. 그곳에서 흰얼굴은 공간의 상징인 큰바위와 함께 방을 쓰게 된다. 절대적 권력자로서 이유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큰바위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흰얼굴. 그러나 큰바위의 폭력은 흰얼굴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와 결핍의 산물이다. 서로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은 한프레임내에 화합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 폭력이 형성되는 순간에만 가학자와 피학자로 한 프레임내에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자이다.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로 발전한다. 여자에 대한 기억으로 큰 주먹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은 이후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해간다. 성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아나가고 그들은 동성애적 관계를 맺는다. 큰바위의 폭력은 사라지고 둘은 한 프레임내에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억압과 피억압만 존재하던 이분법의 세상을 표상하는 흑백의 화면은 상상장면과 같은 컬러로 대체된다. 성의 재편화를 보여주는 이 과정을 통해 성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더불어 생득적이었던 이성애와 변태라고 치부되었던 동성애를 가르던 가치기준의 사라짐도. 어머니,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어머니는 충만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깨어질 균열과 결핍을 담지한 그것이다. 호모포비아의 이유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억압된 동성애 경향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투사라고 설명했다. 이 가설을 역으로 뒤집는다면(물론 그 역이 완전히 성립될 수 없지만) 동성애의 근원지는 사회의 남성성에 편입되기 이전인 전외디푸스 단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어머니는 전외디푸스 단계에 존재하는 충만함 즉 개인의 양성성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남성성의 폭력을 행사하는 큰 주먹의 결핍의 본질은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개인이다. 흰 얼굴과 큰 주먹의 동성애적 관계로 발전되자 큰 주먹은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인다. 슬픔이자 희망인 어머니를 흰 얼굴이 대체하고 있지만 의사-대체일 뿐 결코 충만함의 상태를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큰 주먹은 죽음을 통해서만 어머니의 밥상을 받을 수 있다. 감옥 창살안에 장면화되는 큰 주먹과 흰 얼굴.

어머니의 공간, 전외디푸스 단계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로 표상되는 사회적 질서내로 재편되길 거부하는 제스처이다.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을 억압하고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의 일률적 성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이다.



## 새가 없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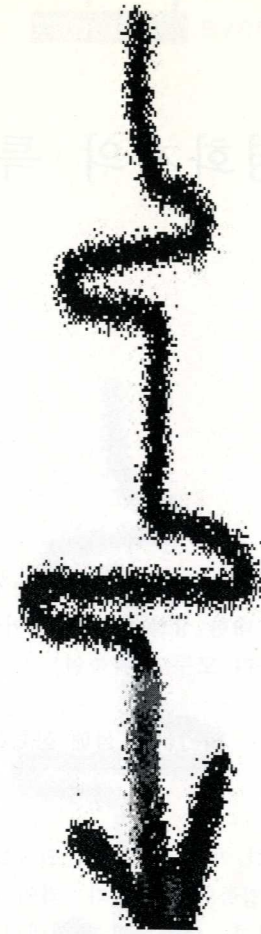
곽용수, 14분, 16mm, 1996, 한국

이성애의 사랑과 동성애의 사랑, 두 사랑간은 어떤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까. 사랑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형태를 보아서도 둘의 사랑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는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다. 퀴어적 독해를 통해 다시 태어난 상업영화들의 예를 봐도 감정의 당길짐과 애뜻함, 질투, 고통은 찾아볼 수 있다. 한 이론가는 그러한 욕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성애, 게이, 레즈비언은 욕망앞에서 형용사로 쓰인다고 하였다. 즉 이성애적 욕망, 게이적 욕망등으로. 그렇다면 그것들을 차이짓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새가 없는 도시> 또한 두 남성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두 남자는 헤어질 운명이고 미리 헤어짐을 연습한다. 천사는 애인의 결핍을 그를 본따 만든 조각을 통해 충족시키고 바보는 잡히지 않는 꿈속에서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듯 죽음을 연습한다. 대사는 절제되고 내러티브는 인과율이 배제된다. 선적이고 설명적인 관습을 벗어난 영화를 이끌어 가는 동인은 게이를 상징하는 역삼각형을 비롯한 몇가지의 모티브와 사랑과 부재를 의미하는 이미지의 조합이다.

내러티브로 의미를 전달하는 친절한 영화와 다르게 은유적인 이미지로 의미를 생산하는 불편한 형식앞에서 이 영화는 위축된 관객을 무장해제한다. 영화의 이미지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보다는 관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편견을 벗겨낸 게이들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일상적인 이미지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될 것이다.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도 해도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예를 들어 서로의 부재를 나타내는 방법은 조각을 애무하거나 놀이터에서 앙상한 나뭇가지를 응시하는 시선으로 표현되고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바보가 하늘을 쳐다보는 샷으로 끝을 맺는다.

남자들의 사랑에 많은 것을 기대한 탓일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진부하기까지 한 이 영화에서 게이들의 사랑을 특징짓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시에 동성애를 탈사회화시키는 결과를 산출한다.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성애와 이분법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이들을 특징지어 주는 요소는 사회와 관계맺는 방식일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과의 문제, 타협, 생존등의 제반 생활의 문제. 이러한 관계 맺음속에서 게이 정체성은 가시화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이성애와 동성애의 차이와 같음은 대조되고 동성애의 특수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단지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만남뿐이 아니라 다층적인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임을 드러낼 수 있다.



The 1st Seoul Queer Film & Video Festival



## 제 1 회 서울 퀴어영화제의 특별행사

개막식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내 연극관)

서울 퀴어영화제가 지금 여기 영화의 지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주장하고 가늠하는 축제. 서울 퀴어영화제가 마련한 영화 속의 혹은 흔적 속의 자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퀴어영화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개막식에서 선언된다. 퀴어시네마와 퀴어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자축연!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스크린이 될 것이다 : 미디어 동성애 정체성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내 연극관)

퀴어영화제가 제안하는 문화와 권력에 대한 개입과 도발의 전술들. 문화적, 정치적 보수주의가 만연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떠돌고 노래하고 속삭이는 방법들이 주장된다. 과연 레즈비언, 게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미디어를 만들 것인가. 주류 미디어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대안적인 퀴어미디어는 어떻게 가능한가.

관객과의 대화(I) 미노로, 나 그리고 우리

저 멀리 영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미노루와 나카타가 옵니다. 관객과 함께 재일교포 게이로서의 삶에 대해, 신체장애와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영화에 대해 말을 걸고자 우리에게로 옵니다. 분명 그와 함께하는 자리는 가장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객과의 대화 (II) : 주변에서 말걸기 - 이민레즈비언들의 디아스포라>

입양한 레즈비언 누이자매들과 함께하는 주변과 그 보다 더 먼 주변으로부터의 대화. 차이를 넘어서고, 차이를 자각하며, 차이를 수궁하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길 원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

<포럼 : 헤테로 필름? 혹은 호모적 상상력? - 다른 몸, 다른 시선>

한국의 게이, 레즈비언 필름에 대한 포럼. 지금 한국의 동성애 영화를 생각하고 모색하는 토론. 이 토론에서 우리는 영화와 동성애를 잇는 무수한 이음새들을 짚어보고 주장한다. 다른 몸, 다른 시선에 출품한 감독들과의 대화 역시 마련될 예정.



The 1st Seoul Queer Film & Video Festival

<포럼 : 아시아 퀴어웨이브를 생각한다>

<결혼 피로연>에서 <해피 투게더>까지. 몇 년간 줄달음쳐온 아시아 퀴어시네마의 흥망성쇠를 회고하고 시비거는 뜨거운 토론. 글로벌한 호모가 될 것인가 아시아적 호모가 될 것인가. 식민주의와 타자성, 성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영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뒤섞는 자리.

폐막식

그래도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울 퀴어영화제는 절대 빗장을 잠그지 않는다. 이 초라한 시작을 스스로 격려하고 또 이로인한 기쁨과 꿈을 관객에게 다시 되먹임하는 축제의 마지막



## 제 1 회 퀴어 영화제와 함께 한 사람들

집행위원회 : 김혜준, 서동진, 이훈주

프로그래머 : 서동진, 이훈주

코디네이터 : 정지화

해외자문위원 : 크리스 베리(Chris Berry), 닉 데오캠프(Nick Deocampo), 나카타 도이치(Nakata Toich)

매체홍보국 : 권경미

홍보국 : 박기호, 박시영, 서윤순

출판국 : 오승원

사무재정 : 김양희, 문주리

기술감독 : 백승조

자원봉사단장 : 신동훈

자막지원 : 문화학교 서울

영사기 지원 : 영화기획 보임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나우누리 동성애자모임 <레인보우>, 레즈비언 독립잡지 <니아까>, 인권영화제 사무국, 포티시모 Fortissimo와 바우터 Wouter, 아이작 줄리안 Isaac Julien과 마크 내쉬 Mark Nash, 영국 데인저러스 투 노우 Dangerous To Know, 미국 독립TV 방송국(ITVS), 여성들 영화를 만들다(Women Make Movies) 디렉터 데이비 짐머만 Debbie Zimmerman, 김소연, 현 경림 외 여러분



## 퀴어 영화제 활동

12.8 영화제 개최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모임

12-4 이론 세미나와 실무 세미나 병행

4.9 동성애 개최 지원 요청서 발송

동성 후원 무산

4.20 사무국 개소

실무 진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체계 확정

4.24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안 발송

4.28 대학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시작

5.5 전체 배급기관 메일링 시작

5.8 영화제 준비를 위한 설문지 배포

5.9 통신 3사 레즈비언, 게이 모임 대표 초청회

5.11 영화제 프로그램을 위한 세미나

5.16 중앙일보 기획안 발송

5.17 사무국 운영체계 개편

프로그래밍 가안 작성

5.20 언론 매체 보도자료 발송

5.27 집행위원 선정

5.29 자봉모집 공고

5월-6월 대학 후원 모집을 위한 대학내 대동제 참가

6.4 후원 위원 선정

7.2주 다큐/단편 선정 프리뷰 착수

한국 프로그램 접촉

7.17 매체 보도자료 2차 발송

7.21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입불가 판정에 대한 질의서 발송

7.22 동성애 주제 영화 수입 불가 판정 철회를 위한 집회

8.2 공론 답변서에 대한 보도자료 발송

8.8-9 위반을 축복하는 미드나잇 쇼 (영화상영, 트랙퀸쇼)

8.12 공론 심의 신청

8.18-21 암호를 밝혀라! (릴레이 콘서트)

8.22 성기, 음모 노출, 노골적인 동성애 묘사로 인한 상영불가 판정



queer

# 제 1 회 서울 퀴어 영화제 상영시간표

|      | 1                                     | 2                      | 3                                    | 4  | 5                      | 6                           |
|------|---------------------------------------|------------------------|--------------------------------------|--|------------------------|-----------------------------|
| 9/19 |                                       |                        | F 흑인이란 것은                            | B 초콜렛 베이비  | 개막식                    |                             |
| 9/20 | F 호모코믹스                               | D 분노의 69년<br>DQ 세대     | A 사디 베닝의<br>작품들<br>C 그녀는<br>스러지지 않는다 | A 숨바꼭질<br>C 인터피디시마<br>C 욕망                           | A 완전히 잊먹은<br>F 카렌의 천사들 | A 젊의 영혼들의<br>반란             |
| 9/21 | G 실버레이크<br>라이프                        | G 디바 티비                | A 탐 칼린의 작품들<br>B 재림<br>B 안내원         | B 노동자와 방랑자<br>G 볼로!볼로!                               | A 모래알처럼                | A 잃어버린 병사들<br>찾아서<br>F 아킬레스 |
| 9/22 | F 고양이와 잉꼬를<br>삼키다<br>F 젖는것은위험하다       | C 나는 니가<br>무서워<br>E 쿠쉬 | E 더러운 세탁물<br>D 사적인 전쟁들               | B 나의 여름방학<br>F 알다가도 모를<br>게이 2 인조                    | A 미드나잇 댄서              | A 제로 페이션스                   |
| 9/23 | F 깨끗한 흐름<br>C 케이                      | D 그것은 기본               | A 오직 용감한 자<br>D 지나칠수 없는<br>이야기들      | I 다름론 / 다른시선<br>E 그지그런 결혼<br>피로연이아니올시다<br>A 풀어헤쳐진 말들 | F 레스보스 섬               |                             |
| 9/24 | H 위협적인<br>성간환자들<br>H 마법의 성별           | C 산과 이야기               | B 인디안 섬머                             | C 살인 그리고 살인<br>A 글리터버그<br>E 사이폰이라는호모<br>아담           | A 절산염 키스<br>E 쿠쉬       |                             |
| 9/25 | H 해바라기들<br>E 우유와 물이<br>섞이면<br>E 연꽃자매들 | D 미노루, 나<br>H 신주쿠 소년들  | D 우리의 마음을<br>바꾸자<br>트레이스<br>엘리먼트     | C 여관소동   | 폐막식                    |                             |

11:00  
1:00  
3:00  
5:00  
7:00  
9:00

A. 퀴어시네마의 궤적들 : 퀴어시네마의 역사를 다시 쓴다  
The Trajectories of Queer Cinema  
: Re-writing of Histories of Queer Cinema  
B.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I) : 호모 소년들 극장에 가다  
New Currents of Queer Cinema : Homo Boys Go To Theater  
C. 퀴어시네마의 새로운 경향들(II) : 다이크 소녀들 극장에 가다  
New Currents of Queer Cinema(II) : Dyke Girls Go To Theater  
D. 퀴어시네마의 퀴어 Cineverite  
E. 빛의 망명자들, 어둠의 거주자들 : 퀴어디아스포라  
F. 변신의 만화경  
Kaleidoscope of Metamorphoses  
G. 에이즈 쇼 AIDS SHOW  
-1. 침묵은 죽음이다 : 에이즈 비디오 액티비즘에 바친다 특별 프로그램 I) Solence Is Death : A  
Tribute To AIDS Video Activism Special Program I)  
-2. 에이즈 뷰 : AIDS View  
H. 성의 무법자들 : Gender Outlaws  
I. 다른 몸 / 다른 시선 : 한국의 레즈비언 / 게이 필름들 특별 프로그램 II)  
Different Bodies/Different Gaze : Lesbian Gay Films in South Korea Special Program II)

queer

# FILM SORCE

## Achilles

Bare Boards Production: Bare Boards-Cosgrove Hill, 8 Albany Road, Chorlton-Manchester, M21 0AW, England  
ph. fax) 161-860-5660

## Adm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ADS Epidemic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Ambiguous Gay Duo

JJ Sedelmeier Production: 199 Main Street, White Plains, New York 10601  
(Debbie Gregg) ph) 914-949-7979 fax) 914-949-7989

## A Mofie Called Simon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Beauties without Cause

David Weissman: 346 9th St., 2d fl., San Francisco, CA 94103  
ph) 415-703-8661 fax) 415-626-7270 e-mail) paradox@sirius.com

## Black is... Black ain't

ITVS: 190 Fifth Street East, Suite 200, Saint Paul, MN 55101, USA  
ph) 612-225-9035 fax) 612-225-9102

## Blending Milk & Water

Video Out: 1965 Main Street, Vancouver BC Canada V5T 3C1  
ph) 604.872.8449 fax) 604.876.1185

## Bolo! Bolo!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Cat Swallow Parakeet and Speaks

Ileana Petrobrution: 1614 Alberni St., Vancouver, B.C. V6G-1A6, CANADA  
ph) 604-684-6604 fax) 604-684-6614

## Chaahath(Desire)

Cinenova Film & Video Distribution: 113 Roman Road, London E2 0QN  
ph) 181-981-6828 fax) 0181-983-4441  
e-mail) admin@cinenova.demon.co.uk

## Changing our Minds-the Story Dr Evelyn Hooker

Interpid Productions: 8033 Sunset Blvd #688, Los Angeles, CA 90046  
ph) 310-657-1963

## Charlene's Angels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Chocolate Babies

Open City Films: 198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3  
ph) 212-343-1850 fax) 212-343-1849

## Dangerous When Wet

Daine Bonder: P.O.B.864, Hoboken NJ 07030, USA  
ph) 718-624-0411

## Dirty Laundry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For a Losr Soldier

Fortissimo: Herenmarkt 10-2, 1013 ED Amsterdam, the Netherlands  
ph) 31-20-627-3215 fax) 31-20-626-1155 E-mail) ffsales@globalxs



queer

film sorce

queer

film sorce

# **Fresh Kill**

ITVS: 190 Fith Street East, Suite 200, Saint Paul, MN 55101, USA  
ph) 612-225-9035 fax) 612-225-9102

# **Glitterbug**

Dangerous To Know : 66 Offley Road Kennington Oval London  
ph) 44-171-735-8330 fax) 44-171-793-8488

# **Groove on a Stanley Knife**

Disruptive Element Films: 23 Beech Hill Rd Sheffield S10 2SA UK  
ph) 44-114-268-1350 fax) 44-114-266-1397

# **Hide & Seek**

Media Luna : Friesenwall 83 D-50672 Cologne, Germany  
ph) 49-221-139-2222 fax) 49-221-139-2224, 49-221-13-5474

# **Indian Summer**

British Council : 11 Portland Place London W1N 4EJ  
ph) 071-930-8466 fax) 071-389-3199

# **Inn Trouble**

Christina Rey: 887 Amsterdam Ave., Atlanta, GA 30306  
ph) 404-897-5218 fax) 404-897-5218 e-mail) fearless@mindspring.com

# **Interpidissima**

BFI : 21 Stephen Street London W1P 1PL  
ph) 171-255-1444 fax) 171-580-5830

# **In the Tradition of Stonewall, Queers Fighting AIDS**

DIVA TV : 12 Wooster St., New York, NY 10013 USA  
ph) 212-226-8147 fax) 212-966-4873 E-mail) actupny@panix.com  
http://www.actupny.org/diva/DIVA-TV.html

# **I Rwally Wanted You**

Pansy Division: P.O.Box 460885, San Francisco, CA 94146, USA  
ph) 415-267-4832 fax) 415-206-0854

# **Isle of Lesbos**

Picture This Entertainment: 7471 Melrose Ave., Suite 8, Los Angeles, CA 90046  
ph) 213-852-1398 fax) 213-658-7265 e-mail) gaypicture@aol.com

# **It's Elementry**

Woman's Educational Media: 2180 Bryant Street Suite 203, San Francisco, CA 94110  
ph) 415-485-4616 fax) 415-641-4632 e-mail) wemdhc@aol.com

# **Juggling Gender**

Women Make Movies, Inc.: 46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13  
ph) 212-925-0606 fax) 212-925-2052 E-mail) info@wmm.com

# **Khush**

Women Make Movies, Inc.: 46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13  
ph) 212-925-0606 fax) 212-925-2052 E-mail) info@wmm.com

# **Killer Condom**

Troma Entertainment Inc.: Troma Building 733 Ninth Avenue New York, NY 10019  
ph) 212-757-4555 fax) 212-399-9885 E-mail) http://www.troma.com/home

# **Late at Night**

Hochschule Fur Film und Fernsehen "Konrad Wolf":  
Karl-Marx-Str. 33/34, 14482 Potsdam-Babelsberg  
ph) 49-331-746-9340 fax) 49-331-746-9349

# **Law of Averages**

James Duesing: School of Art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15213-3890, USA  
ph) 412-268-2409 fax) 412-268-7817 e-mail) jduesing@andrew.cmu.edu

# **Like Grains of Sand**

Pia Film : 5.19 Sanban.Cho, Chiyoda-ku, Tokyo, Japan 102  
ph) 81-3-3265-1425 fax) 81-3-3265-5659

# **Lotus Sisters**

Video Out: 1965 Main Street, Vancouver BC Canada V5T 3C1  
ph) 604.872.8449 fax) 604.876.1185

# **Mayday**

Hochschule Fur Film und Fernsehen "Konrad Wolf":  
Karl-Marx-Str. 33/34, 14482 Potsdam-Babelsberg  
ph) 49-331-746-9340 fax) 49-331-746-9349

# **Midnight Dancer**

Fortissimo: Herenmarkt 10-2, 1013 ED Amsterdam, the Netherlands  
ph) 31-20-627-3215 fax) 31-20-626-1155 E-mail) ffsales@globalxs

# **Minoru & Me**

Nakata Toichi: 9 cross field Rd London MW3 4NS UK  
ph) 44-171-483-1168

# **Murder and Murder**

Yvonne Rainer: 72 Franklin St., New York, NY 10013  
ph/fax) 212-925-8809

# **My Moon her World**

Hochschule Fur Film und Fernsehen "Konrad Wolf":  
Karl-Marx-Str. 33/34, 14482 Potsdam-Babelsberg  
ph) 49-331-746-9340 fax) 49-331-746-9349

# **Nitrate Kisses**

Babara Hammer: 55 Bethune St. #114G, New York, NY 10014  
ph) 212-645-9077 e-mail) BJHammer@aol.com

# **Not Just Passing Thought**

Women Make Movies, Inc.: 46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13  
ph) 212-925-0606 fax) 212-925-2052 E-mail) info@wmm.com

# **Not Simply a Wedding Banquet**

Mickey Chen: 48 Gold St., 1st flr., No. Arlington, NJ07031, USA  
ph, fax) 886-2-3151-7504

# **Only the Brave**

Pickpocket Productions Pty. Ltd.: 3/79 Nicholson St Footscray Vic 3011 PO Box 213, Yarraville, VIC, 3013  
ph) 61-3-9689-4844 fax) 61-3-9689-4881

# **Polotical Funerals**

DIVA TV : 12 Wooster St., New York, NY 10013 USA  
ph) 212-226-8147 fax) 212-966-4873 E-mail) actupny@panix.com  
http://www.actupny.org/diva/DIVA-TV.html

# **Private Wars**

Nick Deocampo: 66 Rosario Drive, Cubad, Quezon City, Philippines  
ph) 63-2-721-7702 fax) 63-2-722-8628

# **Queercore**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 **Roles of AIDS Activists**

DIVA TV: 12 Wooster St., New York, NY 10013 USA  
ph) 212-226-8147 fax) 212-966-4873 E-mail) actupny@panix.com  
http://www.actupny.org/diva/DIVA-TV.html

# **Sadie Benning's Works**

Women Make Movies, Inc.: 46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13  
ph) 212-925-0606 fax) 212-925-2052 E-mail) info@wmm.com



**She Doesn't Fade**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Ontario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e-mail) video@astral.magic.ca

**Shinjuku Boys**

Uplink: ASAI Takashi 3F 1-8-17, Jannan Shibuya-ku, Tokyo 150 Japan  
ph) 03-5489-0755 fax) 03-5489-0754 e-mail) uplink@st.rim.or.jp

**Silverlake Life**

Film Trasiit: 402 est, Notre-Dame, Montreal, QC H2Y 1C5 CANADA  
ph) 514.844.3358 fax) 514.844.7298 e-mail) filmtan@odyssee.net

**Sunflowers**

Shawn Hainworth: 727A Waller Street, San Francisco, CA 94117  
ph) 415-255-8443 E-mail) Shawnh@dnai.com, www.dnai.com/~shawnh/seh/9.M

**The Attendant**

BFI: 21 Stephen Street London W1P 1PL  
ph) 071-255-1444

**The Midwife's Tale**

Migan Siler: 2021 Essex St., Berkeley, CA 94703  
ph) 510-548-2086 fax) 510-548-2086

**The Question of Equality: Outrage 69, Generation Q**

ITVS: 190 Fifth Street East, Suite 200, Saint Paul, MN 55101, USA  
ph) 612-225-9035 fax) 612-225-9102

**The Second Coming**

Jack Walsh: 654 Vermont Street, San Francisco, CA 94107  
ph) 415-206-9596 fax) 415-826-7023

**The Toilers and the Wayfarers**

Picture This Entertainment: 7471 Melrose Ave., Suite 8, Los Angeles, CA 90046  
ph) 213-852-1398 fax) 213-658-7265 e-mail: gaypicture@aol.com

**Three MIX Festival Picies**

DIVA TV: 12 Wooster St., New York, NY 10013 USA  
ph) 212-226-8147 fax) 212-966-4873 E-mail) actupny@panix.com  
<http://www.actupny.org/diva/DIVA-TV.html>

**Tom Kalin Compilation**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Tongues Untied**

Frameline: 346 Ninth Street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3  
ph) 415-703-8650 fax) 415-861-1404 e-mail) frameline@aol.com

**Totally Fucked Up**

Fortissimo: Herenmarkt 10-2, 1013 ED Amsterdam, the Netherlands  
ph) 31-20-627-3215 fax) 31-20-626-1155 E-mail) ffsales@globalxs

**Trace Elements**

V-tape: 401 Richmond St. W., Suite 452, Toronto Canada M5V 3A8  
ph) 416.351.1317 fax) 416.351.1509

**Transexaul Menace**

Rosa Von Praunheim: Konstanzer Str. 56, 10707 Berlin, GERMANY  
ph) 030-883-5496 fax) 030-881-2958 e-mail) Rosavp@aol.com

**Young Soul Rebels**

BFI: 21 Stephen Street London W1P 1PL  
ph) 071-255-1444

**Zero Patience**

Fortissimo: Herenmarkt 10-2, 1013 ED Amsterdam, the Netherlands  
ph) 31-20-627-3215 fax) 31-20-626-1155 E-mail) ffsales@globalxs